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
강화 전등사 수목장
대한불교 조계종 전등사 032. 937. 0125

현대불교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11월 1일(음력 9월 11일) 수요일 (주간) 제 601 호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선거에 멍든 종단… 처방 시급

조계종 14대 종회의원 선거, 곳곳에 '상처'
"관련법 개정 · 청정 승가 구현 나서자" 여론

조계종의 입법과 대의기구인 제14대 중앙종회의원 81명 가운데 76명이 10월 26일 모두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위원장 도공)는 10월 26일 오후 1~4시 각 교구별로 직선의원 선거를 진행해 총 46명(직할 4명, 해인사 3명, 그 외 22개 교구 2명씩)을 선출했다.

이로써 23일 선출된 직능직대표 20명과 비구니대표 10명을 포함해 앞으로 4년간 제14대 중앙종회를 이끌어갈 76명이 모두 가려진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무산된 불국사와 재선거가 결정된 관음사, 그리고 후보자가 1명이었던 금산사는 선거법에 따라 50일이내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과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과 갈수록 깊어가는 '선거 후유증'은 불교계 안팎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문제점은, 원칙 없이 흔들린 중앙선관위의 파행적 운영과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과정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나눠먹기식' 구태다. 초반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이 두 가지 사안에 가려, 선거 때마다 늘 제기돼 오던 △비리관련 부적격 후보의 출마 △투표자 매수와 금권선거 △종책과 소신보다는 문중과 계파를 배경으로 무작정 출마하는 문제는 지적할 겨를조차 없었다.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끝난뒤 선거법의 개정을 통한 선거 후유증 줄이기에 종단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10월 26일 직할교구의 투표소 장면. 사진=박재완 기자

'중심' 못잡은 선관위

중앙선관위(위원장 도공)에 대한 비판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불국사 은해사 해인사 관음사 등에서 출마자격시비 등이 잇따랐는데도 선관위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11교구 불국사로 출마한 종문 스님의 출마입후보 자격 인정과 관련해서는 '인정'과 '불인정'을 반복하는 판결로 출 · 재가 단체들의 집중적인 성토 대상이 됐다. 결국 관련단체들의 눈치를 보다가 막판에 후보자와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않고 선거를 무산시키는 편법을 동원하는 추태를 보였다. 한 중진스님은 "선관위원은 누구보다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야 하는데, 특정인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종헌종법의 정신을 가볍게 여기면서 비난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종헌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종도들에게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 배경에는 중앙선관위의 운영과 구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원 9명 가운데 임기만료와 사퇴로 공석이 3명이나 발생했지만 171차 중앙종회에서 후임을 추천하지 않은채 선거를 진행했다. 때문에 3~4명만으로도 얼마든지 야합이 가능한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했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그 직을 수행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선거관련 업무를 종회사무처가 병행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독립기구화시켜 엄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도 더 미룰 수 없다.

'나눠먹기' 이제 그만!

그동안 형식적인 계파별 '나눠먹기식' 안배에 침묵했던 선원과 강원, 비구니스님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선원과 강원의 경우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혜국 현산)와 전국강원교직자회(회장 우진)가 독자적으로 2명씩 후보를 추천하면서 선출위원회를 압박했다. 비구니 대표도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수현) 직선으로 종회의원이 추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지만 기존의 관행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결국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관행대로' 계파에 따라 20석을 나누었고 선원수좌회, 교직자회, 교단자정센터 등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 선출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출위원들이 "직능대표가 전문성에 맞게 안배되어야 한다"며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들 역시 관행을 따라 후보 추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종도들의 반발을 의식해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0월 24일 긴급담화문을 통해 "직능대표 선출에 있어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은 잘못"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차기 종회가 구성되는 대로 시급히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중앙종회에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총무원이 직접 발의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선출위원으로 참석했던 한 스님은 "현실적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석수를 줄이더라도 직능직 선출은 정상적으로 하고, 전국구 개념의 간선의원 제도 도입을 고려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부 교구서 불협화음 노출

이번 선거에서는 9개 교구가 투표없이 선거를 치렀다. 이러한 결과가 본사대중들의 합의를 통해 여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후보자 수를 강제로 조정하려들면서 교구내 알력과 불협화음만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합법적으로 입후보한 종문 스님을 불국사 교구선관위가 고의로 누락시켰는가 하면, 관음사 교구선관위는 법정 · 혜민 스님의 입후보를 방해해 재선거 결정이 내려졌다.

금산사 경우에는 4명이 출마했지만 평상 · 원혜 스님의 사퇴와 성우스님의 후보자격 상실로 종회사무처장 법진 스님만 무투표 당선됐다.

승가적 선출 방식 모색해야

14대 종회는 지난 13대 종회가 처리하지 못한 각종 '선거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은 "선거가 종단을 망친다는 탄식이 제방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승가의 전통적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대 중앙종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개악된 종무원법의 재개정도 미뤄서는 안된다. 대사회적 불교의 위상을 재고하는 것만큼이나 승단의 부정부패를 막고 청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단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종도들은 계파와 문중의 이익을 위해 다투기 보다는 건전한 종책 대결로 경쟁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4대 중앙종회가 '선거법'을 둘러싼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2 · 15면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시방세계 9면
조계사 정오음악회 '칠일칠음'

산문밖의 禪
각자장 김각한씨 17면
경주 사천왕사지 발굴현장 13면
금장사 '방과후 공부방'
성공 노하우는? 19면
봉선사 강설대법회
지안 스님 '열반경' 24~25면

새 종회의원 프로필 5면

빛고을불교아카데미중계 4면 | 11월 1일 오후 7시 지광 스님 '유성출가상'

'위로부터 信바람' 시동

'부산불교지도자포럼' 창립 … 설동근 교육감 회장



부산의 학계, 교육계, 재계, 관계, 문화계의 지도층 불자 108인으로 구성된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이 10월 30일 코모도호텔에서 창립됐다.

기존의 신행단체와는 차별화된 포럼 형식으로 운영될 부산불교지도자포럼에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 공무원 중에서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다. 창립법회에서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사진)이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이시영 한중문화교류재단 이사장, 이윤희 부산대학교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7인이 부회장으로, 김재진 경동건설 회장, 안영욱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장, 강희락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6인은 고문으로 추대됐다. 이 밖에도 각 사찰 신도회장단, 신행단체장 등 부산불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은 신심 깊은 불자지만 외부적인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던 이들을 묶어냄으로써, 대사회적으로 불교계의 위상과 결집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향후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며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앞장서 사회 각 분야에서 불교 활동의 기틀을 다지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연 2회 세미나도 개최한다. 또한 학술문화 교류, 불교지도자 육성, 국제 교류, 사회복지 및 봉사사업 지원 육성 등 부산은 물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 및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제12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12월 16일 마감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6년 12월 16일 ■ 당선작 발표 : 2007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41 ■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지 사장상)
  -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드립니다.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백운스님
법화경/11월 4일
봉선사 설법전, 031)527-1951~3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아름다운 등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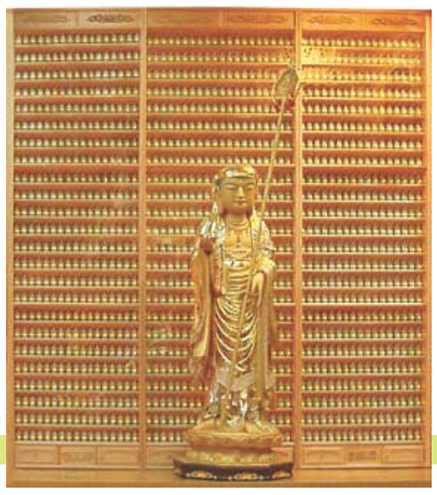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 상 품
영구위패
LED 인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특성화’로 찾아가자

조계종 포교원 7일 ‘농촌지역 사찰 활성화’ 연찬회 개최

인구감소, 고령화, 장기간의 경기 침체, FTA 협약. 농촌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있는 요소다. 지역의 소규모 사찰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또 다른 암초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기독교의 공격적인 선교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도심 사찰과 농촌이 결연을 맺고 농산물 직거래 매장을 개설하거나 영농회사 또는 유통법인을 만드는 ‘1사(寺) 1촌(村)’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자본과 인력을 농촌으로 끌어들이는 것만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온전히 풀기에 역부족. 따라서 지역 거주민이 보다 풍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 사찰이 중심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7일 오후 2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농촌지역 사찰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제4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는 사찰의 지역사회 역할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찬회에는 총 3명의 발제자가 나선다. 선오 스님(당진 정토사 주지)은 ‘지역에 기반한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다.

기독교 절대 강세지역에서 문화포교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가가고 있는 선오스님은 지난 7월 개설한 정토문화원에서 다도와 타악 등 각종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또 연꽃축제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 1000일 기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선오 스님은 “당진면에 사랑방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지역포교 계획들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민 스님(홍천 백락사 주지)과 현종 스님(강릉 현덕사 주지)은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환경포교’를 주제로 발제한다.

지난 8월 수재민 돕기를 위해 산사음악회를 개최한 홍천 백락사는 지역 주민과 호흡하기 위해 지난 5월 ‘사찰 내 환경설치 미술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전시회에서 국내 신진 설치예술 작가 15명이 일상의 생활용품을 멋진 설치예술품으로 승화시켰다.

매년 ‘동식물 천도재’를 봉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현종 스님은 세제 안 쓰기 등을 실시하고 친환경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한다.

현종 스님은 “크고 웅장한 절보다 작고 소박한 절이 보다 자연친화적”이라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들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02)2011-1319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조계종 중앙종회 ‘새 판’ 들여다보니…

친 집행부성향 ‘개헌의석 수’ 넘겨

조계종 제14대 교구직선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일부 교구를 제외하면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마무리 됐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38조에 따라 월정사, 수덕사, 직지사, 해인사 쌍계사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대흥사 등 9개 교구에서는 후보자 수가 교구 선출정수 이내여서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교구직선에는 모두 47명의 후보가 13개 교구에서 경합했다. 총 유권자 수는 3580명으로 2595명이 투표에 참가해 72.5%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최고 투표율은 제 24교구본사 선운사가 기록했다.

총 투표권자 103명 중 10명을 제외한 92명이 투표에 동참해서 투표율 89.3%를 냈다. 최다 득표 당선자는 직할교구의 태연 스님(130표).

이번 14대 종회에서도 13대 종회에 이어 초선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초 · 재선현황을 살펴보면 재선 19명(25%) 3선 19명(25%) 4선 8명(10.5%) 순이었다.

최다선 의원은 7선의 신흥사 정휴 스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직능대표 장윤 스님이 5선으로 집계됐고 직능대표 학담 영배 장주 자승 수현 스님과 교구직선 영담 진만 보선 스님 등이 4선 의원으로 나타났다.

3교구 신흥사는 정휴 스님의 7선 기록도 화제였지만, 육지장사 주지 지원 스님과 경합했던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스님은 각 19표로 동표가 나와 법랍이 도후 스님(38년)보다 4년이 앞선 지원 스님이 가까스로 당선되는 행운을 얻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정센터가 부적격 후보로 지명한 현법 스님은 법주사로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부산 선암사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중원 스님도 출마했던 관음사가 재선거 결정이 나면서 종회 입성이 무산됐다

지관 스님 집행부에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을 지낸 스님들의 당선도 화제가 됐다. 현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봉선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지현(직할), 前 총무국장 정범(직할), 前 기획국장 성묵(고운사), 前감사국장 선문(동화사), 前 사무국장 성효(용주사) 스님 등이 교구직선으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계파별 부침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것. 친 집행부 성향 종회의원이 55석 이상을 차지해 재적 3분의 2인 개헌의석수를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더욱 공고해진 여권의석 수를 바탕으로 종단운영에 상당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엄회의 약진은 놀라울 정도. 2교구 용주사 직선직 종회의원으로 당선된 화엄회 회장 성직 스님은 “불국사를 빼고도 현재 파악된 의석수가 17~18석 정도 될 것”라고 말했다. 반면 금강 · 보림회 등 반 집행부 스님들은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약화돼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11월 3일 당선증을 교부한다. 또 제14대 중앙종회가 종법에 따라 11월 13일 개원될 예정이어서 전반기 의장단 선거전도 막이 올랐다.

조용수 기자

‘선암사법’ 개정 등 내놔
태고종 총무원 수습방안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운산)이 재산권 문제로 불거진 선암사 사태와 관련 10월 23일 두 차례에 걸친 협상 무산으로 ‘더 이상 대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선암사법 개정 등 5개항의 수습방안을 내놓았다.

성명서는 △전산대회 부활 및 총회에서 주지선출을 주내용으로 하는 선암사법 개정 △현 주지 승조 스님의 자주권 보장 △도선암 등기 환원 △양창기(도월) 등 사법당국 고소 고발 △선암사 멸실 문화재 조사위원회 가동 등 사태처리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태고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여초)는 10월 20일 ‘태고총림 선암사의 본래면목을 회복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선암사의 조기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원융종 총무원장에 성관 스님



대한불교원융종(종정 일공)은 10월 17일 총무원에서 열린 중앙종회에서 제4대 총무원장에 성관스님(수원 용화정사)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총무원장 취임식은 내년 3월 26일 창종기념식과 함께 봉행된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군법당에 부처님상 무상보시 ‘약정’

불모 허길량씨 본지 캠페인 동참후 첫 기증… 국방대학원 법당에

평생 부처님을 조성하며 살아온 불모가 군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불상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군법당에 무주상으로 보시하겠다고 뜻을 밝혀 화제다.

본사와 함께 신축 군법당에 군법당 조성 캠페인을 진행 중인 불모 허길량씨가 10월 27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조계종 군종교구에 약정서를 전달하고 신축 또는 증축이나 불상 교체를 원하는 모든 군법당에 석가모니부처님을 보시하겠다고 밝혔다.

허씨는 약정서에서 삼보의 가피로 불모가 되어 그 은덕에 감사하며 한국불교의 미래가 군불교 활성화에 있음을 공감해 석가모니 부처님을 무주상으로 보시하게 됐다고 약정 의사를 밝혔다.

허씨가 군법당에 기증하게 될 시물은 2척×2.5척×3척 크기의 좌대를 포함한 동불로 조성된 석가모니부처님으로 기증을 원하는 군법당은 조계종 군종교구에 신청을 하면 된다. 올 연말 개원 예정인 국방대학원 법당에 처음으로 기증될 예정이다.



불모 허길량(왼쪽에서 두번째)씨는 10월 27일 희망하는 군법당에 동불로 조성된 석가모니부처님을 보시키로하고 약정서를 조계종 군종교구에 전달했다.

1953년 전남 승주에서 태어난 허씨는 서수연 선생의 문하로 목조각에 입문한 이후 김만복 스님의 맥을 이어받았다. 1977년 불교미술대전에서 ‘천수관음’으로 대상을 수상했고, 2001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조계종 군종교구 주지 일면 스님은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장인이 남은 여생동안 부처님 전에 회향하겠다는 서원으로 군법당에 석가모니부처님을 아무런 대가없이 조성해준다니 한량없이 감사하기만 하다”며 “불모의 높은 뜻을 받들어 군포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군종교구는 이날 약정서를 받고 허길량씨를 불사지도위원으로 위촉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불사지도위원은 군법당 불사시 조언과 지도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02)797-7266

김두식 기자

준부사관불자회장단
21명에임명장 수여

조계종 군종교구(주지 일면)는 10월 27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육해공군 준부사관불자회 이강수 회장(육군 교육사령부 준위)을 비롯해 21명의 회장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일면 스님은 “군불교 조직의 모범이 돼 달라고”고 격려했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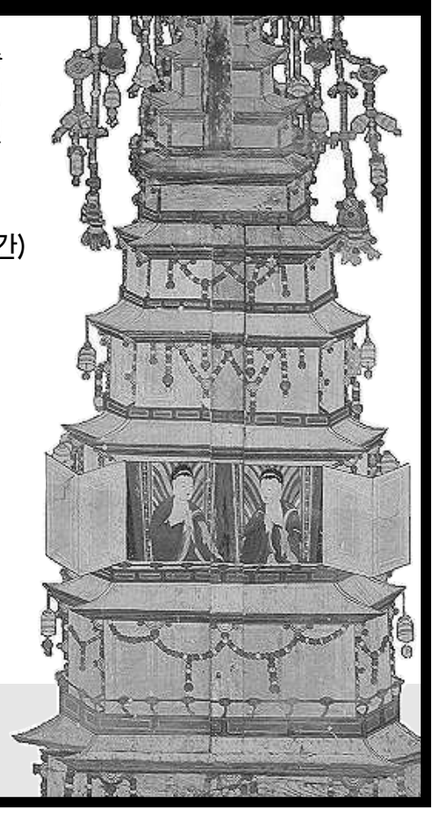
통도사 영산전 벽화
한 · 일 · 대만 공동 학술 연구

한국 · 일본 · 대만이 공동으로 통도사 영산전 벽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학술연구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고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확대 ·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기간 2005년1월 ~ 2007년12월 (약3년간)

연구기관
한 국 : 통도사성보박물관
일 본 : 元興寺文化財研究所
대 만 : 東海大學

공동지원
한 국 : 부산상호저축은행, 부산2상호저축은행
일 본 : トヨタ財団 The Toyota Foundation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055) 382-1001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지은 · 성보박물관장 범하

2006년 불교교육능력평가를 위한
제5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실시 공고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기본 소양, 불교교리의 이해, 사회봉사 참여의식, 불자로서의 가치관등에 대하여 불교교육능력 평가고시를 시행하여 실천불교를 위한 정법포교의 선구자역할을 할 불교포교사를 배출하고자 제5회 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함

· 연합회에 등록된 교양대학(교육과정 1년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응시료 60,000원 (국민은행 023-01-0566-256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 **2006년 12월 3일(일) 오후 1시 ~ 오후 6시** (필기시험 및 면접)
· 학교별 일괄접수
· **2006년 10월 25일(수) ~ 11월 15일(수)**
· 서류전형 → 1차 시험(필기시험 및 면접) → 최종합격자발표 → 최종합격자연수 및 품수
· 박문각행정고시학원(서울종로구조계사입구, 제일은행본점 뒷편)
· 2007년 1월 10일(개별및 학교별 통지)
· 응시원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수계첩 사본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진 4매(반명함판)
· 연합회 사무국 TEL 02)734-9595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 신규가입할 교육단체 및 교양대학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4-9595 FAX 02)732-1207

폭력에 짓밟힌 종교화합

7대 종교계 참가 '종교문화축제' 행사중
북핵반대 불법 시위대, 무대 올라 난동



종교화합의 상징인 '종교문화축제'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왼쪽에서 네번째)등 7대 종교지도자들이 이웃종교 의식복을 번갈아 입어보며 우의를 다졌다.

10월 21일 서울광장에서 7대 종교계가 참여한 가운데 제10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가 열렸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의장 지관, 이하 종지협) 주관해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종교문화축제는 종교간 화해와 협력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대표적인 행사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축제는 문제가 발생했다. '나눔과 기부'를 주제로 잘 치러지던 축제는 마지막 프로그램인 무지개콘서트 도중 중단되고 말았다. 같은 장소에서 불법으로 집회를 강행한 '북핵 반대 ·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공동대표의장 김성은, 이하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측 시위대가 무대에 올라 의자를 집어던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

북한가요 '반갑습니다'를 부르던 새터민 여가수 김유경씨는 마이크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입술이 터졌고, 시위대의 진입을 만류하던 행사진행요원들은 집단구타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흥분한 시위대 참가자 가운데 1명도 무대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이 불법집회를 주도한 이들은 다름 아닌 종교인들이었다. 종지협의 공동대표를 지낸 前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창규 목사와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서경석 목사, 대전 만불선원 회주 진철 스님 등이 포함돼 있었다. 집회 식순에 묵도, 찬송, 기도, 축도 등이 포함된 것도 개신교 교회측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결국 종교화합과 화해의 상징인 종교문화축제가 종교인들의 방해로 중단된 셈이다.

이 불법집회에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창규 목사는 종교문화축제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희망 나눔을 위한 종교사회 지도자 기증품 전시회'에 소장품을 기증하기도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교문화축제에 참석해 종교화합의 행사를 축하해놓고, 이 행사를 방해한 서울시청앞의 불법집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종교간 갈등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 종지협은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측의 사과방문과 치료비 부담 정도로 마무리 지으려 했다. 그러나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측 서경석 목사는 사과는 커녕 불법집회가 아닌 종교집회였다며 발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종지협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업무방해, 불법집회, 폭행 등을 처리할 것을 검토중이다. 박봉영 기자

남북불교교류 상징 신계사 19일 낙성식

남 · 북 불교계가 공동으로 진행해 온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가 11월 19일 마무리된다.

2004년 복원에 합의하고 복원불사를 공동으로 추진한 지 2년만의 일이다.

조계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은 11월 19일 신계사 낙성식을 봉행한다.

이 자리에는 남북불교 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유영선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이 나란히 참석해 남북불교 교류의 결실을 거둔다.

신계사는 2004년 대웅보전 복원을 시작으로 2005년 만세루와 요사채, 산신각이 복원됐다. 또 붕괴 위험에 있던 신계사 삼층석탑이 해체, 보수됐다. 올해에는 극락전을 비롯해 축성전, 칠성각, 종각, 나한전, 어실각 등 7개동의 전각이 지어져 옛 모습을 되찾았다.

낙성식 참가를 위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지관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명진 스님 등 300명으로 구성된 조계종 대표단이 금강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관 스님 예방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10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한국인이 유엔 사무총장에 전적인 지지를 받고 선출된 것은 대한민국의 영광"이라며 축하했다. 반 총장은 "전 국민 특히 불자들의 기도와 마음을 얻어 큰 자리에 오른 것 같다"며 "불교계의 관심과 아낌없는 질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자원봉사연대 발족 '초읽기'

긴급재난구호활동이나 일반 봉사활동 시에 대형 복지법인 및 전국 사찰의 불교자원봉사자들을 긴밀히 연결해줄 불교자원봉사연대가 꾸려진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은 11월 4일 개최하는 불교사회복지대회 개막식에서 '불교자원봉사연대' 발족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불교사회복지 대회에 참여하는 70여개의 복지법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봉사연대 활동 동의서를 접수받는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사찰자원봉사를 수료한 30여개 사찰과 신행단체 수료자 1200여 명에게도 연대 참여를 권하고 있다. 연내까지 약 100여개 기관이 연대하는 불교자원봉사연대를 꾸리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각 복지법인, 사찰, 자원봉사단체, NGO,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연대가 꾸려지면, 국내외 재난구호 활동시 연대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효과적인 지원전략 수립이 가능해지며 불자 자원봉사자 간의 유대와 결속력도 증대될 것으로 재단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대를 통해 불교계 자원봉사활동 인구 파악, 봉사분야, 봉사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은비 기자

10 · 27법난 26년… 명예회복 언제?

진상규명위 성명서 발표

1980년 당시 계엄사령부는 전국의 사찰에 난입해 스님들을 무차별 폭행 · 연행하고, 모진 고문과 폭력을 행사했다. 바로 26년전의 일이다.

10 · 27법난 26주년을 맞아 조계종 10 · 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10 · 27법난 진상규명위)가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10 · 27법난 진상규명위는 성명서에서 "10 · 27법난은 무력으로 국가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세력이 자신들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만행을 호도하기 위해 한국불교를 전면적으로 탄압한 사건이며, 또한 자주적 민주적 종단운영을 원천적으로 파괴한 불교말살사건"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10 · 27법난 진상규명위는 또 교과서에 1980년 신군부가 자행한 만행 가운데 한국불교계에 대한 야만적 만행을 적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9월부터 10 · 27법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봉영 기자

KCRP 20주년 기념식

1986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KCRP) 총회를 계기로 종교간 대화와 화해, 협력을 위해 설립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KCRP(회장 백도웅)는 10월 24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KCRP 20년사> 발간식을 열었다.

KCRP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불교, 개신교 등 7대 종교계 수장,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KCRP는 故 강원용 목사, 故 김몽은 신부, 前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스님, 최창규 前 성균관장 등이 대표회장을 역임하며 7대 종교의 화합을 위한 활동에 주력해 왔으며, 2004년부터 백도웅 목사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동국대 줄기세포은행 설립 추진

역분화기술 보유 (주)임젠과 산학협력

동국대가 줄기세포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동국대는 (주)임젠과 산학협력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 일환으로 임젠이 보유하고 있는 줄기세포 역분화 기술을 이용한 줄기세포은행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10월 25일 체결했다.

동국대는 임젠과의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일산불교병원에 줄기세포은행(stem cell bank)을 설립하고, 의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바이오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일산불교병원 인근을 일산메디클러스티로 조성해 동북아 줄기세포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임젠은 역분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로, 환자 체세포를 직접 줄기세포로 제조해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서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동국대 홍기삼 총장, 일산불교병원 이석현 원장, 임젠 김기동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강남 거점 사찰 포교전략 시급"

봉은사 세미나, 특화 프로그램 · 일요법회 필요성 지적

서울 강남 지역의 불자인구가 타 종교 인구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신교는 물론이고 비슷한 정도의 시설수를 보유하고 있는 가톨릭에 비해서도 신자 수가 적은 것으로 드러나, 거점사찰의 포교전략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가 10월 24일 봉은사 개산1212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불교의 현황과 도심포교-봉은사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김응철 교수의 발제문 '통계를 통해 본 강남 지역의 포교 현황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강남지역 종교인구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2005년도 기준)의 53.1%로 서울 전체의 종교인구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개신교 비율은 강동구 25.4%, 서초구 24.9%, 송파구 23.8%, 강남구 23.5% 등이며 가톨릭 비율은 서초구 21.1% 강남구 20.7% 송파구 16.4% 강동구 14.8%인 반면, 불교 인구는 송파구 16.2% 강동구 15.9% 서초구 15.3% 강남구 15.2%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수에도 크게 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봉은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의 경우, 관내 종교시설 중 개신교 교회는 322개에 이르지만 사찰은 20개만 있을 뿐이다.

김 교수는 "강남에 각 종교단체에 종교부지가 불하되면서 종교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지만 불교계는 이 지역에 충분한 재원 및 종교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포교경쟁에서 뒤쳐졌다"며 "이 외에도 원력과 지혜를 갖춘 포교사가 없고, 중산층 이상이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남지역 특화 프로그램이 없었으며 일요법회를 적극 시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강남의 대형사찰들은 영향력이 적은 지역에 포교당을 설립하고 △도심포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지역 문화센터 및 도서관 등 신행과 포교의 중심이 될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은비 기자

600년 前 팔만대장경 이운식 인사동서 재현



600년전 팔만대장경은 어떻게 해인사로 이운되었을까?

합천 팔만대장경축제준비위원회는 '합천팔만대장경 축제(10월 27일~30일)'를 서울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10월 2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인사동에서 팔만대장경을 해인사로 모시는 의식 재현 행사를 열었다(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조선시대 문무백관과 호위 무사로 변장한 합천 군민과 해인사 스님들이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이거나 (정대) 지게, 소달구지 등을 이용해 서울에서 해인사로 대장경을 옮기던 장면을 연출했다. 김주일 기자

중앙승가대학교 2006년도 총동문회 임시총회

귀의 삼보하옵고
전국 각처에서 수행정진과 포교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문스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는 11월 6일(월) 회칙 제7장 29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모교발전을 위하여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불기 2550('06)년 11월 6일(월) 오후 2시
◆ 장 소 : 봉은사 〈법왕루〉

안 건 1) 학교발전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모색의 건
2) 기타의 건

※ 기타 문의사항은 본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922-7881, 929-7110 / Fax 02)929-6919
홈페이지 : http://ob.sangha.ac.kr/

中央僧伽大學校總同門會長 退宇正念 合掌

인간분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제3강 : 사문유관상)

광주불교사암련 · 현대불교 공동주최

지선 스님(고불총림 백양사 유나) / 10월 25일

생로병사, 출가 동기이자 위대한 결단의 메시지

싯달태자, 생로병사의 인간고를 목도하다

부처님 생애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대한 버림'입니다. 둘째는 수행하다가 뒤로 물러서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위대한 정진'입니다. 셋째는 도를 깨달으신 뒤 중생 세상에 내려와서 펼치신 '회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인생은 위대한 버림, 정진, 회향의 일생이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삶은 만남의 일생이었습니다. 중생과 모든 생명을 길에서 만나셨고, 이들 생명을 인연에 따라 모두 제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부처님의 법신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일체중생은 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부처님을 통해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부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윤회의 고통스런 수레바퀴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일체중생실유불성'입니다. 불성은 어디에 숨겨있는 그런 실존적인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보면 몸과 마음의 교호작용 속에 있는 바로 그것이 불성 즉 자성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음이 곧 부처이기도 하고 중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형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불성의 빛이고 자성의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알고 인생을 알고 불법을 알려면 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공부, 마음작용이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고 과거이자 미래이며 현재 삶의 전부입니다.

사문유관상은 부처님이 태자시절 동서남북 네 군데 문에서의 만남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부처님이 왜 네 군데 문만 가 봤겠습니까. 네 가지 문을 거쳤다고 한 것은 생명있는 것들의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번뇌의 상징인 생로병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사문유관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처님 출가의 동기인 동시에 위대한 결단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변화 자체가 주는 압박감, 세상이 변하는 것에서 오는 갈등과 회의, 허무함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부처님은 출가하게 됐고, 그것이 네 가지 문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던 것입니다.

불교를 대표하는 것 가운데 초월성이 있습니다. 불교는 초월하는 종교입니다. 초월을 잘못 인식해서 도피나 자기이익을 위해 피하는 은둔으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초월이라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모습을 정면대결해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숨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초월이 아니라 비겁한 것입니다.

'반성 · 참회 · 발원'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의미있는 일 · 봉사하며 살아야 진정한 행복
부처님처럼 '위대한 버림 · 정진 · 회향' 하길

불교는 부처님과 보살, 신장, 큰스님을 모셔놓고 절을 하고 존경합니다. 이것은 먼저 깨우친 부처님과 조사들을 따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분들의 말씀에 따르면서 동시에 한단계 더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보다 나은 자식이 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 초월성을 불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흙으로 만든 외형적인 형상과 큰스님 영정이나 탱화에 예배하며 지혜와 자비 즉 진리를 추구하지만, 거기에 머물거나 걸리지 않고 초월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현대사회는 사바세계이자 오탁악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 지구촌은 어디를 가나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등 어디를 가나 모순과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업이라고 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불평등한 업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인간들이 스스로 짓기 때문에 인간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역시 불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안에서 우주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천수만 가지의 고통과 불안, 공포, 갈등, 회의를 주는 그런 모순, 그런 업보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수행을 통해 닦으면 반드시 해결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불교는 운명론이 아니고 숙명론이 아닙니다. 설령 운명이 정해진 것이라 해도 100%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다른 말로 하면 불성, 자성, 지혜입니다.

자기가 지어놓은 생각, 활동이 도리어 자기를 구속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업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성취시키고 내가 활동해서 모으고 구해놓은 것이 도리어 나를 괴롭히고 또는 윤회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부질없는 그림자같고 이슬같은 것으로 알아 위대하게 버리고 수행해서 해탈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날 세계를 보면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나 전쟁, 기아, 병고와 환경파괴의 오염뿐입니다. 어찌 보면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이 괴로움뿐입니다. 그러므로 생사문제와 그와 같은 괴로움을 영원히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자유, 행복의 길을 부처님이 선택하게 된 계기가 바로 사문유관상입니다. 사문유관상이 오늘에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생사 없는 영원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택하는 결단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웰빙을 이야기하는데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웰빙은 수행입니다. 웰빙이란 잘 사는 것인데, 길을 알고가야 잘 살죠. 알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잘 삽니다. 수행을 해서 이 생사가 없고 영원한 길을 가야합니다. 그것이 사문유관상이 오늘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10월25일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세번째 법사인 지선 스님이 '사문유관상'을 주제로 법문하고 있다.

불교가 과학 철학 종교에 멈추면 여타종교와 똑같습니다. 그것마저 초월해서 비과학 비철학 비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중첩된 모순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모순에서 현대인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문유관상은 부처님의 출가 동기이면서 위대한 결단의 메시지입니다. 불교를 지식으로만 알려해서는 안됩니다. 자기 착한 심성대로 남 속이지 않고, 남 어렵게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그것이 불교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이라도 오늘 하루를 되돌아 보십시오. 마음에 꺼림칙한 데가 있으면 잘못한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자기 심성의 악함과 선함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다시 말해 불자는 늘 반성과 참회와 발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순간을 참회하고 반성해서 몸과 입이 깨끗해졌을 때 이렇게 살겠다며 발원하라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자꾸 참회를 해도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절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 안됩니다. 목욕탕가서 씻어도 또 더러워진다고 목욕탕에 안 간다거나 안 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욕을 했어도 또 하는 것처럼 절에도 자꾸 다니며 참회 발원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입니다.

참회하고 반성하고 발원하면서 나이 들어 인생이 황혼에 접어들면, 큰 죄 짓지 않고 작은 죄 짓게 되고, 작은 죄 지은 사람은 더 작은 죄 짓게되고, 나중에는 죄 짓지 않아, 죽을 때가 되면 뱀이 허물을 벗듯 해탈하고 가는 겁니다. 세상의 허무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에서 생긴 지혜와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지혜는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고 반성과 참회를 할 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불교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결국엔 생활불교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리를 보다보면 지식의 한계성을 느끼게 됩니다. 지식으로만은 안되고 수행을 통해야 합니다. 수행을 통해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실천하고, 피땀 흘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듣고 배우고 스님에게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서 '그렇구나. 그 말이 맞네.' 그렇게 무릎을 탁 치면서 터득하면 이것이 참 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불교인으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주 많이 하고 말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불보살처럼 섬기고, 이웃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남이 하기 어려운 것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생활불교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생활불교인으로 살다 보면 그 사람이 한 단계 더 초월되어 자기 인생에 큰 변화가 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가정에서부터 행동과 말로 옮기니, 생활불교인이면서 일등 시민이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원력을 가진 보살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생활의 즐거움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활동에 몰입하는 데서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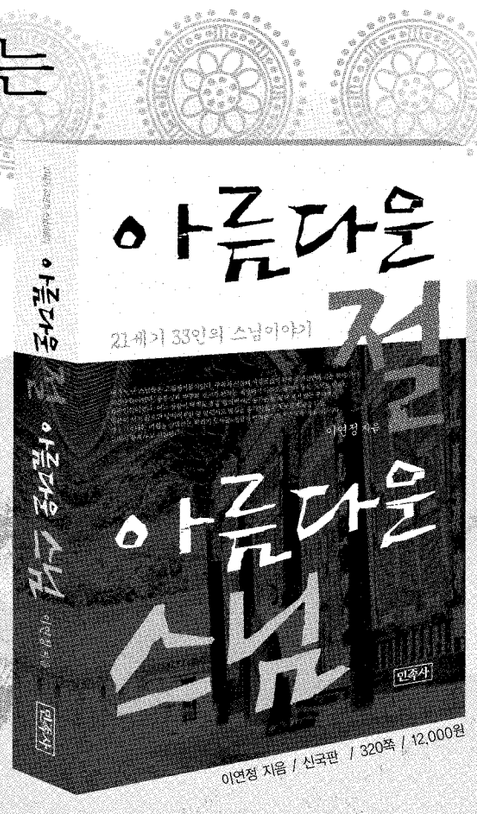
여러분도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며 사십시오. 세 번째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이나 봉사하는 데서 오는 행복입니다. 이 세 가지 행복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나는 배워서 알았노라, 닦았노라, 버렸노라. 그래서 나를 여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위대한 버림, 정진, 회향을 하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 · 사진=이준엽 기자

山寺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서른 세 분의 스님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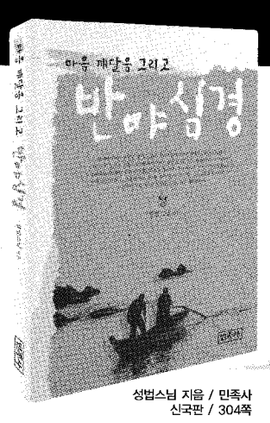
내가 만난 스님들은 고집쟁이들이었다.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없이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외골수들이었다. 융통성과 재주와 재치가 판치는 세상에서 아직도 원칙과 상식 도덕을 받드는.
자유인들이었다. 어느 상황이 닥쳐도 훌훌 털어버리는 홀가분함, 앞뒤 재지 않는 무대책, 명분이 서지 않으면
낭떠러지인 줄 알면서도 발길을 옮기지 않고 꼿꼿하게 길을 가는.
채우기보다는 버림을 선택하는 버리기 도사들. 성향과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자유인들이다.



이연정 지음 / 신국판 / 320쪽 / 12,000원

지종 스님(백양사 방장) | 원응 스님(벽송사 서암) | 지광 스님(능인선원 원장) | 진옥 스님(석천사 주지) | 영담 스님(석왕사 주지) | 혜능 스님(율사) | 진월 스님(한국 종교연합선도기구) | 법장 스님(선운사) | 상덕 스님(청암사 주지) | 각안 스님(효상좌) | 현장 스님(대원사 주지) | 원민 스님(능엄학림) | 도각 스님(민족공동체추진본부) | 지현 스님(청량사 주지) | 현웅 스님(옥조사 주지) | 진원 스님(강사) | 탁연 스님(총무원 문화부장) | 지완 스님(서울노인복지센터) | 철산 스님(내소사) | 원오 스님(군법사) |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 | 인묵 스님(어산학교장) | 원각 스님(원당암) | 지산 스님(봉인사) | 도영 스님(용람선원) | 노현 스님(각화사 주지) |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 성원 스님(강화 선원사) | 정념 스님(낙산사 주지) | 원명 스님(동해 삼화사 주지) |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 철운 스님(법주사 승가대학장) |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연구원)

불교에 대한 보기 드문 비판과 대안을 역설한
반야심경의 새로운 해석!



이 책은 불교에 대한 보기 드문 비판과 대안을 역설하면서
반야심경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반야심경 해설서이다.
깨달음이란 물질을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본성을
공(空)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마음으로 물질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성법스님 지음 / 민족사
신국판 / 304쪽

UN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질문은 딱 한 가지였다.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식량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면 정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은 엄청나게 실패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식량'이 뭔지 몰랐고, 서유럽에서는 '부족'이란 단어를 몰랐다.
동유럽에서는 '의견'의 뜻을 몰랐고, 중동에서는 '해결책'이 뭔지 몰랐다. 남미에서는 '부탁'이라는 걸 몰랐고,
아시아에서는 '정직한'이라는 뜻을 몰랐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들'이라는 게 뭔지 몰랐다.

– 본문 중에서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810호 ·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홈페이지: www.minjoksa.org

민족사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의원 당선자

직선

직할교구



지현 — 월탄 스님을 은사로 출가. 용화사 주지. 총무원 호법국장, 재정국장.



정범 — 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총무원 기획국장. 총무국장. 현 옥천암 주지.



태연 — 혜각 스님을 은사로 출가. 총무원 재무부장. 현 약사사 주지.



자제 — 현도 스님을 은사로 출가. 종립학교 관리위원. 현 적조사 주지.

제2교구 용주사



성직 — 정락 스님을 은사로 출가. 13대 의원. 현 염불사 주지.



성효 — 정대 스님을 은사로 출가. 용인시 사암연합 회장. 현 용덕사 주지.

제3교구 신흥사



정휴 —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불교신문사 장. 8·9·10·11·12·13대 의원. 현 호압사 주지.



지원 —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 9대 의원. 현 육지장사 주지.

제4교구 월정사



도완 —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 북경사범대학 한국 교우회. 12·13대 의원. 현 법흥사 주지.



정광 —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 월정사 교무국장. 13대 의원. 현 정암사 주지.

제5교구 법주사



노현 — 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 고운사 재무국장. 현 각화사 주지.



각원 — 법종 스님을 은사로 출가. 좋은 벗 풍경소리 총재. 12·13대 의원. 현 청량사 주지.

제6교구 마곡사



태진 — 진경스님을 은사로 출가. 총무원 기획국장 호법국장. 현 관촉사 주지.



원경 — 진연 스님을 은사로 출가. 13대 의원. 현 성불사 주지.

제7교구 수덕사



정묵 —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 12·13대 의원. 현 선본사 주지.



주경 — 설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현 부석사 주지.

제8교구 직지사



법보 — 녹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 총무원 사회국장. 12·13대 의원. 현 학도암 주지.



장명 — 녹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 직지사 포교국장. 현 직지사 총무국장.

제9교구 동화사



법광 —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 중앙승가대 법인사무처장. 13대 의원. 현 도덕암 주지.



선문 — 현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화사 교무국장. 총무원 감사국장. 현 동화사 한주.

제10교구 은해사



선광 — 법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 옹무원 호법국장. 은해사 부주지. 현 지보사 주지.



돈관 —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 대구 불교방송 총괄국장. 현 불광사 주지.

제12교구 해인사



도영 — 정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 총무원 조사국장. 현 해인사 총무국장.



대오 — 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 중정 예경실장. 현 홍국사 주지.



혜일 — 도견 스님을 은사로 출가. 현 연화사 주지.

제13교구 쌍계사



영담 — 고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불교신문사 사장. 10·11·12·13대 의원. 현 석왕사 주지.



종호 — 고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현 묘덕사 주지.

제14교구 범어사



상운 — 능가 스님을 은사로 출가. 포교원장 직무대행 사무처장. 13대 의원. 현 정암사 주지.



원범 — 홍교 스님을 은사로 출가. 해인사승가대학 교수. 현선암사 주지

제15교구 통도사



범해 — 청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 통도사 중강. 중앙선거관리위원. 현 무풍사 주지.



지준 — 법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 경주 동국대학교 강사. 13대 의원.

제16교구 고운사



자현 — 근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 현 부석사 선원장.

제17교구 금산사



성묵 — 문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 법왕사 주지. 총무원 기획국장.



법진 — 도영 스님을 은사로 출가. 총무원 감사국장. 13대 의원. 현 중앙종회 사무처장.

제18교구 백양사



현공 — 지종 스님을 은사로 출가. 총무원 감사국장. 미황사 주지. 13대 의원.



의연 — 학능 스님을 은사로 출가. 총무원 감사국장. 호법국장. 13대 의원.



진만 — 명선 스님을 은사로 출가. 화엄사 재무국장. 11·12·13대 의원. 현 상운사 주지.



덕문 — 종열 스님을 은사로 출가. 화엄사 기획국장. 13대 의원. 현 용화사 주지.

제21교구 송광사



무자 — 회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 13대 의원. 현 길상사 주지.



진화 — 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 고려대장경연구소부소장. 현 증심사 주지.

제22교구 대흥사

보선 —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중앙종회 부의장. 11·13대 의원. 현 대흥사 회주.

월우 —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12·13대 의원. 현 도갑사 주지.

제24교구 선운사

보원 — 기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선운사 총무국장. 13대 의원.

혜오 — 혜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총무원 상임감찰. 호법국장. 현 개암사 주지.

일관 — 일면 스님을 은사로 출가. 포교원 포교부장. 현 불암사 주지.

보인 — 암도 스님을 은사로 출가. 봉선사 재무, 교무, 기획국장. 현 용문사 부주지.

직능

선원

선각 — 혜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 12·13대 의원. 현 종정예경실장.

효림 — 능혜 스님을 은사로 출가. 총무원 호법과장. 13대 의원.

강원

향적 —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 12·13대 의원. 현 불교신문사 사장.

학담 —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 화엄학림 교수. 11·12·13대 의원. 현 대승사 주지.

율원

광조 —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 원로회의 사무처장. 12·13대 의원. 현 망해암 주지.

진원 — 혜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총무원 호법부장. 12대 의원. 현 내소사 주지.

교육

영배 — 경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 11·12·13대 의원. 현 동국대 이사장.

장적 — 성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 개혁회의 재무국장. 12·13대 의원. 현 대구불교방송 본부장.

포교

지홍 — 광덕 스님을 은사로 출가. 개혁회의 의원. 11·12·13대 의원. 현 불광사, 금강정사 회주.

재현 — 동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 교육원 연수국장. 포교원 포교국장.

사회

성관 — 정공 스님을 은사로 출가. 총무원 총무부장. 12·13대 의원. 현 수원포교당 주지.

종훈 — 능가 스님을 은사로 출가. 보광사 주지. 12·13대 의원. 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문화

장윤 — 상묵 스님을 은사로 출가. 능인학원 이사장. 8·9·11·12·13대 의원. 현 전등사 주지.

원담 — 무상 스님을 은사로 출가. 청주불교방송본부장. 12·13대 의원. 현 조계사 주지.

복지

동광 —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 13대 의원. 도선사 한주. 현 청담장학문화재단이사장.

일문 — 종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 실천불교승가회 집행위원장. 13대 의원. 현 보광사 주지.

법제

장주 —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법보신문사 사장. 9·12·13대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현 불국사 부주지.

지명 — 혜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 중앙종회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 법주사 주지. 9·12대 의원.

행정

자승 — 정대 스님을 은사로 출가. 총무원 총무부장. 10·12·13대 의원. 현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성월 — 정대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국학원 감사. 13대 의원. 현 보문사 주지.

비구니

수현 — 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 11·12·13대 의원. 현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일초 — 경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학사 주지. 현 동학사 승가대학장.

운달 — 지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 운문사 동문회장. 12·13대 의원. 현 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

일법 — 삼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 전국비구니회 교무부장. 11·12대 의원.

성정 — 쾌유 스님을 은사로 출가. 총무원 문화부장. 현 전국비구니회 섭외부장.

도문 — 인홍 스님을 은사로 출가. 석남사 주지. 12·13대 의원.

경륜 — 묘각 스님을 은사로 출가. 목동청소년수련관 관장. 12·13대 의원. 현 석불사 주지.

계호 — 진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 운문 승가대학 강사. 12·13대 의원. 현 진관사 주지.

혜원 —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 13대 의원. 현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동국대 교수.

일운 — 묘엄 스님을 은사로 출가. 봉녕사 승가대학 중강. 현 불영사 주지.

※스님호칭 생략

- 11교구 불국사 선거 무산
- 17교구 금산사 단독 출마
- 23교구 관음사 재선거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의원당선자 자세한 이력은 buddhanews.com에서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1~2

海印寺 高麗刻板「사간판 인경본」보급 불사 안내

고려시대 불교신앙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료가치의 최고를 드립니다

해인사는 고려각판을 보존하기위해 해인사 사간판 인경불사를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인경을 마친 인경본을 사찰은 물론 불자님들께 한정 보급합니다. 고려팔만대장경이 제작되기 전인 900년대에 제작된 것부터 1960년대에 제작된 것까지 모두 158종 5986판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28종이 국보 206호로, 26종이 보물 734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간행기록이 남아있어 고려시대 불교신앙의 경향과 서지학적 변화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海印寺刊板이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두 동의 큰 판전인 법보전과 수다라장 사이에 있는 동사간전과 서사간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경판이 보관되어 왔는데, 이 목판을 흔히 '해인사간판(海印寺刊板)'이라 불러왔습니다. 이 목판은 국가기관인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새긴 해인사 대장경판(국보 제32호)과는 달리, 지방관청이나 사찰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특징

심 부 주 - 능가경 관련 주석서인데 경제목에 대한 설명자체도 알려지지 않은 희귀본.
대문 금강경 - 글자체가 크고 특이해 그 가치가 뛰어나다.
경덕전등록 - 절집의 족보와 같은 것으로 학술적 서지학적 가치가 높다.
시왕생칠경 - 다른 종류의 책으로 각각 한 권씩 모두 두 권이 있는데 요즘은 사라진 왕생극락사상을 대표하는 고려시대의 경전으로 희귀본입니다.

80화엄경변상도(주본)

시왕생칠경

대문금강경

인천보감

경이름	총 권	판매가	비 고	경이름	총권	판매가	경이름	총권	판매가	비 고	경이름	총권	판매가	비 고
묘법연화경	7권	100만원		능가경회역	4권	50만원	고봉화상 선요	1권	50만원		大文금강경	1권	100만원	국보 206-20
인 천 보 감	상·하 2권	200만원	국보 206-9	심 부 주	4권	50만원	시 왕 생 칠 경	2권	200만원	1권 국보 206-10	80화엄경변상도(주본)	1권	200만원	국보 206-14
경덕전등록	10권	200만원		대승능가경	1권	50만원			100만원	1권 보물 734-3	80화엄경변상도(진본)	1권	100만원	국보 206-13

입금계좌 : 농협 843174-51-013471 (예금주 : 해인사)

구입문의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보존연구원) 전화 055)934-3095 / 팩스 055)934-3096

‘寺報’ 지역포교 효자노릇 ‘톡톡’

‘혜원’ 지령 200호 맞아 문화행사 열기도
타지역 자녀들에 발송… 포교지 기능도
불교 · 문화 · 생활 정보까지 폭넓게 다뤄



부산 혜원정사가 사보 <혜원> 의 지령 200호를 기념해 개초한 ‘사보표지 사진전’.

통도사, 범어사 등 교구본사급 사찰에서나 발행되던 사보가 최근 몇 년 사이 부산 경남 사찰들과 불교계 복지관 등에서 발행되며 지역 포교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통도사의 사보 <등불>이 11월로 통권 300호를 맞이한 것을 비롯,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혜원정사가 사보 <혜원> 지령 200호를 기념하는 문화 행사를 사보 표지 사진전을 중심으로 열기도 했다. 또한 최근 새롭게 문을 연 범어사포교원 반야원도 개원과 함께 사보 <아름다운 인연>을 발행, 불자들의 신행을 돕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삼광사의 <삼광법회>, 관음사의 <늘기쁜 마을>, 울산불교신도회가 펴내는 <불향>, 감로사의 <감로사>, 밀양 용궁사가 펴내는 <초심>, 홍법사의 <홍법> 등이 문서 포교의 전령사 역할을 다하고 있다.

홍법사의 경우, 타블로이드 한 장으로 발행되던 사보를 32쪽의 소책자로 만들어 호응을 얻고 있다.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사보를 발송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찰 사보가 절에 다니지 않는 지인이나 자녀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포교지로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다.

밀양 용궁사는 사보 <초심> 발간으로 눈에 띄게 신도가 늘어나고 사세가 확장된 대표적인 경우다. 물론 불교교양대학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밀양시민들의 관심을 끌긴 했지만 쉽게 읽히는 사보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사찰로 다가설 수 있었고, 단시일 내에 밀양시의 대표적인 사찰로 자리를 굳혔다.

또한 교계 각 복지관에서도 복지관 소식지 발행이 일반화됐다. 용호복지관의 <천수천안>은 계간으로 복지관 소식과 후원자, 자원봉사자 소개, 복지 관련 정보 등을 담아 전하고 있다. 최근 문을 연 무량수노인요양원도 <무량수> 첫 호 발간을 앞두고 있다. 복지관 소식지 역시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복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서비스를 통해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만드는 간접 포교로 불교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사보에 대한 인식의 변화만큼 사보를 채우는 내용의 변화도 뚜렷하고 사보의 판형도 다양해졌다. 사찰 사보가 해당 사찰의 행사 안내나 홍보에만 그치던 것에서 탈피, 불교 전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끌어내고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으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는 사찰 사보가 그 사찰 신도를 위한 정보 안내 기능을 넘어 사찰에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도 불교 전반과 전통 문화, 생활 정보까지 전해주는 문화 포교지로서의 기능까지 하고 있다는 말이다.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에서부터 ‘두부찜 요리법’ ‘선어록’ ‘법문’ ‘신행담’ ‘지혜가 담긴 만화’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한 번 펼치면 끝까지 읽게 만드는 재미와 유익함까지 곁들여 놓았다.

이처럼 사보가 지역 포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신행의 길잡이로 자리 잡으면서 부산 경남의 사찰들에서 사보 발간을 시작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부산 운수사가 사보 발행을 준비 중이고, 사보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보완해 내용을 늘이는 사찰도 많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개교 100년, 행사도 100점

1500여 학생 소망 담은 풍선 날리기 등
‘100년史’ 출판기념법회도



종립학교인 금정중학교(교장 현익채)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10월 20일 교내 운동장에서 100주년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10월 15일 오전 10시 금정산 등산대회로 개교 100주년 행사의 출발을 알린 금정중학교는 10월 20일 금정중학교 교정에서 금정대동제 행사를 개최했다.

범어사 부주지 계전 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갖고 이어 1500여 학생들의 소망을 적어 날리는 소망풍선 날리기, 가장 행렬, 사물놀이 축하공연, 금정가요제 및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축제 행사를 열었다.

또한 다음날인 21일에는 부산 KBS홀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공연 ‘한마음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학생 107명, 교사 22명, 학부모 73명 등 총 230여명이 축하공연을 준비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개교 100주년을 위해 3년 전부터 결성, 맹연습을 해 온 사물놀이팀의 공연과 교사 7인으로 구성된 교사 밴드 ‘398師(금정중학교의 전화번호를 따서 지은 이름)’의 공연 등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금정중학교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금정중학교 100년사’를 펴내고 10월 12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천미희 기자

“임원단 100명 구성해 포교 매진”

범어사 신도회 재도약 다짐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대성) 신도회(회장 박정현)가 오랜만에 임원 단합대회를 겸한 조촐한 음악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10월 22일 양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염남훈 부회장을 비롯, 박남숙, 최병기 이사 등 27명의 이사진이 새롭게 위촉됐다. 또 향후 100명의 임원단 구성을 목표로 분과별로 전문성을 갖춘 임원단을 꾸려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신도회는, 연 회비 2만원을 납부하며 주인의식을 갖고 활동할 10만 신도 확보를 장기적인 목표로 세우고 9월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임원 정기법회와 월 2회 신도 정기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10만 신도 확보를 위해 1차적으로 6개월이내에 1만 신도확보를 마무리 짓고 공식적인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제36회 교학연구발표회
청소년 포교기금 전달도

불교교육연합회와 전국교법사단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 해동고등학교과 남태평양호텔, 통도사에서 제36회 교학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19일 남태평양 호텔에서 열린 환영식에 이어 불교교육연합회 총회, 전국교법사단 총회가 각각 열렸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해동고등학교에서 교학연구발표회가 열렸으며, 통도사 불적답사와 교법사단 모임이 이어졌다. 셋째 날에는 불교문화 특강을 가지고 회향됐다. 천미희 기자

밀양 표충사 사명제전 성료

경남 밀양 표충사(주지 청운)는 제2회 표충사 사명제전을 10월21일부터 22일까지 표충사 경내와 영남루에서 개최했다.

제2회 사명제전에서는 21일 열린 사명대사 추모 전국 한글 백일장을 비롯해 다도시연 및 시음회, 디카폰카 촬영대회, 작약산 영산재,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

22일 표충사당에서 열린 526회 추계향사는 서산, 사명, 기허 선사의 영전에 전통 유교식 제향을 올리고 발원문 낭독, 엄용수 밀양시장의 봉행사, 표충사 주지 청운스님의 인사말 순으로 봉행됐다.

이은아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청정운동’ 부산에서도 펼친다

감로사서 ‘내가 바뀌어야…’ 주제 법회, 신행수첩 나눠줘

대한불교진흥원 청정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송석구)는 10월 24일 감로사(주지 혜총)에서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서 청정운동추진위원회 송석구 위원장은 “왜 다시 청정운동인가라고 묻는 이들도 많지만 청정운동은 부처님의 깨달은바 본래의 세계를 실천하고자 하는 운동”이라며 “보현행원을 근거한 8가지 덕목을 현대적 의미로 풀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매일 매일 점검해 가면서 청정운동에 참여하자”고 말했다.

법회에 앞서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은 송석구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청정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감로사에서 청정운동의 첫 씨앗을 뿌리게 돼 영광스럽다”며 “모든 불자들이 나부터 청정해지는 노력을 기울여 밝고 맑은 세상을 가꾸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흥원이 펼치고 있는 청정운동은 대원 장경호 거사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된 진흥원 20주년을 맞은 기념사업으로 1995년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2006에는 8가지 실천 덕목을 제시하며 지역순회 법회를 열고 있다.

이날 열린 법회에서는 매일의 자기 점검이 가능한 신행수첩을 나눠주며 청정운동에 대한 인식과 동참의식을 높였다.

천미희 기자

종립학교에도 풍경소리 울린다

부산 해동고교 교내 20여곳에 게시판 설치



지하철 각 역사마다 설치돼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여운을 주며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풍경소리. 그 은은한 풍경소리가 종립학교에도 울려 퍼진다. 종립학교에 풍경소리가 설치된 것은 전국에서 부산이 처음.

10월 16일 부산 해동고등학교(교장 강석표) 교내 곳곳에 20개의 풍경소리 게시판이 설치(사진)된 것을 비롯 향후 다른 종립학교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안정수 해동고 교법사의 기획으로 진행된 종립학교 풍경소리 게시판 설치는 풍경소리 부산지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해동고 강석표 교장은 “읽고 잊어버리더라도 마음을 울린 글은 언젠가 학생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가르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풍경소리 부산지사는 앞으로 부산에 있는 종립학교인 금정중학교, 해동중학교에 연내에 풍경소리 게시판 설치를 완료하고 군법당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천미희 기자

5분이면 나도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중에서 작명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엄선하였습니다.
• 320여 가지의 성을 한자의 획수별로 분류하여 2획으로된 성부터 22획 성까지, 상생의 원리와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까지 조화를 이루어 성씨별로 2000개에서 3000여개의 이름들을 엄선하여 이름풀이까지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 이름, 법명, 법호, 상호, 기타 작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작명의 대가가 될 수 있도록, 작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한 이름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름을 원하십니까? 작명, 개명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이름이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재물을 풍요롭게 하는 이름은 있습니다.
원하는 이름을 작명하는 것은 작명가의 능력입니다.
역학 개인지도
◆ 모집인원 : 3명(선착순) ◆ 자 격 : 남 · 여, 학력, 나이 제한없음
◆ 기 간 : 2006년 12월 1일 부터 3개월(주당 8시간)
◆ 사 주 및 작명의 대가가 되고자 하시는 분(숙식가능)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 정가 50,000 (오만원)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봉 축
대한불교법화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종무원장 혜 각
총무국장 도 광
사 서 지 웅
재무국장 지 성
교무국장 일 우
감찰과장 운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51-102
T.053)766-7231 / F.053)766-7232

“나눔으로 맺은 우리는 한가족”

불교사회복지회 자원봉사자 후원인 가족축제
봉사시간 따라 메달수여… 이상량씨 복지대상 받아



불교사회복지회가 개최한 자원봉사자 후원인축제는 나눔가족의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모두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춰 봅시다.”

10월 21일 대구 영남이공대학 운동장. 펄럭이는 만국기 아래 2000여명이 모였다. 뽀얀 먼지 속에 남녀노소가 한데 엉켜 뛰고 춤추고 웃는다.

지역복지를 이끄는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대표이사 지도)가 마련한 ‘2006 자원봉사자 후원인 가족축제’ 현장에는 웃음꽃이 만발했다.

‘기쁨이 있는 나눔! 축제가 되는 복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유리어린이집, 대구남구시니어클럽, 관오사, 여래원, 남구청소년자활지원관 등 19개 기관과 지역 10여개 기업체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그리고 가족들이 참여했다. 평소 소리 없이 소문 없이 묵묵히 이웃의 어려움을 내일처럼 거들고 나눠줬던 봉사자들은 50여개의 천막아래 터를 잡고 한 가족이 됐다.

오전 9시 30분 쇠소리 풍물단의 길놀이에 이어진 성화 봉송으로 가족축제는 열기를 머금고 가족, 나눔, 축제, 행복 4개팀으로 나눠 벌어진 소망탑세우기, 한마음달리기, 흥부네 박터뜨리기, 천수천안수퍼볼, 줄다리기 등의 경기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미래의 지역사회공동체를 구현하는 실험의 장으로 열린 가족축제는 어느 누구의 간섭도 강제성도 없다. 서로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장터를 열고 경기에도 참여하며 행복을 만들어갔다. 특히 함께(LET'S)의 의미를 담은 ‘마음’ 화폐 사용이 돋보였다.

현 사회가 물질에 대한 가치만을 화폐로 환산해 사용했다면 가족축제에선 안 보이는 마음과 노력봉사에 대한 가치도 환산해 화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화폐이름도 ‘마음’이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나눔과 봉사는 또 다른 가치로 창출되어 서로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 즉 내가 남을 위해 마음을 쓰고 봉사한 만큼 나도 또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불교사회복지회는 이날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열심히 봉사한 댓가로 모두에게 2000마음씩을 나눠줬다.

또, 미래지역공동체사회를 대비해 봉사자들의 봉사시간 적립제도를 갖춰놓았다. 젊고 힘 있을 때 10시간의 봉사를 했다면 늙어 힘이 없을 때 다시 우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3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넘게 봉사 활동한 봉사자들이 기념품과 증명메달을 받았다. 매주 토요나눔마당에 나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행사진행을 맡아온 이상량 거사가 올해의 복지대상을 받았다.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최문성

대구경북포교사단 단장

대구경북포교사단은 올해 11기 신규 포교사를 무려 98명이나 배출했다.

450여 포교사가 활동하는 지역최고의 포교신행단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대구경북포교사단의 수장 최문성(59) 단장. 그는 2000년 포교사고시에 합격해 5기 포교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35년간의 공직생활을 은퇴하면서 경북포교사단장으로 선출되어 지역불교포교에 모든 정성을 쏟고 있다.

불교문화재가 좋아 사찰 안내팀에서 줄곧 활동해왔으며, 사찰 안내팀 총무, 팀장을 거쳐 대구경북포교사단 특별위원과 감사를 두루 역임하고, 직장불자회에서도 시청유마회 교화부장, 동구청일심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해온 지역불교의 ‘씨알’이다. 게다가 그는 2000년 포교사단이 처음 창단되었던 당시부터 어렵게 포교활동을 이어왔으로 구성된 포교사단을 이끌자면 24시간이 모자라지만 3명의 부단장과 특별위원들 7명의 협조로 그 어느 때보다 결속력 있는 대구경북포교사단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찰순례단을 만들었고, 매월 2회 사찰안내특강을 실시하고 매주 의식집전 습의를 익히는 시간을 갖고있다. 또, 앞으로는 월1회 포살법회도 가질 생각이다.

“불교포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법당 들어가는 법만 가르치면 됩니다.”

최문성 단장은 그의 포교노하우를 이렇게 밝혔다. 불교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절집에 발 한 번 들여놓기 어려웠던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포교활동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최문성 단장은, 얼마 전 집 근처 공원에서 기독교인들이 차 한 잔과 성경구절

6년전부터 사찰안내하며 포교노하우 쌓아
29개팀 포교사단 이끌며 나아갈 방향 늘 고심

다. 그래서 누구보다 불교현실을 잘 알고, 포교사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깊이 고민한다.

최문성 단장은 지금도 첫 포교활동을 잊지 못한다. 원력을 세워 포교사고시에 합격하고 불교문화까지 공부했지만 스님조차 포교사가 뭔지 모르던 시절 할 일이 없었다. 누구하나 찾는 이 없었지만 사찰안내를 하겠다고 주말마다 은해사를 찾아갔다. 여름이면 뙤약볕 아래서 겨울이면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1년을 꼬박 버틴 결과 대구경북포교사단은 은해사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포교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이 기간 동안 하심 하는 법을 배우고, 포교사가 어떻게 활동해야하는지를 터득하게 됐다”는 최문성 단장. 그는 늘 후배포교사들에게 ‘하심’을 강조한다. “포교사 자격증은 옷장 속에 깊이 넣어 두었다고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낮추고 행동하라”고 말한다.

거의 매일 포교사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최문성 단장은 오랜 공직생활 노하우를 살려 사소한 사무일까지 직접 챙기는 실속파다. 또, 말보다는 행을 우선하는 참 불자다. 19개 분야 29개 팀이 적힌 리플렛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다. 이젠 포교사들도 거리에 나설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단원도 급증했고 역량도 갖췄다.

또, 포교사들의 면면을 보면 사회지도층부터 전문인까지 다양한 인재들이 모였다.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도 자신의 돈과 시간을 털어놓으며 교도소며 군법당이며 부지런히 드나드는 참불자도 많다.

특히 이번 신규포교사는 5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배출됐다. 그 어느 기수보다 신심과 열정, 사명감이 크다.

포교사단이 도약의 단계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제대로 도약의 날개를 펴야하기에 어깨가 무겁다. 먼저 재정확립도 튼튼히 해야 하고, 10여 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450여 포교사들이 활동의 근거지로 삼을만한 수행관 불사에도 원력을 내본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용문사 성보유물관 4일 낙성식
윤장대 실물크기로 복원 · 공개



경북 예천 용문사(주지 청안)는 11월 5일 오후 4시 성보유물관 낙성식을 갖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지난해 6월 착공한 용문사 성보 유물박물관은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약 250여평(816.48㎡)규모의 목조한식구조로 지어졌으며, 지하1층에는 기획전시실과 다목적 영상실 휴게실 기계실을, 지상1층에는 수장고와 제1, 제2전시실 학예사실 안내로비 등을 갖췄다.

보물684호 윤장대(회전식 불경보관대)로 유명한 용문사는 성보유물관은 제2전시실에 윤장대를 실물과 같은 비율로 복원(사진)해 모든 관람객이 윤장대를 직접 돌리며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용문사는 낙성식을 기념해 5일 오후 2시부터 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한다. (054)655-8695

배지선 기자

“만가지 善의 터 다져 성불하리”

해인사 4~5일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법회 봉행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 대법회를 대적광전과 보경당에서 봉행한다.

무생계는 비로자나불이 설하고 문수보살이 전해온 법신계로 모든 불자들이 수지해야할 신행규범이며 불도를 이루기 위한 최상승 보살계로 알려져 왔다.

고려시대까지 출가수행자와 재가자가 같이 받아 지녔으나 조선조 이후 그 맥이 끊어졌던 것을 해인사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불로 판명된 비로자나불 복장에서 출현한 무상계첩을 통해 복원했다.

해인사 무생계첩은 고려시대 각정 스님이 지공 스님에게 받은 것으로 계첩에는 “무릇 무생계(無生戒)는 천성(天聖)을 세우는 땅이요, 만선(萬善)이 생겨나는 터이다. 그러므로 일체중생이 이 계법을 받지 않고서 불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적혀있다.

뿐만 아니다. 계목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보살계와는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해인총림은 “한국불교의 산실로 책임감을 갖고 그동안 매년 설해오던 보살계를 발전시켜 불교수행의 완성을 위한 무생계를 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생계대법회는 11월 4일 오후 4시부터 해인사를 창건하고 중수한 역대 조사님들의 위패를 해인사 비석거리에서 수레에 모시는 시련을 시작으로 입재에 들어간다. 오후 7시부터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을 모시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생사해탈 할 수 있는 법문을 듣고 밤9시부터 영가천도와 바라춤공연, 철야광명기도를 올린 후 5일 오전 7시 30분 괘불봉안을 하고 수계식을 봉행한다.

수계의식은 조계종정 법전 대종사의 증명아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 율원장 무관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행해진다. (055)934-3000

배지선 기자

원주 종교인 친선축구대회

지역 종교인들이 축구로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원주불교축구동호회(회장 정두환)는 10월 21일 치악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원주지역 종교인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축구대회에는 원주불교축구동호회를 비롯해 세계로교회 바울축구선교단, 구곡성당 세실리아축구선교단, 명륜2동 생활축구동호회 등 3개 종교 4개 팀 1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크리스탈 난타공연단’의 행사 축하 공연에 이어 참가 4개 팀 간의 리그전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 우승은 2승 1무를 기록한 구곡성당의 세실리아축구선교단이 차지했다.

정두환 원주불교축구동호회 회장은 “지역사회 종교인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종교를 이해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주불교축구동호회는 축구를 통해 지역사회 불교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창단됐으며, 현각 스님(성불원 원장)이 지도법사로 있다.

남동우 기자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대한불교 선총림 오봉산 대원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수목장, 납골탑, 천불전 무료 분양
靈林寺에서는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천연경관이 수려한 경내 수목장 500주, 부도탑(납골탑) 500기, 천불전 1천불을 조성 불자들을 위해 시설 일체를 무료개방하고 유족들에게 연중 모든 숙식을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시설비 일체 : 무료
◆ 각종재(천도재, 기일, 명절제사) : 무료
◆ 유족 방문시 숙식 : 무료
◆ 봉안 · 관리비 : 월 3천원



대한불교수목장보급회 http://www.sumogjang.co.kr
• 위치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잠실운동장 1시간 20분 96km)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사찰에 수목장, 부도탑, 천불전 조성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해 드립니다.
02)562-0821

“몸과 마음에도 단청 하세요”

광주 증심사, 18부처님 점안 · 대웅전 단청불사 회향

이즈음, 광주의 진산 무등산 증심사를 참배하면 색다른 감흥을 느낄수있다. 광주를 상징하는 증심사(주지 진화)가 대웅전을 곱게 단장하고 새롭게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이다.

증심사는 10월 24일 송광사 방장 보성,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과 각 사암 스님,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등 지역 기관장, 시민, 불자 등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웅전 단청불사 회향 및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보성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 계시는 법당은 곱게 단청되었는데, 우리의 마음과 몸은 얼마나 단청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며 “제대로 단청하기 위해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화 스님은 “이번 단청은 치밀하면서도 은은한 빛이 나도록 6개월에 걸쳐 진행된 걸작”이라고 밝혔다.

증심사는 또한 이날 법회에 앞서 대웅전 외벽 포위에 석가모니불, 문수보살 등 총 열여덟 구의 불,보살상을 조성하고 점안했다.

특히 이날 회향한 대웅전 단청은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원색위주의 단청에서 탈피해 원색과 간색의 적절한 조화로 화려하지만 튀지않게 했다. 또한 장엄하면서 은은한 이미지를 담아 참배객들이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했다.



광주 증심사는 대웅전을 곱게 단장하고 새롭게 부처님을 봉안해 10월24일 회향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단청은 불교미술가이자 문화재 단청 기술자인 정경문 씨가 맡았다.

한편 증심사는 2002년 오백전 해체복원 불사를 시작으로 대웅전 보수, 원통전 단청 불사로 도량을 장엄하고 각종 전선 지하화, 오수처리시설 등을 갖춰 사찰환경을 정비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 원각사 가을음악회 성황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2회 원각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광주 충장로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유명작가 초청 강연 및 전시회, 7080추억의 포크송 페스티발, 국악과 양악이 어울리는 퓨전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17일 열린 작가와의 만남에는 ‘암자로 가는길’의 저자 정찬주 씨가 나와 불교문학에 대한 강연과 싸인회를 가졌다.

이어 20일 열린 음악회에는 대중가수 이용 씨가 특별출연해 주옥같은 가을노래를 선보이며 가을밤을 수놓았다. 이준엽 기자

공주 영평사, 구절초 축제



공주 영평사(주지 환성)가 10월 9~22일 구절초 꽃 축제인 ‘제7회 장군산 예술제, 꽃나라 가을소리’를 개최했다(사진).

축제기간 동안 찬불가공연팀 나유타의 작은음악회, 티벳 스님들이 모래로 그리는 만다라 시연, 지역주민 노래자랑, 시낭송회, 사찰음식 전시회와 원묵 스님의 불화전시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구절초 사진촬영대회, 구절초 천연염색, 공주대 학생들의 구절초 음식전시회, 구절초꽃차 무료시음회 등 축제의 주제인 구절초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용악 · 석두 · 화봉 선사 탑비 건립

근대 한국불교의 큰 스승인 용악 혜견, 석두 보택, 화봉 유엽 선사의 탑비가 조계산 송광사에 건립됐다. 송광사와 용악 스님 문도들은 10월 23일 조계산 감로암 위에 탑지를 조성하고 용악 · 석두 · 화봉 스님의 탑비와 석두 스님 부도를 제막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비롯해 스님과 문도, 불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준엽 기자

‘통합불교련 새마음운동’ 창립

‘통합불교연합회 새마음운동’ 창립법회가 10월 20일 광주 시내 한 채식부페에서 열렸다.

광주전남지역 각 사암 스님과 재가불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천자암 조실 활안 스님은 법어를 통해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자세히 바라보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에 인도박물관 들어선다

광주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도박물관과 인도문화원이 개설된다.

아시아문화교류재단(이사장 현장)은 광주 운림동에 인도박물관(사진), 문화원을 설립하고 오는 11월 3일 개관식을 갖는다.

이날 개관식에는 파라타 사라티 주한 인도대사 부부와 지역기관장, 아시아 각국의 문화관계자가 참석해 인도박물관 탄생을 축하한다.

무등산 증심사 집단시설지구에 자리한 인도박물관은 연건평 600평 3층 건물이다.

박물관 1층은 인도 문화원, 인도음악 및 인도영화 감상실, 명상음악 카페가 들어서고, 2층에는 인도박물관, 아시아 아트마켓, 고려불화실이 자리한다. 또한 3층에는 300석 규모의 공연장과 교육관, 외국인 숙소, 재단 사무실을 갖추고 개관을 앞두고 있다.



아시아문화교류재단, 3일 문화원과 나란히 개관
유물 800점 전시… 영화 · 음악감상실 등 들어서

인도박물관은 현장 스님이 수집한 800여점의 인도유물을 목조각관, 금속공예관, 인도세밀화, 아시아불교문화관 등으로 나뉘어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정부와 협의해 인도의 국보급 유물을 기획전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관 전시에는 인도 세밀화와 춤추는 시바상, 자이나교 24대 티르탕카라인 마하비라상이 눈길을 끈다.

인도박물관 고조자 관장은 “인도에 관심 있거나 방문을 앞둔 이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고 박물관을 소개했다.

특히 광주에 들어서는 인도박물관은 민간박물관으로 지역 불교계가 주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보성 대원사에 티벳박물관을 설립한 현장 스님이 인도유물을 기증하면서 지역불자와 문화인들이 뜻을 모아 아시아문화교류재단을 설립했고, 박물관과 문화원을 탄생시켰다.

현장 스님은 “광주를 중심으로 아시아 문화 예술인 공동체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측은 광주시와 함께 무등산 생태복원사업이 완공되는 오는 2008년경 인도박물관에서 우제길 미술관, 증심사로 이어지는 구간을 아시아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인도박물관은 개관을 기념해 3일 오후 2시 개관식과 인도무용단 초청 공연을 펼친다.

또한 인도 문화원은 내년부터 아시아 문화해설사 아카데미를 개설해 아시아 지역 문화해설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062)224-0045 이준엽 기자

광주사암련 17대 회장
지각 스님 선출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향)는 10월 24일 사암연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제17대 회장에 동원사 주지 지각 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광주지역 사암 스님 60여명이 참석했다.

지각 스님은 당선 인사에서 “사암 스님과 신도들의 뜻을 모아 빛고을이 불국정토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스님(대흥사 조실)도 격려사를 통해 “근래 들어 광주불교가 급성장하고 있다”며 “불교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사부대중이 화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 신임회장이 추천한 대각사 주지 도산 스님을 상임부회장으로 추인했다.

interview “빛고을연등축제 문화재등록 추진”



“빛고을(光州)은 불교의 무량광(無量光)에서 나온 지명으로 정토세계를 뜻합니다. 이름 그대로 불국토가 되도록 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새회장 지각 스님(사진)은 “광주불교가 발전하기위해서는 종도들의 화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사부대중이 함께 신명나는 포교를 펼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한 “임기중에 임의단체로 구성된 광주사암련을 사단법인화하고, 광주사암련이 주관하는 빛고을 연등축제를 광주시에 문화재로 등록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승가화합을 위해 △원로위원회 구성 △신행단체 등록 △각 구별 불교협의회 활성 △자문 및 전문위원회를 결성하며, 교육과 문화사업으로 △신행단체 수련회 △소식지발행 △세미나 개최 △불교문화행사 주관에 적극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각 스님은 1967년 장성 백양사로 출가한 이래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장, 광주광산경찰서 경승실장을 맡고 있다. 이준엽 기자

효봉 스님 40주기 추모재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는 조계종 초대 종정 효봉 스님 40주기를 맞아 10월 23일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재에서 조계종 성수 스님은 “효봉 스님의 공부를 거울삼아 눈 안팔이고 정진하는 대중이 되자”고 말했다.

추모재에 이어 참석대중은 효봉 영각에서 탑돌이로 효봉 스님의 뜻을 기렸다.

한편 이날 효봉장학회는 송광사 선원, 강원,율원에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보조사상연구원도 <정혜결사문 강의> 300권을 법보시했다. 이준엽 기자

청주 관음사 무심 스님 초청법회

청주 관음사(주지 현진)는 10월 23일 대전 무상사 국제선원장 무심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무심 스님은 “무엇을 하든 마음자리에 들고나는 생각들을 잘 살피고 동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음사 주지 현진 스님은 청주 서원대 교양학부 교수로 초빙 받아 올 2학기부터 ‘명상과 자아’ 강의를 한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국화와 100가지 차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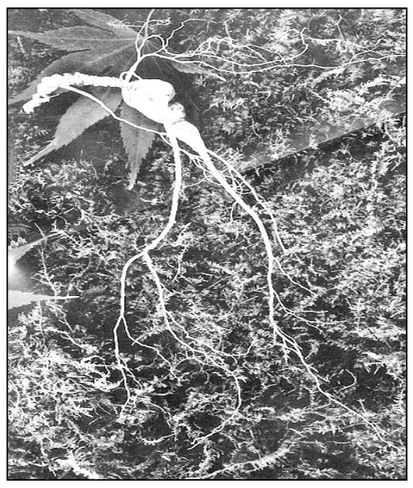
청주 우암산에 위치한 대한불교수도원(원장 설곡)은 10월 24일 세계 각국의 100가지 차를 시음하는 행사를 열었다. 행사장인 도량에는 원장 설곡 스님이 가꾼 국화꽃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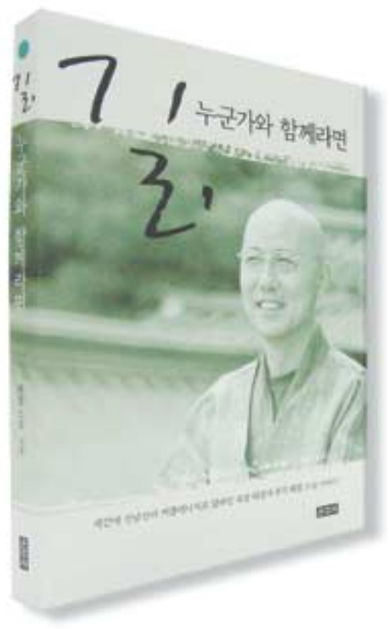
‘국화와 100차의 만남’을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차와 꽃의 향이 가득한 가을산사 분위기를 자아내 신도들과 사찰을 찾은 일반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세계 각국의 100가지 차는 사찰을 찾는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됐다.

원장 설곡 스님은 “청주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한불교수도원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도량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元 · 氣 · 回 · 復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7 1 누군가와 함께라면 2
선남선녀의 따뜻한 인연을 이어주는
혜철스님의 가을같은 맑은 이야기!
‘대성사 따뜻한 만남’이라는 새로운 법회를 통해 처녀총각 인연 맺어주기를 실천하는 혜철스님이 그 동안의 법문과 기고문, 그리고 시와 단상 등을 모아 엮었다.
세간의 일상을 담담히 담아내는 따뜻한 시선, 환경오염에 대한 애절한 안타까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 등 대립과 투쟁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대한 절실한 사랑이 묻어난다.
인생은 나와 인因과 연緣을 맺은 수많은 사람,
수많은 환경과의 공존의 길이다.
독자 한사람 한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이며, 함께해서
행복한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대성사 주지 혜철 합장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구입안내 : 온라인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국판/278쪽/12,000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02)926-8361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사찰서 점심 음악회? 달콤하네~



서울 종로 도심에 위치한 조계사는 인근 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한 '일주일간의 음악여행 칠일칠음(七日七音)'을 가을선물로 내놓았다.



'칠일칠음' 음악회에서는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번갈아 연주됐다.



'아! 감미로워.' 부드러운 선율을 감상하는 직장인들.



조계사 신도회에서는 커피도 무료로 제공했다.

■ 조계사 일주일간의 음악여행 칠일칠음(七日七音)

빌딩이 숲을 이룬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인근 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조계사는 편안한 쉼터요 산책코스다.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1시까지, 조계사 경내 소나무와 회화나무 아래, 곳곳 벤치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쉬거나 정담을 나눈다. 이렇다 할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처마를 곱게 틀어올린 전통식 전각과 널직한 흙마당,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염불소리, 향내음이 발걸음을 이끈다.

조계사 바로 옆에 위치한 (주)대림산업 인사기획팀에 근무하는 전기홍(31)씨도 불교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조계사 뜰을 거닐며 점심 휴식을 보낸다.

10월 25일, 전씨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나왔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멈춘 곳은 조계사 대웅전 마당에 설치된 특설무대였다.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전씨는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음악회를 경청하는 풍경에 입가에 웃음을 머금었다.

무대에서는 마노(mano) 스트링 챔버 오케스트라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하트 뮤직(Eine Kline Nacht Musik, 모차르트 곡)' 연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전통이 살아 있는 조계사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채롭게 느껴졌다.

가을 분위기와 딱 어울리는 선율에 취한 전기홍씨는 "시간을 쪼개 음악회를 일부러 찾아가기란 쉽지 않은데, 조계사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음악회를 열어줘 너무 좋다"며 "전통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조계사에서 클래식 음악을 접하니까 느낌이 새롭다"고 감회를 털어놓았다.

#클래식 · 재즈 · 국악 등 다양한 장르 공연

조계사 인근에 사무실을 둔 불교단체 직원들도 음악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7일간의 음악회를 한번도 빠짐없이 들었다는 박현남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간사는 "교회나 성당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직장인들을 위해 사찰에서 음악회를 연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주변 직장인들을 위해 노력하는 조계사의 변화가 무척 반갑고 기분 좋다"고 흐뭇해했다.

전날인 24일에는 TV연속극 대장금의 주제곡인 '오나라'를 부른 박애리씨가 출연해 관객들을 맞았다. 찬불가 '연꽃향기 누리 가득히'를 부를 때에는 "연꽃향기 어때요? 듣기만 해도 가슴 가득히 연꽃 향기가 전해지는 것 같죠?"하면서 청중들에게 박수를 유도했다. 또 자신을 판소리 소리꾼이라고 소개하면서 추임새를 아느냐고 청중들에게 묻고는 춘향가의 사랑가 중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를 부르며 청중을 세 팀으로 나눠 판소리를 하는 도중 '잘한다' '좋다' '얼씨구'라고 추임새를 하게 하면서 청중이 참여하도록 했다.

아일랜드에서 왔다는 케빈(Kevin · 38)씨는 "한국의 판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단조로운 것 같으면서도 매우 흥미롭게 느껴진다"면서도 "스님이나 사람들이 서로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음악회는 조계사가 창건기념 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시간에 마련한 '일주일간의 음악여행 칠일칠음(七日七音)'이다. 조계사는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장르를 바꿔가며 공연을 준비했다. 첫날에는 국악, 23일 타악 연주, 24일 국악가요, 25일 클래식과 팝, 26일 크로스오버 국악, 27일 재즈, 그리고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장르를 가리지 않은 '회화나무 음악회'가 열렸다.

#신도회에서 청중에 커피 무료 제공

6가지 창건기념 프로그램 중에서 '칠일칠음'을 위해 조계사가 들인 공은 각별했다. 일주일동안 매번 다른 출연진을 섭외해야 하는 수고로움 외에도 조계사 종무원들은 근처에서 서성이는 직장인들과 신도들을 좌석으로 안내했고, 조계사 신도회는 음악회를 찾은 청중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했다.

조계사의 이번 '칠일칠음'은 직장인을 위한 음악회를 정례화하기 위한 시험적인 성격이 짙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매주 한차례 음악장르를 바꿔가며 무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것.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한국불교의 총본산 조계사는 도심에 위치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문화적인 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도량으로 자리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박봉영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직장인들 삼삼오오
조계사 뜰로 발걸음
넥타이 느슨하게 풀고
스트레스 내려 놓고
음악에 흠뻑 젖는다

금강약돌 온열복대
열침의 효능—Health Belt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氣발생기 : A8306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장해실험필 전자파환경인증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배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암은 열에 약하며"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강력한 원적외선 「열침」의 효과
금강약돌 온열복대의 효능
생리통, 복통, 요통, 냉증, 변비, 소화불량, 관절염, 전립선, 피부염, 복부지방 분해, 혈압조절, 피로회복, 체질 및 혈액순환개선, 산후조리, 스트레스성 증상, 숙취 등에 효과적이며, 특히 암예방과 전이예방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
온열복대와 유사품과의 비교
문의전화 : 금강닥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

시골절 농사 짓고 도시절 장터 열고



절 유휴부지 귀농인 · 지역민에 제공 공동체 형성
'1寺 1공동체' 등 농산물 판로 개척 경제에 도움
농촌의 질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 회복이 큰 효과

FTA? 사찰 중심 지역공동체가 대안

농업시장 개방으로 농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 농촌경제 위기의 단면에는 농촌에 위치한 사찰의 위기도 포함돼 있다. 사찰도 인드라망처럼 복잡하게 얽힌 지역의 경제 · 생활 ·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에 위치한 사찰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찰의 혁신적인 변화는 물론, 도시에 위치한 사찰도 일정부분 역할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지역사찰과 도심사찰의 도농공동체를 시도하고 있는 남원 실상사(063-636-3031)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02-576-5886)의 활동이 주목 받고 있다.

현미, 백미, 감자, 고구마, 꿀, 비비추나물, 산뽕잎나물, 산취나물, 오미자효소, 매실효소, 복분자효소, 메주콩, 건표고버섯, 참깨, 참기름…. 11월 5일, 서울 강남 봉은사 주차장에서 펼쳐지는 '가을한마당 귀농장터'에 올 가을 수확한 친환경농산물이 시중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인다.

'귀농장터'는 불교계에서 유일하게 도농공동체운동을 벌이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가 봉은사(02-511-6070)와 함께 2003년부터 매년 가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가을 수확물을 팔고 사는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지역사찰과 도심사찰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대표적인 도농공동체 모델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담겼다. 또한 장터에 나오는 농산물은 남원 실상사가 귀농인, 지역민과 함께 손잡고 형성한 공동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이어서 의미는 더욱 크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추진하고 있는 도농공동체운동은 실상사와 인근 산내면 주민들의 지역공동체로부터 출발했다. 실상사는 소유하고 있던 땅 1만평과 불교사상에 기반을 둔 철학적 근거를 제공했고, 이를 터전으로 불교귀농학교와 실상사 귀농학교, 인드라망생협, 실상사 작은학교, 지리산영농조합 등이 도농공동체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지리산영농조합은 지난해 국고보조금과 지역민이 출자해 설립, 조합원으로 지역민 50여가구가 참여하며 도농공동체운동에 탄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매월 한차례 실상사에 모여 '나눔 수행 화합'의 모임을 열어 친목도모, 공동체의 방향과 역할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실상사 스님들과 교류하면서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철학과 이론을 제공받는다.

실상사와 산내면 공동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은 봉은사, 서울 능인선원, 수원 포교당, 부천 석왕사, 대구 관오사 등 사찰 내 설치된 생협매장과 '친환경 공양미 올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20여 사찰을 통해 싼 가격으로 도시 불자들의 밥상에 제공된다.

이로 인해 실상사를 구심점으로 한 도농공동체운동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면단위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등의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운동이 처음 시작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산내면 마을공동체에 정착한 귀농자는 244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민 자녀가 7명인데 반해 귀농가정의 자녀는 11명으로 지역민 자녀를 넘어섰다.

그러나 가장 큰 효과는 사찰이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근간으로 지역의 경제 · 문화 · 교육 등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점이다.

사찰의 입장에서도 유휴부지를 귀농인과 지역민들에게 내놓으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다. 이는 전국의 사찰이 갖고 있는 방대한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실상사의 시도는 향후 농촌지역 사찰이 나아가야할 지역공동체의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평창 월정사, 구례 화엄사, 강화 선원사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찰과 지역민이 결합된 영농법인도 사찰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도심사찰에서도 1사(寺)1촌(村) 또는 1사1공동체가 결연해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해 줌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향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은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농촌사찰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찰이 지역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며 "유휴부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찰의 여건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불교다이어리

2007년 불교다이어리는 매일매일 음력과 간지, 불교명언이 소개되고 절에 가는 날(재일)이 표시되어 있어 불자들에게 유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종단과 불교단체, 산하단체 등의 주소와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권 이상 사찰 및 단체명을 인쇄할 경우 무료로 해드립니다.

가격: 7500원

분다의 경제학 (19)

기업의 유토피아

블루 오션(blue ocean)이라는 말이 요즘 경제계에서는 화두이다. 아무 것도 거추장스러울 것이 없는 광활한 푸른 바다가 바로 블루 오션이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모여서 처절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레드 오션(red ocean)에서는 아무리 뼈를 깎는 노력을 하더라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루기가 무척 힘들다. 큰 성공은 고사하고 생존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블루 오션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사투를 벌여야 하는 경쟁자도 없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다. 블루 오션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마음껏 그려볼 수 있는 자유의 세계이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러한 블루 오션에서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 기반 두지 않는 계획은 실패의 지름길
연기법은 인간이 미래 개척 주체임을 일깨워
새로운 인연 설계하는 자만이 블루오션 만끽

내가 이끌고 가는 세상, 바로 블루 오션이야말로 모든 기업이 꿈꾸는 유토피아이다. 이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들은 이미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거나 주눅 들지 말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

우리 불교인들이 잘 쓰는 말에 이런 말이 있다.

"이 모든 일이 다 업보(業報)니 어쩔 수 있겠는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궁극적 진리는 연기의 법칙이다. 연기의 진리란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것은 결과를 낳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우주 삼라만상의 존재 원리에 '악인악과 선인선과(惡因惡果 善因善果)'라는 인과의 법칙이 깊숙이 녹아들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연기의 법칙이다.

그러니 오늘의 모든 힘든 일에는 내가, 우리가 예전에 지어놓은 악인이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도 옳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셨다. 불교가 가장 강력히 부정하는 것이 이른바 숙명론이다. 어떤 절대자가 존재해서, 또는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숙명론의 부정이야말로 불교가 탄생하게 된 궁극적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연기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우쳐주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과거에 저질러 놓은 업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석존은 설파하고 있다.

부처님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사람들은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한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투명 가능한 미래여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망상이고 미몽이다.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계획은 사상누각이며, 실패와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고 그 자유의지는 현실의 제약을 풀고 도약할 수 있는 창의력과 창조력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블루 오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과 기업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신을 과거 업의 울타리에 옭아매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 가능성의 싹을 스스로 자르지 않을만한 지혜와 통찰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인연을 뛰어넘어 새로운 인연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다시말해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양식을 갖춘 사람과 기업만이 블루오션에서 대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이야말로 부처님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실한 가르침이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관세음 여의주 수진언 향로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영험의 가보 중 하나!
99% 청동만으로 만든 영험의 명작

불교에서 관세음보살 수진언은 세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영험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음수진언은 큰스님들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려져 어려움을 겪는 불자들에게 긴급비방으로 사용해왔다.

관세음보살 수진언 향로를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관세음보살의 성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패하기만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고, 복권 1,2,3,4등이 모두 당첨되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최고의 향로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윤달이 있는 해에는 부처님 공양구를 가정에 모시면 삼재도 소멸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화를 좇고 동서남북의 보배재물이 들어오며 소망하는 모든 것이 부처님 가피로 성취된다.

관세음보살 수진언 향로는 99% 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들어오는



무게 2.5kg 높이 22cm 가로 17cm

향로는 만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희색꽃이 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음수진언 향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제례시 또는 예불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받고 있다.

관세음 여의주 향로의 비방은 원하는 소망의 방향에 놓고 소원기도를 하며, 평상시 사용하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며 우체국 특급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며 신용카드 분할 구입 또는 현금 구입할 수 있다. (가격 2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예불시 제례시 향피우고 사용!

소원 성취 비방 향로 놓는 방향

- 업이 풀리지 않고 있을 때의 비방은. 동쪽
- 중대한 시험을 앞둔 합격의 비방은. 서쪽
- 자녀를 기다리는 잉태의 비방은. 북쪽
- 승진과 취업을 기다리는 비방은. 서쪽
- 중대한 병고로 소생의 비방은. 북쪽
- 송사문제의 승소의 비방은. 서쪽
- 인연의 짝을 찾는 결실의 비방은. 동쪽
- 가정의 위기와 애정회복의 비방은. 북쪽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福지갑
음양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남성용중지갑 (검정)
여성용롱나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몸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몸질이 없어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불공사에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까지 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들어오게 하는 보병과 악귀와 잡귀를 쫓고 계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면 장사가 잘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못팔아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랍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때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드리며 지갑은 우체국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 전국 택배가능 ◁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하단)

사찰행사문의
49재, 천도재, 바라, 나비무
살풀이, 승무, 회심곡, 태평소
학인모집.실전전위주교육
위치: 부산 장전동
017-556-5691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범천명리강의실

기문둔갑	12월 4일(월)낮2-5시첫강의
육 효	12월 5일(월)낮2-5시첫강의
사(일)주	12월 7일 (금)낮2-5시첫강의
* 위과목 첫강의는 무료공개강의 합니다	
용신특강	12월 6일 (화)낮2-5시첫강의

* 위과목 공개강의 없으며 사전등록 바랍니다
* 각 과목 3개월(12주)에 확실히 책임완성지도
www.beumchun.com
02) 389-6597(연신내)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경전공부
● 과목: 천수, 반야, 미타, 금강, 법화
● 일시: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문의 041)662-9489
011-9937-7667
반야암주 합장

법화경특강
1. 셋째 토요일 오후 2시~3시 30분
2. 동대구역 옆 동대구빌딩 3층
3. 회비 만원 법화경(삼만원)증정
053)952-8711
017-501-8711
불교해동대학원

기공지도자
전문과정모집
행자모집
30년전통불선도(佛仙道)
대한불교전통기공협회
051)852-2277
016-551-9700

천도재.49재
일인스님 20만원
이인스님 40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해 드립니다
▷부산, 경남지역
010-7747-5222

경주 도심속 자연경관이 수려한 「비구니선원」 분양안내
■ 22.2평형 - 3세대
■ 18평형 - 3세대 } 총 잔여세대 평당분양가 (390만원)
■ 14평형 - 5세대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정 합장
문의 전화 054)772-7171 011-538-3879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역학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원장 학산 합장
054)383-4569
016-717-1592

동양최대 천수관음법도량
100억 불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불교발전에 초석이 되실 동반자를 기다립니다.
사찰운영중
010-9443-7881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무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
011-591-5277

역학 · 전생요법
전생퇴행. 빙의천도
개인지도. 직접상담
02-2265-8023
011-772-4606
서울 지하철 종로5가역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전스님 여종무원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010-9357-6966

토굴수행중인 스님입니다. 약 7평정도의 법당 불사 중입니다. 목탁, 종, 탱화, 불구, 그림 등 한점이라도 보시 원하시는 분 연락 부탁 드립니다. 달마암
042)282-2334
016-606-5658

비구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50~60세
052)243-3881

공양주 구함 부부도 가능
▷용인소재사찰
031)335-2576
011-270-2675

비구니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김포
010-9469-6625

1. 신심있고 내집처럼 살 비구니 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을 찾습니다 (운전가능한자)
2. 남 · 여 행자 스님 구합니다
011-9803-6301

공양주보살님과 처사님 모심
조용한 사찰입니다. 공양주보살님과 처사님을 각각 모십니다. 부부가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삼랑진)011-584-353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환영
02)917-3363(정릉)

비구니 부전 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
011-9707-3490

운영이 어려운 사찰 운영 맡기실 분 명리학 능통
▷비구승
018-567-3217

남해바다 근접한 새로 개척하는 산사입니다 무보시로 함께하실 비구니 스님이나 공양주 보살님의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010-2511-1188

사주역학을 하는 스님으로 포교당 주지나 스님이 없는 절의 주지 원합니다
010-5574-5662(탄우스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053)632-484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9851-2116

평생 같이하실 기도스님 모십니다
051)242-1684
016-9730-30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환영
02)917-3363(정릉)

기도스님(비구) 모십니다
▷파주시 교하읍
011-9083-3355

부전스님 모십니다
▷염불 잘 하는 스님
051)508-4690
011-854-4960

비구니,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019-579-040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언양
052)254-1577
011-368-3882
010-3189-2377

실상사는 조화로운 삶, 더불어 사는 사회, 생명살림의 실현지입니다
인드라망의 세계관 아래 현재 스무 여분의 화엄학림 스님들과 화림원 스님들, 지역의 문화 센터인 한생명, 지리산 교육원, 중등부 대안학교인 작은학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실상사 농장 등 사부대중이 어울려 살고 있는 작지만 큰 사찰입니다
이 곳에서 인드라망 세계관을 몸과 마음으로 엮어가실 공양주와 사무원을 모십니다
* 사무원업무 : 템플스테이 담당 및 일반서무
* 연령: 공양주 보살님 40대 후반 ~ 60대, 사무원 30대~40대(남. 녀 불문)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63)636-3031,3191/silsang828@hanmail.net

모 연 문
백두대간 오악명산 중 양주 감악산 자락에 5년여 도량을 조성하고 불사를 이뤄 마련된 공간에 마땅한 인연을 찾아 함께 지내고자 합니다

전원생활을 원하시는 분	수양생활을 원하시는 분	스님의 길을 원하시는 남녀불자
● 도량내 단독별채 : 전세	● 조용히 수양 겸 노후생활 하실 분	● 교양대학 불교의식교육 지원
● 33평 방4 주방 거실 욕실	● 1인1실 식사 등 편익제공	공양주
● 심야전기, 암반 지하수	● 경제적으로 노인시설	● 월 보시 80만 원 이상
● 산과 저수지 인접, 등산로 입구	입주가 부담스러운 분	
● 자연수양 또는 창작, 예술활동 적지		

연락처 : 031)867-1801~2 한국불교 태고종 율림선원 주지 선 묵 신도회장 법성화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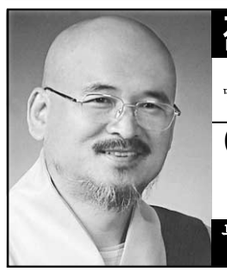
비구니스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북한산성입구
02)387-3216₩ㅋ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30세된 회사원 청년입니다. 불교 가정에서 자란 성실한 여성을 찾습니다
054)430-9466
010-2486-4200

28숙 특별지도
● 28숙과 방위 보는 방법을 1:1로 전수하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사주칠구 육임학 수강생모집(직접강의)
제1기 육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10명 11월 첫째주 토요일 시작
3~4개월간 주 1회 수업을 하며, 기초부터 백법 강의까지 주 1회는 공념선생님이 공념학당에서 시작하며, 회비는 수업료+동영상+교재(육임강의록)+720국수 등 공념선생님이 직접 만든 교재와 국수를 포함하여 1,500,000원입니다.
육임을 마스터 할 때까지 집중 강의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문의: 02)793-7333 http://www.saju79.com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포교당(급)안내
서울 강남 도심지 최고의 위치 최상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중인 포교원으로서 주지스님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합니다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 시설 : 법당 50평, 방 2개
주방 1개, 화장실 2개
● 삼존불, 후불관세음보살 50분
신중산신각, 나한존자 16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1-9269-8445

할아버지 · 할머니, 아들 · 딸, 손자 · 손녀
가족이 함께 기도함
음력 9월 9일 영가천도기도
횡사액난으로 죽은 영가천도
전국에서 기도동참하고 있을 지방분 환영
개인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기도함
원하는 소원성취가 잘 향상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철야용맹정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매주 화요일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스님 동참환영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맨발등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안성 치매예방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사)國際佛敎 僧伽會 所屬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 종정대행 : 각암대종사 ● 원로의장 : 청산
● 중앙종회의장 : 무원 ● 사정원장 : 지원
● 총무원장 : 능인 ● 총무부원장 : 허허
본 종단 종지 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함
1. 각 사암 등록 및 각 교구 종무원 등록을 원하시는 분
2. 불교무술 자격증 및 단증을 취득 하실 분
3. 승려가 되고자 하시는 분
4. 종단간부 임원직을 맡고자 원하시는 분
- 산하기관 -
(사)세계불교 호국 무술 연합회
(사)호국 불교 단체 협의회
(사)전국 불교 체육인 연합회
◆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 위치: 경남	● 위치: 경기
● 법당: 24평	● 법당: 18평	● 법당: 20평
● 요사: 170평	● 요사: 25평	● 요사: 35평
● 부지: 5,600평	● 부지: 600평	● 부지: 750평
● 가액: 19억	● 가액: 2억	● 가액: 20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토 굴 안 내

● 위치: 대구 주변
● 부지 180평
● 임법당, 주지실 1동, 방 6개 요사 및 공양간, 산신각 1동
● 자연경관 멋진 도심 속 토굴
● 가액 : 1억 7천만원 (융자 5천 포함)

011-803-696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앞
● 평수: 35평
● 부처님, 삼존불, 산신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즉시입주가능,철학관도 가능

02)433-1106
010-7440-3347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근교	● 위치: 온양근교
● 부지: 140평	● 부지: 150평
● 법당: 12평	● 법당: 12평
● 요사: 15평	● 요사: 14평
● 가액: 5천5백	● 전세: 2천만원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근방
● 대지: 약 500평
● 대웅전: 20평
● 산신각: 15평
● 요사: 50평
● 가격절충

011-9516-536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
● 대지: 170평, 법당: 25평
● 요사 2동, 산신각 주차시설 약 10대
● 사용평수: 약 1천평 부전스님 모심
● 가액: 4억원

010-8529-0863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에서 30분거리
● 대지 402평, 임야 40평
● 대웅전 33평(삼존불)
●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사용평수 : 600평 경내 조경 잘 되어 있음
● 가액: 7억 5천만원

011-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릉 IC부근
● 천혜의 소나무 자연조경
● 부지 : 500평
● 법당, 요사, 산신각, 노천 미륵법당,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2억2천만원 (융자 6천만원 포함)

011-452-8374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 위치: 경남 밀양
● 대지: 약 90평	● 대지: 1100평
● 법당: 25평	● 법당: 10평, 25평(2개)
● 요사: 30평	● 요사: 22평, 21평(2개)
● 가액: 3억 8천	● 가액: 2억 7천

한국불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시 온천시장 뒷길
● 2층건물 중 2층 , 60평
● 에어컨, 엠프 등 시설완비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조성비): 3천만원

051) 554-2406
011-843-2403

토 굴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에서 20분 거리)
● 대지: 200평 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법당 25평 산신각 7평 요사채 2동(18평, 11평)
● 시설: 예쁘고 완벽하게 갖추었음
● 가액: 1억 1000만원

011-9405-8186
043)733-818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5분거리
● 부지: 1천평 산을 등지고 편안한 절터
● 법당 15평, 산신각 3평 연못 위에 용왕각 6평
● 요사채 75평, 심야보일러 50평
● 가액: 집기포함 2억 8천5백

016-536-8774

포 교 원 안 내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최요지
● 법당, 주지실, 사무실, 공양간
● 평수: 50평
● 보증금 3,000만원, 월15만원
● 시설집기 일체 포함 3,0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9-293-9369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시에서 20분거리. 교통편리
● 대지: 420평
● 법당: 20평
● 요사채: 30평(방5)
● 가액: 9천5백만원

010-6308-7320

사 찰 안 내

〈 토 굴 〉
● 위치:부산시내바닷가
● 20평,30평,40평
● 1500만원~1억까지
● 아주다양함
● 바다전망 특별 빼어남

〈 사 찰 〉
● 부지: 3만3천평
● 위치: 삼랑진 정남향(양명) 산세 계곡물 철철 주변경관 특별 빼어남
● 가액: 4억

〈 포 교 선 원 〉
● 위치:구미시청근처
● 법당 및 요사 95평
● 어린이 법회
● 불교대학
● 가액: 2억 3천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2천만원에서 20억까지 다양보유

사찰전문 부산 연산부동산 직011)560-8522 051)863-6661

토 굴 터 안 내

● 위치: 문막 IC 15분거리
● 토굴, 전통찻집 적당
● 350평 -9천만원
● 800평 - 2억원

011-716-279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 건물: 5층에 3층
● 평수: 50평
●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3715-6333

사찰 및 명상센터 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247평, 건평: 75평.
● 법당, 요사, 화장실, 창고, 기역자형
● 산좌수려, 아파트 개발 예정지 근교 현대식건물,기도터 및 명상및교육센터
버스 및 지하철 교통편리
● 가액: 1억8천5백만원

011-624-0919

사찰(급) 안내

● 위치: 경북 영천 시내
● 대지: 117평
● 법당, 요사채, 대중공양간, 주지실 등 ,방 4개, 스님 화장실1, 신도 화장실 1, 심야보일러
● 가액: 1억 5천 8백만원 (절충가능)
사정상 시세 이하 계산합니다

010-6215-8784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내
● 대지: 98평
● 건물: 약 200평
● 주차공간 충분함
● 가액: 10억
● 엘리베이터 있는 4층 현대식건물임
포교 · 불교대학 최적지임

010-9550-8793

명 당 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의신 (의신골 금혈자리)
● 전 800평
● 가액: 2억 5천만원 양택지, 수양터 최적

010-4746-5483

사찰및포교당(연수원)안내

● 위치: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 평수: 746평(대지)(주변임야와 도로부지 1500평 사용가능
● 건물: 1층(60평), 2층(50평), 3층(47평) 펜션으로 사용중 (심야보일러,상수도)
● 가액 : 13억
● 특징: 충주호와 남한강 언덕의 소나무 숲속에 위치 절경임 시내와 10분거리(시청,경찰서,터미널,집앞시내버스정류장)

011-257-3730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상계동 소재
● 아담하고 수려한 경관 (계곡 옆) 사찰 팝니다
● 국유지 53평(밭도 있음)
● 가액: 3억

02)951-9393
016-222-3505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단양군
● 부지 430평중 대지 290평
● 법당: 40평, 요사: 60평 지장전 20평
● 가액: 1억 2천 5백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011-9567-530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탱화 및 산신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2)902-4002

도 심 사 찰 안 내

● 위치: 일산
● 7층에 4층. 114평
● 시설완벽, 위치A급
● 가액 4억 3천 은행융자 2억 포함 (임대가능)

011-749-4553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내당동 전철역에서 걸어서 3분 아파트 주택가
● 3층 법당 40평 다다미방
● 주지실,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삼존불, 탱화, 신중탱화,산신탱화 모신지 6달 됨
●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절충가) 몸만 오시면 됨, 시설완비

010-5710-173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창원시내
● 평수: 100평
● 4층건물 중 3층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10-4877-5900

사 찰 안 내

●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고속도로 횡성IC, 새말 IC 20분
● 대지 500평(미등기 1,000평) 법당 30평(2층 1층 요사, 2층 법당) 요사채 70평, 산신각
● 가액: 3억(절충가능)

010-7211-5066/017-420-2200

암 자 안 내

● 위치: 강원도 영월
● 1200 여평
● 건물 5동
● 법당, 산신각, 주지실, 요사2동, 심야보일러
● 가액: 2억 7천 (조정가능)

033)372-6494
011-790-919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 부지: 1300평
● 건평 53평, 25평, 17평 세동
● 가액: 3억 8천만원 산세수려한 청정지역

010-3929-111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도봉구 방학동
● 평수 25평
● 삼존불, 탱화시설완비
● 가액: 전세 280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8-315-0108

암 자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하동
● 대지 전 합해 480평
● 법당 11평, 방 5, 수세식화장실 2
● 가액: 9500만원
● 조용하고 마을과 인접한 곳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대나무숲
포교와 참선수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지

011-526-1824

암 자 안 내

● 위치: 구미시 인접 칠곡군 약목면
임법당, 연꽃연못 정원 및 밭
● 평수: 320평
● 가액: 1억 임대도 가능

017-813-9126

토 굴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군 부곡면
● 대지: 평수 92평, 정남쪽집
● 작은방 2, 큰방 1개 화장실 2개, 큰 주방 1개
● 가액: 4천 7백만원
이 토굴이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요망

010-4586-1568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2억2천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듸밭

016-367-21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청 잔듸광장 앞
● 5층 건물 중 4층(42평) 방 1개, 베란다, 주방
● 전철: 의정부역에서 10분거리 주위에 식당상가지역입니다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전세도 가능)
● 시설비 : 7백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1-258-6432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북 예천(신라 고찰) 해발 500m 경치가 아주 뛰어남
● 시설(전기)일체 완비
● 기존신도 많음 차량진입 가능
● 가액: 4,500만원

011-881-9064

사 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내에서 15분거리
● 대지 420평 등기필
● 건물: 기와 2동, 조립식 3동
● 법당, 산신각, 요사채, 대중공양간 방 5개, 심야보일러, 주차가능
● 공사비 2억 소요
● 가액: 1억 1천 8백만원

011-9399-768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인천 남동구 구월동 고속터미널 인접, 버스정거장
● 평수: 39평
● 3층건물 중 3층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60만원

011-9596-4338

사 찰 터 안 내

● 위치: 홍성 톨게이트 앞 돌이 있는 명산
● 평수: 7,300평
● 가액: 평당 16만원

011-9271-7192

포교당 (급) 안 내

● 위치: 자갈치시장입구 교통요지(사거리코너)
● 평수 : 60평(엘리베이터有)
● 가액: 3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절충)
● 시설: 법당, 황토온돌방 5개

017-586-3352
017-540-3352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미원면
● 평수: 1036평
● 대지 200평
● 법당, 대웅전(50평) 산신각, 요사채
● 가액: 5억 (절충가능)

043)284-776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울산시 중구 다운동
● 평수: 34평
● 가액: 전세 1천 5백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1-488-857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초동면
● 부지: 240평, 법당: 20평
● 언제든지 법회가능
● 요사채: 20평 가전제품일절구비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 30만원

011-879-7551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장흥
● 법당: 20평, 대지 350평
● 요사채, 선방, 삼성각 공양실, 총 5동 전체기와, 단청, 석불, 석탑
● 가액: 2억 (절충가능)
● 전세가: 4천만원 (장기가능)

016-9660-134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 평수: 약 30평
● 건물: 3층 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1800만원, 시설완비 몸만 들어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1-9047-3636
010-7181-7569

암 자 (터) 안 내

● 위치: 경남 의령군 임금산 밑
● 평수: 600평
● 가액: 3천 5백만원

010-3189-3525

옛 절 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
● 현재 유실수 경영 주말농장, 농장 사택 앞 대형저수지있음, 대형버스진입 주차장완비
● 실제평수: 약 1300평정도
● 산세수려하고 지하수완비
● 가액: 11억. 가격절충

011-9323-4979/010-9903-8088

사 찰 안 내

● 위치:서울 서대문구 홍제4동 3호선 전철역 10분내 위치함 3층건물에3층, 대로변 인접
● 법당 20평, 옥탑방 숙식가능 삼존불, 후불탱화,신중탱화 산신탱화,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700만원 월 33만원
● 시설비 850만원(집기 일체 포함) 급 개인사정

02)720-2230
011-252-6116

사 찰 안 내

● 위치: 정선군 임계부근
● 대웅전 20평(목조건물) 산신각 5평(목조건물) 요사채, 행랑채
● 평수: 총 2312평 산세수려하고 소술용궁
● 가액: 3억 5천만원 (융자 4천 포함)

033)562-7053
011-9793-705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 송현동 주공아파트 맞은편 주공시장 입구 건물 4층
● 평수: 53평 (삼존불, 산신나한탱화)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즉시법회가능 시설 A급

010-3773-4367

사 찰 안 내

스님 노후 토굴 겸, 도심속 아담한 사찰
● 위치: 전주시내 중심, 대지 8*6 미터 코너 절
● 대지 112평, 건평 123평, 일층 점포 다섯개
● 2층 법당, 부처님 후불 탱 입체,칠성탱 입체, 신중탱 입체, 대작품 부처님 삼신불 좌대 포함 넉자 세치, 법단 삼단 조각
● 점포 다섯개에서 매월 임대료 150만원 나옴
● 가액 : 4억 1천 7백만원
● 준비금 : 2억 1천 7백만원
비구니 스님, 법사님, 보살님 적합
스님 해외 문제로 사정상 급 안내

010-6411-2882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에서 30분거리
● 평수: 380평
● 토지세 (1년 15만원)
● 법당 18평 가건물, 천수천안보살(동불)
● 요사채 1층(28평) 2층 (15평) 산신각 3평, 약수터
● 가액: 1억 2천만원

055)972-3650
011-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광주 근교
● 부지: 500여평(무상임대)
● 법당: 20여평(건물만등기) 기타 : 방3개
● 특징: 물이 좋은 아담한 숲속 차진입, 약 70여년의 연혁
● 참고:납골당 또는 실버타운 최적지
● 5,000여평 불하 가능
● 가액: 9500만원

011-288-6668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강원도 속초시와 고성군 경계지역 산과 마을이 인접. 국도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사찰 경내에 승용차 20여대 주차 할 수 있음
● 대지 : 300평, 건물 50여평, (신도 300세대 이상) 위 사찰은 70세 된 노스님 개인 소유이며, 노스님은 또 다른 활동계획이 있어서 참신한 분에게 양도 코자 합니다
● 가액: 상담 (상담 : 황영미)

016-364-0390
016-9374-5676

경주 사천왕사터 목탑 기단부의 비밀은?

석조와 전돌의 혼합양식

서탑 심초석 들어내 본격 발굴조사 … 구조·규모 등 규명 기대

그 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통일신라시대 목탑의 특이구조가 상세히 밝혀질 전망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송의정)는 10월 26일 경주 사천왕사 터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쌍탑인 동·서탑 중 서탑의 심초석을 들어내는 드잡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쌍탑의 효시인 동·서탑은 감은사지탑과 황룡사9층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번 발굴조사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크다.



'사천왕사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들. 암막새, 귀면와, 명문와 등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쌍탑의 효시 사천왕사 탑

신라 쌍탑의 시초인 사천왕사 동·서탑은 목탑이었으나 현재는 기단부만 남아있다. 서탑지는 흙과 적당한 크기의 돌을 교대로 쌓아 기단을 만들고 다시 기단 내부에 적심을 하고 그 위에 방형 초석과 심초석을 안치했다.

서탑지 발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종래 한국 불교건축계에서는 전혀 존재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건축양식이라는 것과 학계 일부에서 팔부신중(八部神衆)이라고도 주장하는 사천왕상(四天王像)과 관련해서도 뜻하지 않은 비밀이 풀린 점이다.

서탑지 기단은 돌과 흙, 돌조각 등을 이용해 축조했으며 기단 테두리는 매우 잘 다듬은 장대석(長臺石)을 마치 나무상자를 짜듯이 연결했으며 기단 위로는 전돌을 쌓아올렸으며 그 안쪽에는 흙과 자갈을 섞어 바닥을 다졌다. 따라서 사천왕사지 서탑지는 '석조 + 전돌'의 혼합양식으로 축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전돌로 쌓아올린 벽 사이사이에는 벽마다 4구씩 녹유사천왕상을 안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되면 사천왕사 서탑만 해도 모두 16구에 이르는 사천왕상을 조각한 셈이 된다.

기단규모를 복원하면 한 변 최대너비는 9.9m며 탑구를 포함할 경우에는 12.4m이고 기단과 계단너비는 각각 1.4m와 2.45m다.

심초석 아래 '진단구' 있을까 '관심'

'사천왕사지 발굴조사'는 '방치된 신라 옛 사찰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4월 25일 고유제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사역의 범위와 가람배치, 각 건물지의 성격규명을 목적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06년은 사역 서편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해 금당 중심에서 회랑으로 이어지는 서익랑의 존재를 확인했다. 익랑은 일제강점기 조사에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1300여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그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서익랑지에서 남북으로 뻗은 회랑지도 확인됐으며 회랑 서편에서는 대형 치미편도 출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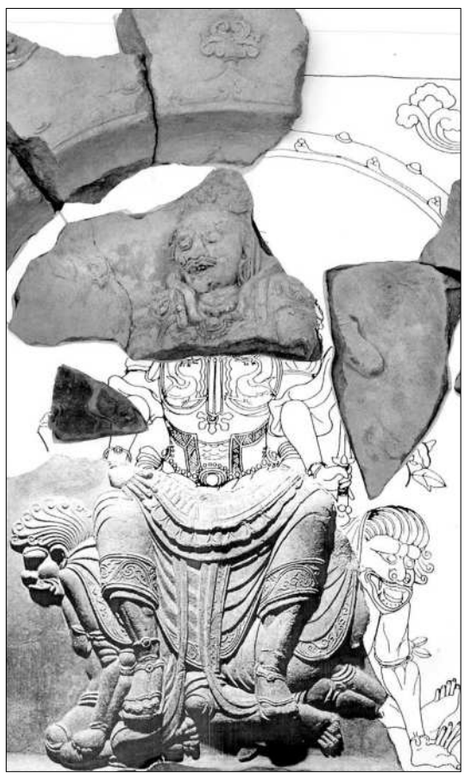
특히 이번 발굴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서탑지의 기단부 및 하부구조에 명확히 밝혔다는 것이다.

즉 그동안 위치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녹유사천왕상전(綠釉四天王像塼)의 일부가 기단석에서 출토됐기 때문에 그 배치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금당지 남편에 폐사(閉寺) 이후에 만들어진 이장된 조선시대 회곽묘를 조사해 상태가 양호한 이중관도 확인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서탑지 기단부 발굴조사는 1978년 황룡사 9층목탑 발굴조사 이후 28년만에 통일신라시대 목탑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후 초미의 관심사는 이 심초석 아래 진단구(鎭壇具, 일종의 사리공양구)가 있을 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중 탐사 결과 진단구일 지 모르는 금속성 흔적이 심초석 지하 1m 지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일신라시대의 조각가인 양지 스님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녹유사천왕상전'. 이번에 발굴된 '녹유사천왕상전'은 서탑의 형태와 구조를 밝히는 중요한 단초다.

신라 양지 스님 作 '녹유 사천왕상전'

사천왕사는 신라시대 뛰어난 조각가 양지 스님이 작품활동을 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양지 스님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녹유사천왕상전(綠釉四天王像塼)은 점토로 만든 틀을 이용해 찍어 낸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확인된 유물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녹유사천왕상은 부릅뜬 눈, 축 늘어진 귀, 익살스런 표정 등이 더욱 생동감을 더해 주고 있다. 또 섬세하게 표현된 갑옷과 아름다운 화문장, 테두리 장식 등은 당시의 불교조각 수법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은 당초문전, 수막새, 암막새, 귀면와, 녹유능형전 등 8종 50여점 등 이다.

글·사진/경주=노병철 기자

'寫本연구 초석 다지기' 시동

안성두씨 '대승장엄보왕경' 판본의 가치 조명

"울너콜렉션 중 유일한 불교사본인 <대승장엄보왕경>에 대한 재해석은 우리나라 불교사본학 분야의 초석을 다지는 일입니다."

천태종립 금강대학교는 '불교사본(佛敎寫本)과 불교학'을 주제로 10월 20~21일 국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안성두 전임연구원은 논문 '<대승장엄보왕경>:울너콜렉션 중 유일한 불교사본'을 통해 <대승장엄보왕경> 판본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안성두 연구원은 논문에서 "'네팔-독일사본보존프로젝트'의 네팔사본은 산문과 운문 두 종류의 판본이 존재하며 산문은 불교혼성범어로 쓰여져 있고 운문은 고전범어로 쓰여져 있다"며 "운문본은 약 13세기에 작성됐고 산문본은 이보다 더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두 판본은 내용상으로도 네팔사본과 매우 다르다"고 주장했다.

길기트사본과 네팔사본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연구원은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의 의미를 파악하는 부분과 이 진언이 힘을 획득하는 부분에서 길기트사본과 네팔사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증광됐다고 주장한 독일의 불교학자 미테의 연구결과를 논거로 제시했다.

즉 한역경전에 있어 980~1000년 사이에 천식재(天息災)에 의해 번역된 <대승장엄보왕경(T 50 1050, vol. 20)>으로 번역된 이 경은 밀교부에 포함돼 있지만 티베트의 분류에 따르면 <대승장엄보왕경>은 경집부(mDosna tshogs, Otani no. 784, TohokuNO. 116)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66>

핵 실험

최근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 핵을 안전한 정치제도권 내에 두고자 하는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열강들은 이를 빌미로 북한에 대한 재제를 강하게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핍박한다고 하여, 자존의 수단으로 핵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비교적 작은 국토에 인구, 경제 그리고 방위력이 밀집돼 있는 경우, 조그만 사고라도 큰 재앙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또한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초강대국들이 첨예하게 국가이익으로 충돌, 경쟁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럴 때,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입지는 매우 좁다. 북한을 동반자로서 국제사회에 끌어내어 개방하고 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통일의 길을 가고자 했던 최근 한국의 대북정책이 도전을 받고 있다.

역사학자는 20세기에 이룩한 인류의 성취가 나머지 역사의 그것보다도 더 크다고 말한다. 그 중 가장 큰 발명은 원자력의 발명과 이용이다. 원자력은 원자의 핵을 분열시킬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핵분열은 원자를 이루고 있는 핵 자체가 분열해서 에너지를 내는 것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 중 핵을 쉽게 분열시킬 수 있는 원자는 원자핵이 큰 우라늄이다. 우라늄은 가장 가벼운 수소보다도 수백배 무거운 핵을 가지고 있다. 이 핵을 분열시키는 수단으로 핵을 이루고 있는 가벼운 알갱이인 중성자를 이용한다. 핵분열을 급속하게 시키면 에너지가 순식간에 발생하므로 파괴적인 원자 폭탄이 되고 천천히 핵을 때리도록 조절해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면 원자력 발전이 된다. 원자의 핵이 에너지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E=mc^2$, 즉 핵의 질량에다 빛의 속도를 두 번 곱한 만큼과 같음이 증명되어 있다. 이 식은 만질 수 없는 에너지와 형상이 있는 물질이 서로 변환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불교철학자를 포함한 많은 철학자들이 세계의 모든 물질이 서로 변환하는 과정일 뿐이고 자성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교적 존재론의 과학적인 증명으로 이 공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하는 우라늄봉을 원자폭탄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기술적 처리를 거치면 된다. 원자봉의 파괴적인 변환을 막기 위해서 UN은 전 세계의 원자봉의 처리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자폭탄을 이성적인 체제하에 둠으로써 인류가 원자폭탄으로 전멸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이 UN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정치의 논리인 것이다. 핵실험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로 나오는 핵폐기물의 위험, 원자력 발전의 사고 위험성이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끝없는 인간의 욕구와 과학의 발전은 지금처럼 위험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과 같은 핵무기에 대한 위기상황에서 인류 최후의 희망은 어쩌면 한국의 절집에서 이어지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발우공양의 마음' 다시 말해 집착하지 않는 '무위의 마음'을 배우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인간 욕구·과학발전 인류 위기 부추겨
'무위의 마음 배우기' 최후의 희망될 것



그림 : 문병성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1차분 완매로 인하여 2차분 한정제작. 인하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현재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일주문



두산장학회 장학금 수여

재단법인 두산장학회 이사장 일면 스님은 10월 22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학생 14명에게 총 1400만원의 2006학년도 하반기 장학금을 수여했다.



태고종 경북종무원 개원

태고종 경북종무원장 법운 스님은 경산시 와촌면 동강2리에 30여 평 규모의 경북종무원을 마련하고 10월 26일 개원식을 봉행했다.



교정수기 공모전서 우수상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대전지방교정청이 주최하고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가 후원하는 제2회 교정수기 및 문예작품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법화종 대구경북 종무원장 취임

영천 용화사 주지 혜각 스님은 11월 3일 오전 10시 대구 문화웨딩홀 대연회장에서 법화종 대구경북종무원 12대 종무원장에 취임한다. (053)766-7231



국제신문 발행인 겸 사장에

송석구 前 동국대 총장은 10월 26일 열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국제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노화와 웰빙' 주제 심포지엄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이석현 원장은 11월 3일 일산불교병원 강당에서 '노화와 웰빙'을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031)961-7081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받아

주간불교신문사 김성곤 주필은 10월 24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6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제5회 차 그릇 전시회

도예가 양계승씨가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관훈동 경인미술관에서 제5회 차 그릇 전시회를 열어 호평을 받았다.



운불련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

한국운전기사불자회 대구지역회 신상용 회장은 10월 23일 대구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제3회 운불련 한마음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산사의 밤

대불련 대구경북동문회 임해수 회장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청도 적천사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산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선학원史 체계적 재정립 계기"

'한국근현대불교사…' 학술회의 여는 법진 스님

그동안 불교학계가 진행해 온 '한국근현대불교사' 연구의 양적 질적 성과를 점검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선학원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은 11월 2일 오후 2시 서울 타워호텔에서 '한국근현대불교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장 법진 스님(사진)은 "한국근현대불교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 성과가 극히 미진한 분야였지만, 90년대 들어 몇몇 연구자와 단체들에 의해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발표가 근현대 불교사 연구의 현실을 점검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법진 스님은 "최혜경(성신여대) 김경집(동국대) 이덕진(창원전문대)씨 등 젊은 소장학자들의 비판의식을 담으려 노력했다"며 "인문학 주변의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화는 과거의 개념이 아니라 갈수록 속화되어가는 승단의 청정성과 대중공의를 회복하기 위한 절실한 화두"라며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 선학원사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은 지난해 6월 선학원의 정체성을 밝히고, 불교학 인재양성,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발족했다. (02)734-9653

조용수 기자

불교아동문학상 손수자, 신인상 김명희씨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이사장 박용열)가 주관하고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김진식)가 주최하는 제23회 한국불교아동문학상에 손수자씨, 신인작가상에 김명희씨가 각각 선정됐다.



손수자씨



김명희씨

<꽃이 된 구름> 등 10여 권의 동화집을 펴낸 손수자씨는 '아기부처와 파랑새' 외 4편으로 선정됐다. '불교아동문학신인작가상' 수상자인 김명희씨는 '선재와 큰스님의 그림자 밟기'로 상을 받는다. '불교아동문학신인작가상'은 최근 5년간 불교아동문학 활동을 열심히 한 전공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시상식은 11월 3일 저녁 6시 30분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다.

강지연 기자

평생 인간방생 실천, 지순 스님 입적

평생 '인간방생'을 실천해 온 서울 보문동 미타사 지순 스님(사진)이 10월 22일 오후 입적했다. 세수 94세, 법랍 67세. 영결식은 24일 미타사에서 엄수됐다.



1913년 수원에서 태어난 지순 스님은 고모와 함께 요양차 미타사를 찾아 처음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스님은 고모가 숨을 거두자 생사에 대한 의심을 품고 출가를 결심했다. 1939년 유명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득도한 지순 스님은, 일제강점과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모를 잃거나 버림받은 아이들 100여 명을 보살피는 등 인간방생을 실천해왔다.

지순 스님은 90이 넘은 노구에도 조석예불과 포행을 빠트리지 않는 등 수행에 힘써 후학들의 귀감이 됐다.

남동우 기자

"혁신 프로그램으로 발전 기반 조성"

대불청 24대 회장 박효상씨



"불청운동에 대한 작은 성과를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모아 힘찬 불교운동과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10월 22일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제51차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박효상(법수 · 41 · 사진) 前 연수원장이 제24대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효상 회장은 155표 중 82표, 정재호 후보는 72표를 얻었고, 한 표는 무효표로 처리됐다.

공공성 강화, 신행력 증진, 지구 · 지부 · 지회 활성화, 중앙조직 혁신 등 4가지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워 "불청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박효상 신임회장은 "지회가 참여하는 혁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직능 중심의 부회장단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각종 전문 자문위원회를 영입해 대불청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위촉이사들의 위원회 활동을 강화시키는 등 역동적 중앙조직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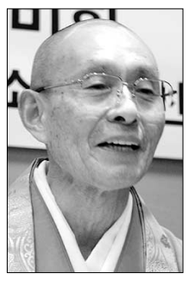
또 대불청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증 받아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따서 지구 · 지부 · 지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회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현재 (주)메카니아에 근무하는 박 회장은 "불청 뿌리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가)근현대불교청년운동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불청신행의 모형을 만들고 성찰적 불청좌표의 모색을 통해 신행증진을 위한 정체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구=배지선 기자

"禪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 아니예요"

日 임제종 미야모토 방장 부산서 '實參 · 實悟' 강조 법문



일본 임제종 대본산 향악사 방장 미야모토 스님(사진)이 한국 불자들을 만났다.

20대 초반에 출가, 50여 년 동안 두문불출하며 수행에만 몰두하던 스님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오곡도 명상수련원 장휘옥 원장과 김사업 지도법사와의 인연. 통영 오곡도에 명상센터를 짓고 수행에만 전념하기 위해 교수직을 놓고 섬으로 들어갔던 두 사람이 세계의 선방을 체험하면서 미야모토 방장과 인연을 맺은 후 각별한 사제의 연을 맺어왔다.

10월 21일 부산 크라운 호텔에서 열린 법회는 미야모토 스님의 세 번째 한국 방문으로 100여명의 한국불자들이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모였다.

특히 이날 법회는 오곡동명상수련원에서 수행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비회(회장 정영식)라는 봉사회 창립을 기념하는 행사여서 의미를 더했다.

미야모토 스님은 2시간 내내 선채로 법문을 이어갔다. 김사업 지도법사의 통역으로 진행된 법문에서 "선이 어려운 이유는 머리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을 행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렇다"며 "실제로 몸으로 좌선을 해봐야 하는 실참(實參)이 바탕이 돼야 하며, 그 실참을 꾸준히 물러서지 않고 해 나가는 실구(實究), 그리고 실구를 통해 실오(實悟) 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선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출가와 수행담을 통해 한국불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스님은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에 십대를 보내며 적지 않은 방황을 겪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한 백은 선사의 <야선한화>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아 그 책에 나와 있는 좌선법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선을 수행하는 곳을 찾아 그곳에서 출가했다. "수행과정 동안 그 어떤 고통보다 '깨닫지 못한 고통'이 가장 자신을 괴롭혔다"고 고백한 스님은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모든 고통의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백은 선사의 '좌선화찬(坐禪和讚)'의 게송을 인용하며 법문을 마무리했다.

"백은 선사의 게송을 줄이고 줄여서 핵심만 뽑는다면 '중생은 본래 부처이니 스스로 마음 돌려 자성을 깨달으면 이 몸이 곧 부처이니라'가 된다"며 "설법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으로 본래면목을 회복할 수는 없다. 실참과 실구의 꾸준한 노력을 거쳐 실오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본래면목을 회복하는 것이니 온 몸으로 좌선해 보라"고 거듭 당부했다.

천미희 기자

보덕사,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봉정식



서울 보덕사(주지 삼중)는 10월 20일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봉정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보덕사 주지 삼중 스님을 비롯해 일본 고야산 진언종 하야시 가쿠죠 스님 등 1백여 명이 동참했다. 삼중 스님은 "후쿠오카 남장사 법당에 모셔진 진신사리를 한국 사찰로는 처음으로 이운 봉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3회 불교계 큰일꾼 한마당 개최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여태동)는 10월 21일 김포 중앙승가대 운동장에서 '제3회 불교계 큰일꾼 한마당'을 개최했다. 불기협 소속 11개 회원사 100여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축구, 발야구, 줄다리기, 1000m 이어달리기 등의 운동경기와 친목도모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山寺 樹木葬(모집)

이제 수목장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 55호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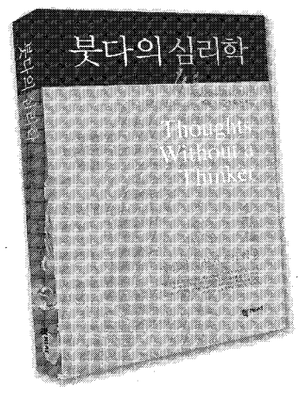
귀 사찰에서 소유하고 계신 임야에 수목장 시설을 갖추고 영가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한국 수목장 연합회"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급증하는 화장식 장묘문화에 따른 수목장시설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시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 이에 임야를 소유한 사찰이나 문중, 개인께서 수목장 사업을 원하시면 지금 즉시 연락 주십시오.
- 서울, 경기지역 및 전국 각 대도시를 중심으로 각3~5개의 수목장을 회원으로 모집하며 본 연합회는 각 회원사 수목장을 홍보, 영업하여 매일 유족을 보내드립니다.
- 1호점인 "광릉수목장"(www.goodsumok.com 참조)은 2006, 9월초 본 회가 설립하여 10월 중순까지 총100여기를 안치시켰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장의총연합회
부설 한국수목장연합회
T.02)2215-7908 / F.02)2216-1721

세계적인 프로젝트, 불교와 정신치료의 통합



붓다의 심리학
Mark Epstein M. D. 저 | 전현수 · 김성철 외 공역 | 신국판 | 304면

붓다의 가르침과 서양 심리학 통찰의 조화로운 만남
불교를 통해 정신치료나 상담의 한계를 보완해 줄 가능성을 살펴고, 모든 정신은 명상적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서양 정신치료와 불교 명상 양쪽에서 20년간 경험한 결과입니다. 〈붓다의 심리학〉은 치료자들에게 유용한 통찰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진전된 연구를 하게 하고, 치료자들과 명상적 길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상호 협력을 자극시킬 것입니다.
– 달라이 라마 추천사 –



완전한 자기 구현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上, 下
존 카밧진 저 · 장현갑 외 공역
384/352면 | 신국판 | 반양장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 자기 극복을 하기 위한 길잡이
마음이 지닌 치유의 힘
조앤 보리센코 외 공저 · 장현갑 외 공역
272면 | 신국판 | 반양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요가 수련을 소개하는 실습지침서
요가 첫걸음
산드라 앤더슨 외 공저 · 조옥경 외 공역
252면 | 국배변형판 | 반양장

"학지사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학지사 TEL (02)326-1500 | FAX (02)324-2345 http://www.hakjisa.co.kr



불자 세상보기

김 형 중
동대부고 교법사 · 문학박사

낮아지는 가출 연령

사람들은 누구나 가끔 정해진 자신의 울타리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탈(逸脫)을 꿈꾼다. 특히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새로운 창조를 생명으로 삼는 예술가의 파격(破格)에서도 일탈행위를 발견할 수 있다. 청소년의 가출도 일종의 일탈행위라고 볼 수 있다.

서울 YMCA가 지난 10월 서울시내 중 · 고교생 2천3백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이 바라보는 가출에 대한 인식 조사'에 의하면 '가출 충동'을 느낀 학생이 76.4%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73%)보다 여학생(79%)이 가출에 대한 충동을 더 느끼며, 가출 경험이 있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가출하고 싶은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청소년의 첫 가출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국가청소년위원회(지난 8월 가출 실태조사)의 조사 보고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첫 가출 시기는 13세 이하(50.3%)가 가장 많고, 이어 14~16세(39%), 17~19(9.9%)로 나타났다.

첫 가출 때 청소년의 평균 나이는 남자가 12.8세, 여자는 13.4세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아무런 분별의식이 없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 나이에 해당된다.

가출 청소년은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 등의 약물 남용에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가출 청소년의 성병 발생률이 일반보다 8배까지 높아 이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나체 사진을 수록한 성매매 유해광고 전단지가 가정집까지 배포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전단지 안에는 숙식 제공,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까지 수록되어 철없는 청소년들의 가출과 원조교재를 부추기고 있다. 참으로 사바세계는 요지경이고 오탁악세이다.

막노동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에 수석 합격한 장승수의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에 보면 그의 청소년기의 방황과 가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어차피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으니 좀더 화끈하게 놀아보고 싶었다. 술 담배는 기본이고, 여자애들과 어울려 술집과 나이트클럽을 돌아다니거나, 기분 내키면 집이든 학교든 상관않고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전형적인 구제불능 문제의 청소년상 그대로이다. 불교 용어로 말하면 영원히 성불하지 못할 일천제(一闡提)이다. 그러나 성불하지 못할 중생이 없듯이 장승수는 개과천선하고 용맹정진하여 뜻을 성취하였다.

청소년 가출은 우리의 전생 모습이다. 불교의 이상은 출리(出離)이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집착으로부터의 방하(放下)이다.

그러나 청소년 가출은 목적이 없고, 지혜가 없는 도피행이다. 물을 피하려고 뛰어든 것이 불을 만난 꼴이 바로 가출이다.

청소년은 나라의 희망이요,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그 나라 미래의 모습을 보려거든 청소년의 모습을 보라는 말이 있다.

우리 불교의 미래 또한 청소년 포교에 달려있다는 것은 더말할 필요 없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청소년 포교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기독교가 이 땅에서 오늘과 같이 교세가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악조건과 음지에서 고통받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애정을 가지고 전도했기 때문이다. 비행 · 사회부적응 · 가출 청소년을 우리 불교 교단이 보호하고 교화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중생을 구제하는 불법의 본분사(本分事)일 뿐만 아니라 전법포교의 길이다. 어린시기에 철이 없어 한 생각의 실수로 가출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잃어버린 부모를 대신해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처럼 힘껏 안아주자. 그러면 중생이 한 생각 바꿔서 전미개오(轉迷開悟)하여 부처가 되듯이 이들 또한 여래의 후예가 되어 참다운 불자로 새로이 태어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은 한국불교 최대 최고의 종교수행단체이다. 가장 청정해야 할 수행교단이 각종 선거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종교와 사회적 지도자인 스님들의 이러한 참상을 보는 종도와 국민들은 정신적 의지처를 잃어가는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 조계종에 과연 선거관리법이 있으며 법에 의해 제대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지난해 총무원장 선거에서 선관위의 허점과 질책이 난무하더니 이번 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도 역시 심각한 관리부재의 양상을 드러냈다.

가장 청정하고 투명해야 할 승가의 선거가 수행과 포교를 바탕으로 한 종단발전 계획과 비전 제시는 고사하고 금권, 문중, 계파간의 싸움으로 혼탁한 양상을 보여주는데도 어떠한 제재가 없었다니 종단의 미래가 참담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특히 수행하는 스님들의 선거판에 금전이 거래되고 향응이 제공된다는 여론은 너무나 부끄럽다. 선관위에서 못하면 호

선거도 '수행'의 과정

법부에서라도 철저히 조사해 승가의 치부를 도려내고 청정한 승가상을 보호하도록 하는 종단 책임자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에 대한 비판 여론이다. 직능직 20명 의원은 전문성을 살리고 전문직 종사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함에도 원칙을 무시한 배정으로 집단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어떠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제도와 법적인 미비점을 거론하고 있지만 일단 지나고 나면 그 뿐이고 부조리는 다시 거듭되고 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계율을 준수하고 선정과 지혜를 닦으며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스님들의 수행정신이다.

계율에 의해서 스님이 되어 수행하며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승단마저 이렇게 추한 꼴을 보이며 제도나 법 타령만 한다면 조계종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차제에 종단운영의 일선에 있는 스님들께서는 자각각타하려는 출가정신을 되살려 다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정승가 본연의 기본 정신으로 종단을 이끌어 종도와 국민이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불교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염원한다.

■법산(동국대 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민심은 천심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들을 위해 보시 · 애어 · 이행 · 동사의 사섭법으로 은혜를 베풀면 국가가 편안하고 흥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것이다." <방등경>

열린우리당은 10 · 25 재보선에서 0 대 9로 전패(全敗)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새삼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4월 총선은 노 대통령을 국회 탄핵의 폭풍 속에서 구해냈지만 이후 실시된 4차례의 재보선에선 모두 졌다.

이번 재보선의 9개 선거구는 중부권과 영 · 호남에 골고루 걸쳐 있어 전국적으로 실시된 민심 표본조사로서의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지금 민심은 노 정권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고 싶은, 또 무슨 의사표시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임을 넉넉히 짚어볼 수 있다.

북핵 위기가 말해주는 안보 실정과 갈수록 일자리를 줄어들게 한 경제 실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임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거듭나야 한다. "선거에 한두번 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엇박자로 역주행해선 안된다.

선거는 분명 민심의 외형적인 발로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분노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노 정권은 이제 겸허한 자세로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재 분발 해야 할 것이다.

민심은 한번 돌아서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심을 얻지 못하면 국가 경제와 정치가 발전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시 · 애어 · 이행 · 동사 등 사섭법의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사는 세계와 선재가 사는 세계는 너무 다르니 사섭법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러나 그 세계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등돌린 민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섭법을 실천하려는 마음자리부터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김주일(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친절한 말 한마디 '포교의 힘'

얼마전 가족과 함께 안성 칠장사에 나들이를 갔다. 은행잎이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는 가을의 산사는 한껏 운취를 더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새롭게 복원되고 있었고 불사를 준비하는지 잔디가 깔린 마당 한 켠에는 기와들이 쌓여 있었다.

절을 이리 저리 구경하다가 스님이 나오시길래 얼른 합장 인사를 올리고 아이에게도 인사를 드리라고 했다.

방에서 나오던 스님은 아이의 인사를 받자마자 잠깐만 기다리라 말씀하고는 도로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책을 한 권 들고 나오셨다. 부모은중경 속 효 이야기를 옮긴 동화책이었다. 아이에게 인사 잘 해서 주는 것이라며 책도 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어찌나 감사하던지. 단지 인사 한 번에 그렇게 아이를 위해 선물을 챙겨주는 스님이 고마웠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절에 가면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고 봐도 본척만척해서 절에 가기가 참 어색하다는 초발심자들에게 이런 스님의 마음씀씀이는 절에 다시 오고 싶도록 하는 청량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배려해주는 스님의 마음이 결국은 포교를 위한 밑거름이 아닐까 생각했다.

이상미(서울시 송파구 성내동)

한글통일법요집 생활화해야

주변의 권유로 절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직 생소한 것들이 많아 가끔 어리둥절할 때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문투성이의 경전이다.

절에 가면 '반야심경' '천수경' 등을 한문으로 독송한다. 절에 오래 다닌 것 같은 보살님들은 경전을 보지도 않고 줄줄 왼다. 나는 책을 보고 읽지만 따라하기조차 힘들다. 또 뜻을 새기며 따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주위 보살님들에게 방법을 물어보니 그냥 외우란다.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외우다 보면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는다고 한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조계종 포교원에서 발행한 <한글통일법요집>을 봤다. 한글로 된 경전은 이해하기도 쉽고 따라하기도 쉬웠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한글통일법요집>을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사회는 한글전용이 대세다. 몇몇 일간지에서 한문을 쓰고 있지만 한문 옆에 한글을 달아주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불교계도 시대의 흐름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라도 <한글통일법요집> 사용을 확산해야 한다. 어려운 한문투성이 경전으로는 이들을 절로 이끌기 어려울 것이다.

김경희(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진실 혹은 거짓'의 불교 폄하

MBC 프로그램중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것이 있다. 내용이 재밌어서 자주 시청하는 편인데 최근들어 불교 폄하 사례가 많아져 불교계에서 강력히 항의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중에는 사찰에서 점을 보는 장면이 버젓이 방송되는 가 하면, 사찰이 기복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게 비춰지는 장면들이 이따끔씩 나와 불자로서 가슴이 아프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대역 연기자들에 의해 단막극 형식으로 전개된 뒤 출연자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맞추는데 불교 소재는 거의 '거짓 상황'으로 많이 설정된다. 이에 반해 기독교를 소재로 한 내용은 '진실'인 경우가 많다.

물론 방송 프로그램은 창작의 자유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종교적인 소재와 같이 국민의 정서와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신중해야 한다. 신심 깊은 불자들이라면 옥석을 가려 이해하겠지만, 불교를 모르는 일반시청자들은 불교가 마치 주술적이고 거짓이 가득한 종교로 오인할 수도 충분히 있다. 보리방송모니터회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불교단체들이 이 프로그램을 철저히 모니터해 강력히 항의하길 바란다.

조광종(경상남도 마산시 회성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www.bexpo.org

국내 최대규모의 불교전시회

2007한국불교박람회 KOREAN BUDHISM EXPO 2007

2007. 3. 22 ~ 3. 25 서울무역전시장(SETEC)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제이컨벤션
주 관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전시품목 : 사찰건축, 사찰유지보수, 불교 및 포교용품, 종단 및 단체,
차 및 식품관련, 첨단포교, 불교장례문화, 불교와 관련된 기타산업

문 의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 TEL. 02-706-3493



아·름·다·운

삶·사람

자신의 삶이나 기원을 기록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문자가 생겨나기 이전인 선사시대 사람들은
동굴안이나 나무, 바위의 표면에 그림을 새겨 자신의 생활상과
종교적 관념의 세계를 표현했다. 이렇게 나무나 돌 등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한 것을
기록문화의 시원(始原)이라고 할 수 있다. 차츰 문양을 새기다보니 문자도 생겨났다.
각자(刻字, 글자를 새기는 것, '서각'의 국제사회 공식용어)는 이렇게 발전해왔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중 가장 돋보이는 분야에 '각자'가 자리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구정광다라니경(국보 126호)'을 비롯하여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해인사 팔만대장경'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목판기술을 자랑한다.
하지만 지금은 목판인쇄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면서,
사찰의 현판등을 제외하고는 각자를 사용하는곳이 많지 않다.
전통 각자의 명맥도 끊어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김각한 각자匠





30여년 동안 자신의 혼을 나무에 새겨온 김각한씨.

좋아서 시작해 어느덧 30여년

'탁 탁 탁'

10월 20일, 서울 이수교차로 부근 한 건물의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자 어두침침하고 허름한 지하실 한 구석에서 형광등 두 개와 스탠드를 켜고 작업하고 있는 장인의 손길이 섬세하다.

장인은 칼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망치로 끌을 때려 글을 새겨 넣는다. 각자는 한 치의 실수도 용납지 않는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작업이어서 장인의 작업실은 엄숙하다.

작업실을 둘러보니 손바닥만한 작은 판자부터 세로가 일 미터가 넘고 가로는 무려 7~8미터에 이르는 현판의 재료로 쓰이는 나무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다. 한쪽 구석에는 목재를 자르는 기계 그리고 톱밥등이 널려 있어 목공소를 방불케 한다. 작업실 한켠에는 간이 숙소가 보이고, 벽면은 작품으로 채워져 있다. 그중에는 귀(자) 등 각자작품도 보이고, 현대적으로 응용한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한참을 지난뒤,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刻字匠) 전수조교인 김각한(51 · 고미술서각원 원장)씨의 망치소리가 멈췄다. 그리고는 두툼한 안경을 벗고 눈을 마주친다.

"이 일은 한번 시작하면 밥먹는 것 잠자는 것도 잊게 됩니다. 정신을 모으는 일이다 보니 시간가는 줄도 모르지요. 각자는 공구와 손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을 나무에 새긴다는 생각을 갖고 수행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가 새기고 있는 각자는 글자 원본을 거꾸로 새기는 '훈민정음'이었다.

"이것은 인출(인쇄)을 목적으로 하는 반서각(反書刻)입니다. 글자를 똑바로 새기는 각자법은 정서각(正書刻)"이라고 하죠."

그는 작업하던 나무를 끌어안아 보였다. "나무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향기가 좋으며 다듬을 수록 아름다워진다"며 "각자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무를 정하고 고르는 치목(治木)"이라고 말한다. 나무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닷물에 담그고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글씨를 붙이는 '배자(配字)'를 한 다음 글자를 새긴다.

염불 들으며 일하면 아픈 다리도 '싹'

그는 군제대후 다리를 다쳐 치료차 고향 경북 김천에서 서울로 올라와 생활했다. 어느날 신촌 봉원사에 스님으로 있던 친척을 만나러 목발을 짚고가다 힘이들어 풀썩 주저앉았다. 그가 주저 앉은곳에서는 현재의 스승인 무형문화재 106호인 철재(鐵齋) 오옥진 선생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작품을 보니 갑자기 힘이 솟았다. 자신이 가야할 길임을 직감했다고 한다.

"웬지 내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 병원에서 평생 목발을 짚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라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이 일이 나에게 맞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길로 거의 사라진 각자를 부활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던 오옥진 선생의 서울 이문동 집을 찾아갔다.

"먼저 선생님 집 주변에 아예 4평의 작업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자르고 새기고 하는 작업을 반복했지요.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시면 최대한 빨리 완수한 다음 그 작품을 다른각도로 생각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스승이 곤혹스러울 정도로 따지고 들었다. 염불테이프를 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뒤 한자 한자 새기다보니 언제부턴가 주변에 목발이 없었고, 걸음걸이도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지금까지 돈되는 각자작업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거의 대부분 절 일만 했다. 경기도 시흥시 법륭사 신도로 청년회도 창립하고 거사회도 만들어 활동할 만큼 절의 언저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절에 가면 무료로 작품을 보시하고, 작품비를 주지 않으면 독촉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80년대말에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업으로 하던 각자가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작업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부터였다.

"저는 부처님 품안에서 살다보니 남들보다 어려움 없이 견뎌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픈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절일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뒤늦게 결혼도 했고, 주요 미술대전에서 상을 받으며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철재 오옥진 선생의 기술을 전수받는 전수조교로 지정되기도 했다.

전통 지키기 위해 강좌 및 해외 시연도

요즘 그의 화두는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어떻게 예술성을 발전시키면서 전통을 지키느냐'이다. 그래서 일반 대중이 언제나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매주 서각 특별 강좌를 열고, 시간을 쪼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운영하는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서울)와 공주에 있는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강의도 한다.

또 지난해에는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도 참가해 경판전각을 시연했으며,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등과도 국제교류전을 열고 한국의 각자문화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우리 전통 각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예술성이 돋보입니다."

그는 "우리 전통건축 지붕의 구조와 처마의 곡선 그리고 버선의 코끝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전통 각자 기법은 45° 각법을 활용한다"고 말한다. 또 "끌로만 작업해 직선에는 강하지만 음각이나 세밀한 작업이 불가능한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끌과 칼로 작업을 하기때문에 곡선이나 원도 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계수단이 안되다보니 이 일에 뛰어드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는 "각자의 위대한 부활을 위하여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후계자가 없어도 그는 각자를 배우는 젊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엄한 선생이기도 하다. 어차피 기본이 안되면 평생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 작업을 2년 이상 하지 않으면 모임의 회원으로도 받아주지 않을 정도다.

다른 분야에서는 우유부단하다는 말도 듣지만 각자 작업만큼은 깐깐하기로 이름난 그이기에 현재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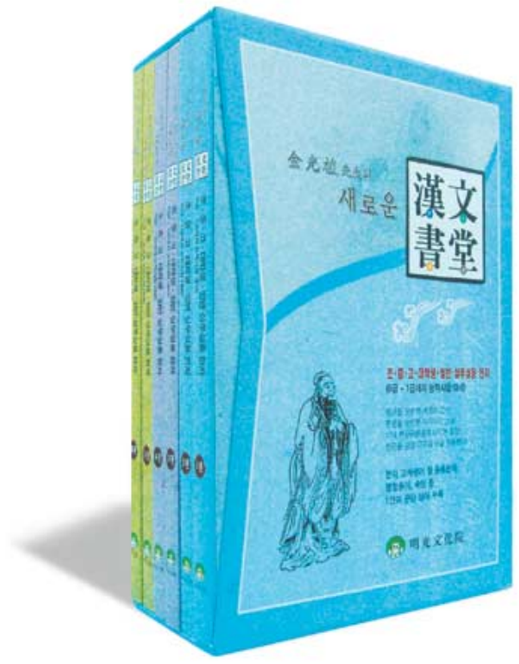
각자(刻字)에 인생을 걸고 전통방식을 거스르지 않으며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만들어온 30여년의 세월. 그는 전통문화의 순수성과 예술성이 함께하여 시대를 넘나드는 폭넓은 전통에서 출발하여 현대적인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다. 그의 이런 작품활동이 전통 각자문화를 이어가며 발전시키는 원동력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글=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불교계최초의온라인광고사이트 애드붓다피아 http://ad.buddhapia.com

머리에 쏙쏙!!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 · 중 · 고 · 대학생 · 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券 9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02)2004-8219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충청 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쏙 한맹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이원종 전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83> 장삼이사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그걸 맞는 사람은 '김 · 이 · 박(金 · 李 · 朴)씨'라는 우스개 소리가 전해온다. 뒤집어 이야기 하면 이 성씨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가장 많다는 말이다. 중국에는, 장삼이사(張三李四)라는 말에서 보듯 장(張)씨와 이(李)씨가 가장 많은 모양이다. 이씨는 두 국가에서 모두 2위를 차지하는 통계적 영광을 안았다. 장삼이사(張三李四)란 말은 '장씨의 세 번째 아들과 이씨의 네 번째 아들'이라는 문자적 의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의 대명사로 사용된다. 크게 배운 것 없이 신분적으로도 평민인 그들은 그야말로 '보통사람'들이다. <경덕전등록>에서 이 평범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빛나게 묘사돼 있는 경우를 용흥 유(龍興 裕) 선사 말에서 찾아낼 수 있다. 용흥 유 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찾아와 물었다.

"어떤 것이 학인의 본래자기입니까(如何是學人本來自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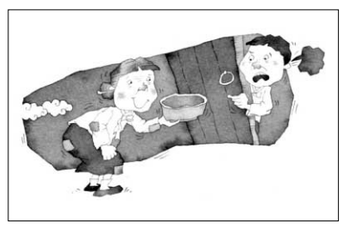
이는 '어떤 것이 너의 본래면목인가' 하는 바로 그 질문과 다르지 않다. 선사의 답변은 당연히 평범함을 강조하기 마련이다. "장삼이사(張三李四)니라."

선어록 곳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다. 대혜종고 선사의 법문에도 평범한 노파이야기가 나온다.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무지하천(無知下賤)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선사께서 법문하는 날, 마침 담주 선화현 행정책임자로 있던 요등관(寥等觀)자사가 참석한 것이 눈에 띄었다. 따라서 들으라는 듯 그 동네에서 있었던 '할머니 이야기'를 했다. 그 할머니는 걸식을 하면서 생계를 해결했다. 그야말로 의지할 핏줄 한 점 없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믿고 의지한 것이 있었으니 다름아닌 <금강경>이었다. 항상 금강경을 외우며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산기슭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 동네 처마 밑에서 이슬이라도 피하려고 하면 그 집주인들이 모두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도 금강경을 외우면서 탁발하러 다니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그 할머니가 해가 지면 돌아갔던 그 위치에 갈가마귀떼가 몰려들어 울어댔다. 무슨 일인가하여 사람을 보내 살펴보니 그 할머니가 가슴에 금강경을 품고서 바위 앞에 죽어있었다. 까마귀들이 흙을 물어다가 그 노파를 덮어주고 있는 중이었다. 선종의 소의경전인 금경경의 수지독송 공덕을 이름없는 평범한 노파가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살아서 도인'도 있고 '죽어서 도인'도 있는 법이다.

이번엔 장삼이사의 진짜 장씨 이야기이다. 장덕(張德)은 이발사였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사찰에 물건을 공급하는 일을 가업으로 해왔다. 그 인연으로 시간만 나면 참선을 했고 자주 사람들을 따라 법문을 들으려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눈앞이 훤해옴을 경험하게 한다. 스스로 깨친 바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까닭에 주변사람들은 '한 소식'한 것을 아무도 몰랐다.



'한소식'한 보통사람을 보라
깨침에 빈부귀천 있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렸다. 그 때 아이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 흰 눈으로 불상을 만들었다. 이를 기특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문득 게송 한 수를 지었다.

꽃 한송이가 여래를 받들고 나타났는데/
육근(六根)의 표현이 원만하고 눈가에는 미소까지 머금었구나/ 하지만 해골이 원래 물인줄 알았더라면/ 마야부인 태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을.

바늘 만드는 정(丁)씨는 천태지방 사람으로 서암사 방산(方山)선사에게 인가를 받았다. 그가 남겨놓은 선시가 있다.

놓든지 잡든지 간에
한 줄기 신령스런 빛이 천지를 비추네.

흰 눈과 맑은 거울을 빌려와 이치를 밝혀놓은 두 작품은 모든 한 경지에 이른 게송이라고 하겠다. 송(宋)의 대혜종고 선사와 명(明)의 무온서중(1309~1386)선사가 이 글을 굳이 기록으로 남겨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그들이 평민이라는 신분때문에 깨달음의 경지까지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등록>에는 이렇게 비꼬아 말하고 있다.

"불법(佛法)을 알고자 한다면 장삼이사(張三李四)에게 물어보고세간법을 알고자 한다면 고불총림(古佛叢林)에 들어가거라."

■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마음 있어도 수행에 접근하기 어려워

간화선 대중화 세미나 주제발표 · 토론 요지

최상승 수행법, 언어를 뛰어넘은 진리, 출가자의 전유물, 깨달음 절대주의. '간화선'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이다. 듣기만 해도 난해하고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렇게 어려운(?) 간화선을 대중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문제점을 개선해보자는 자리가 마련됐다. 10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간화선 대중화 세미나'에서는 출가자는 물론이고 재가자의 반성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월암 스님(전국선원수좌회 학술위원장)이 "간화선 수행의 성찰과 전망"을 주제로, 서재영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간화선 대중화의 문제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서화동 기자(한국경제신문사), 김병주씨(조계종 포교원 신도팀장)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와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



간화선 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시대에 맞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화선 수행의 성찰과 전망' (월암 스님)

현재 간화선 수행의 문제점은 간화선 수행자가 철저한 간화정신에 토대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간화선만이 최상승 수행법이라는 일방적 주장은 다원주의에 길들여진 이 시대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약하다.

역대 간화의 대종장들이 경전의 정형화된 언어를 뛰어넘어 일상의 모습 그대로가 진리임을 일깨웠듯이, 오늘의 간화 수행자도 다시 이 시대와 사회대중이 요구하는 살아있는 언어와 보편적 개념으로 최상승의 수행과 깨달음(간화선)을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간화선 정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견의 안목이라 말하는 중도정관(中道正觀)을 확립하고, 계정혜 삼학을 닦아나가야 하며, 인과법을 깊이 믿어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 오로지 실참을 통해 깨쳐야만 일대사를 이룰 것이라는 깨달음 절대주의에서 벗어나 이론과 실참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간화선 수행의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 철저한 발심이 있어야 하며, 선지식의 지도도 필수적이다. 또 물질과 쾌락적 풍토에서 벗어나 승풍을 진작하고, 단지 오래 앉아있는 좌선형식주의에서 탈피해 동중수행(動中修行)이 강화돼야 한다.

한국불교의 재가자 대부분은 선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고 더더욱 간화선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재가불자들의 불교적 인생관 확립이 필요하다.

▶ '간화선 대중화의 문제와 과제' (서재영 교수)

간화선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근기에 맞게 보다 친절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수행을 대중화하겠다는 것은 선을 위한 선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선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행에 있어 세간과 출세간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간화선 수행을 어렵게 여기는 대중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인식전환과 함께 몇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수행풍토도 극복해야 한다.

우선 친절하지 못한 수행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화두참구가 간화선 수행의 핵심이고 화두를 참구하기 위해서는 화두를 먼저 타야한다. 하지만 화두를 누구에게 타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선지식을 찾아가 화두를 타는 것은 만만치 않은 문제다. 바꿔 말하면 선지식으로부터 화두를 간택 받아야 하는 과정 자체가 수행의 대중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두를 타도 그 이후 수행에 대한 지도와 점검이 중요한데, 이것이 없다. 수행으로 다가가는 과정이 너무도 불친절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간화선을 대중을 위한 수행법으로 삼고자 한다면 수행자들의 수준에 맞게 친절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화두 참구가 출발이요 종착점이라는 경직된 수행 풍토의 변화도 필요하다. 간화선 이외의 다른 수행법에 대해서도 관용적이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 무조건 화두만 들면 된다거나, 간화선은 그 자체로 완전무결한 최고의 수행법이라는 경직된 수행관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수행과 선학의 유기적 접목도 필요한 요소다.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종단차원에서는 재가자 전용 수행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단위 사찰이나 소규모수행모임에 활용될 수 있는 표준 수행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간화선 수행은 스승의 지도와 점검이 필수적인 만큼 지도자 양성과정의 제도적 틀을 갖추거나 기존의 전문 교육기관과 연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화두 받고 참구하기까지 수준 맞는 친절한 안내 필요
이론과 수행 겸비해 시대에 맞는 '행복禪' 찾아야

▶토론

미산 스님 : 철저한 발심이 중요한데, 그것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월암 스님 : 출가 자체가 세속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으며, 출가 후에도 재발심을 유도하는 수행풍토가 진작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화동 기자 : 대중화를 위해서는 재가불자가 대각성 운동을 해야 하며, 간화선 대중화에 앞서 수행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수행을 할 수 있는 풍토 속에서 간화선 대중화도 도모해야 한다.

김병주 팀장 : 기도와 불공에서 수행과 사회회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래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찰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한다.

서재영 교수 : 불교사상과 수행이 분리돼 있는 것도 문제다. 재가자들의 각성도 필요하지만 환경을 갖춰주지 못한 출가자들도 반성해야 한다.

월암 스님 : 중도연기관이 투철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다. 불자들 개개인과 사찰, 그리고 종단이 연기적 중도관이 인생관 철학관 수행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현종 스님(조계종 불학연구소장) : 간화선 대중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월암 스님 : 노력해야 한다. 간화선만이 최고라는 고집을 버리고 이 시대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행복선'을 고민해야 한다.

미산 스님 : 대중화한다고 해서 간화선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간화선 역시 잘못된 수행방식에 대한 주창된 것이다.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이 창조돼야 한다. 중도정관을 담아내면 된다.

정리 · 사진=한명우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해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법비오는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 5분 소요
낙산사 10분소요
후휴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
조성불사 권선문
산승이 1,000일 기도중에 11면 42수 천수천안관세음 보살님께서 나투시어 33자 10M로 불상을 목불로 조성 하여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는 현몽가피를 받아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대작불사가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큰 원력과 신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받쳐서 기도 발원 드립니다.
참된 나를 찾아 가는 불자님께서 이번에 조성하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께 큰 신심을 내시어 큰인연 공덕을 지어주시고 무량복덕을 성취하여 수명장수하고 세세생생에 성불하십시오.
11면 42면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 시주문
11면 ..... 한분 200만원
42수 1손 200만원
천수 1손 20만원
본불 1분 3,000만원
남순동자, 해상용왕 ..... 각 1분 1000분
관음 천불 1분 20만원
연락처 :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455-5번지
청계산 덕왕사 주지 풍운 · 용각 합장
전화 054) 853-3855, 854-3855
온라인 : 농 협 729-02-117074 (예금주:유재하)
국민은행 622-24-0064-982
우 체 국 700435-02-005878

서울 금장사 '방과후 공부방' 성공 노하우는?

자격 요건 갖추고 '동심' 먼저 읽어라

10월 23일 서울 금장사(주지 본각)에서는 소박한 잔치가 열렸다. 사찰 바로 옆에 신축한 '보리방과후교실' 개원식이었다. 당연히 주인공은 방과후 공부방을 이용하는 18명의 아이들. 지난 8월부터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가 끝나는 오후 2시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던 아이들이다.

지난 2개월 간, 아이들은 맞벌이 등으로 바빠 돌봐줄 사람이 없는 낮시간 동안 '보리방과후교실'을 찾아와 영어공부도 하고 숙제지도도 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영어도 배우고 미술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미술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쳐주는데요~!"라고 자랑한다. "공부방 부엌에서 간식 만들어서 먹은 적도 있니?"라고 묻자 민주(10 · 홍은초3)는 "그럼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들어 먹었어요. 떡볶이, 팥빙수, 까나페…"라고 손을 꼽는다. 옆에서 예슬이(8 · 홍은초1)가 "우와, 언니는 공부방을 오래 다녀서 그동안 많이 만들어 먹었구나"라며 부러워한다.

홍은동 주민 대부분은 생계형 맞벌이를 하고 있어 금장사가 공부방을 마련한 이후로는 지역의 단비가 됐다.

그간 불교계 내부에서도 '사찰 방과후 공부방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의가 돼 왔으나 정작 사찰에서 공부방을 운영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이번 금장사 보리방과후교실 개원식이 이목을 모으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장 본각 스님(서울 금장사 주지)은 어째서 공부방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1999년 서대문구 홍은동에 금장사가 자리 잡으면서, 스님은 동네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천자문교실'을 열었다. '사찰에서 스님이 한자를 가르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2년동안 80여명의 아이들이 금장사를 거쳐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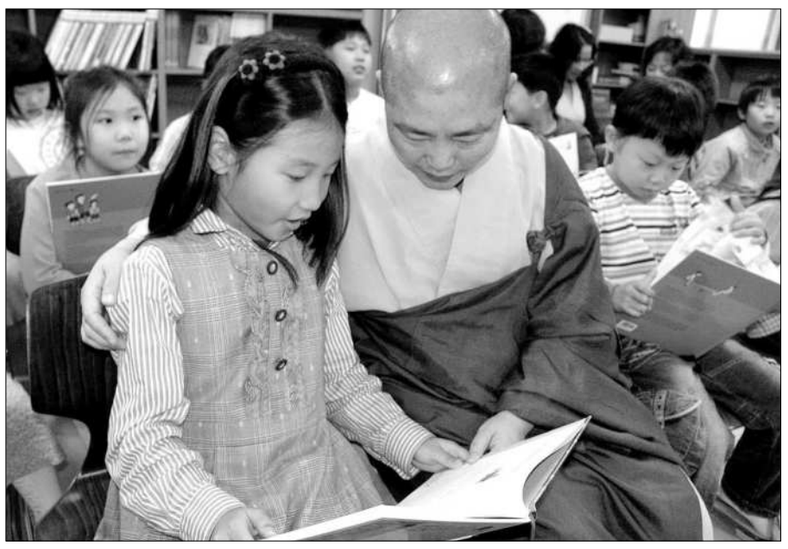
본각 스님은 어린이포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방안을 고심하다 구청에 문의한 결과, 방과후 공부방에 대해 알게 됐다.

'방과후 공부방'이란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못 받는 아동을 낮 동안 위탁하고 교육시키는 곳을 말한다. 그간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과후 공부방의 보육 · 교육시설 지원을 강화해왔다. 따라서 사찰도 자격만 갖추면 공부방을 쉽게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스님의 주장이다.

현재 정부가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월평균 운영비는 1백15만원, 보조교사비는 30만~1백50만원이다.

하지만 종사자와 시설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아이들이 30명 미만인 시설에는 시설장 1명 아래 교사 2명이 있어야 하며, 시설장은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시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부방을 준비하던 스님은 뜻밖에도 "다른 어린이 관련시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종교시설의 경우 대표자가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정보를 얻었다. 스님은 그 때부터 금장사 바로 앞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해 2월 28일부터 서대문구청의 허가를 얻어 내부설계를 하고 시공에 들어갔다. 완공이 끝난 것은 7월 10일.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섰다.



서울 금장사가 사찰 방과후 공부방인 '보리방과후교실'을 10월 23일 개원했다. 보리 방과후교실은 요일별로 논술, 풍물,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도 독서지도와 학습지도를 함께 진행한다.

각종 지원제도 · 기본시설 잘 살피고
타시설 벤치마킹… 협찬은 '다다익선'

그러나 몇 차례의 시행착오도 겪었다. 구청이 원하는 규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건물 내부를 꾸몄다가 다시 뜯어내고, 인가를 얻는 과정에서 특수보육시설로 분류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도 했다. 스님은 이후에야 사찰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참고할만한 타사찰 운영사례가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

이후, 개원식 두 달 전부터 문을 열고 아이들을 모집하기 시작해 8월에는 3천만원의 시설보조비도 받고, 청호나이스로부터 협찬 받아 산동네 곳곳을 누비며 아이들을 태울 버스도 마련했다. 현재 공부방은 27명의 아이들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에 있다.

본각 스님은 "타종교계는 종교시설장이 방과후 공부방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됐다는 정보를 듣고 7월초에 이미 800여개의 방과후 공부방을 개설, 1주일에 한번씩 성경공부를 실시하고 있다"며 "각 사찰마다 작은 공간만이라도 개방해 방과후 공부방을 만든다면 불자가정 어린이 뿐 아니라 무종교, 타종교에까지 자연스럽게 포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글 · 사진=이은비 기자

■본각 스님이 말하는 '방과후 공부방' 운영 Key Point

① 무턱대고 신청하기에 앞서 지역 내에 다른 '방과후 공부방'이 있는지 알아보라. 타종교시설이 이미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려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② 운영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라. '아이들이 학교 마친 후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시간만 채워주면 된다'는 식으로 방과후 공부방 운영을 막연히 생각한다면 금물이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튼튼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실력 있는 교사가 선발돼야 한다. 보리방과후교실의 경우 '미술교육이 알차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아이들이 늘어났다.

③ 사찰문화 프로그램으로 특성화하라. 한문서당이나 다도교실 등 스님이 직접 가르치면서 인성교육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다.

④ 지역 구청 공무원 등 관련 인물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라. 관계자들과 충분히 알아야 지역소식도 자주 접할 수 있고 방과후 공부방을 개설하기도 수월하다.

탐방

군포 정각사 어린이법회

동생 · 언니 · 오빠 함께 신나는 법회

컴퓨터 오락기에 만화책까지…언제나 문 열린 법당 인기

군포 정각사(주지 정엄) 어린이법회는 지난 2001년 정각사가 현재의 위치에 자리를 잡으면서 함께 시작됐다.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어린이법회에는 매주 5~60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한다. 실제 등록된 아이들은 120여명에 이른다.

일요일 오전이면 부모님이 사찰에 데려가지 않아도 혼자 버스를 타고 법당을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법회에 참석하는 어린이 사이에 유기적인 결속력이 이뤄져 아이들이 빠지는 법이 없다.



매주 50여명씩 어린이들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루는 군포 정각사 어린이법회는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한반이 돼 법회를 진행한다.

이처럼 정각사 어린이법회의 결속력이 유난히 큰 이유는 독특한 '합반제' 때문이다.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금선 스님은 3~4개월 된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격의 없이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기존 사찰들처럼 연령 · 학년별로 어린이반 교실을 나누는 대신 유치부 아이들부터 저학년, 고학년 어린이를 모두 고르게 섞어 한 반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연령을 초월한 '합반'이 정각사 어린이법회에는 세 개나 있다.

금선 스님은 "(다양한 연령대로 이루어진 반을 운영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화합과 형제애, 우애를 익힐 기회를 주고, 자연스러운 협동심을 계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각사가 짧은 시간 안에 유난히 어린이포교에 성공한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정각사는 지리적 특성을 포교의 이점으로 재빨리 살려냈다.

신도시인 군포시 중심지에 위치한 정각사는 우선 지리적 접근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어린이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열린도량'을 지향했다. 정각사에는 어린이용 도서가 빼곡히 비치돼있고, 컴퓨터와 오락기, 만화책 노래방기계를 갖춘 놀이방도 있다.

또 사찰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어린이법회 운영 프로그램에도 반영했다. 정각사 어린이법회는 첫째주에 고정적으로 '참회법회'라 불리는 신행법회를 진행하고 마지막주에 생일잔치 등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둘째주와 셋째주에는 자유로운 야외활동을 통해 법회를 운영한다. '법회는 사찰에서만 보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 인근 미술관에서 열리는 무료관람회를 보러 가거나 인근의 산으로 소풍을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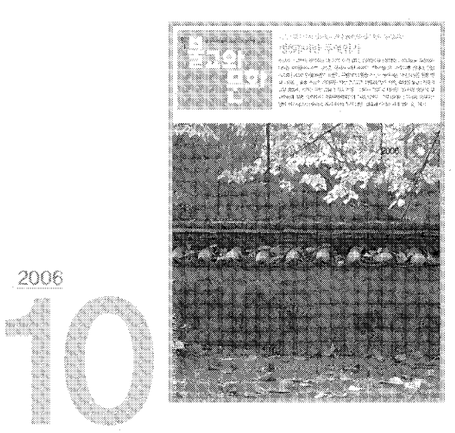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어린이법회가 탄력받을 수 있는 것은 정각사 어린이법회를 지원하는 '자모회'가 이들을 든든하게 지원하기 때문이다. 약 20명으로 이루어진 자모회 어머니들은 차량지원 등을 통해 법회가 원활히 열리도록 돕고, 매월 초 어린이법회 회의가 열릴 때 지도법사스님, 지도교사와 함께 회의에 참석해 법회 프로그램과 식단을 함께 정한다. (031)398-8001

이은비 기자

월간 『불교와 문화』 10월호 발간

이 땅에 불교정신을 구현하고 삶에 위안을 주는 편안한 잡지,
월간 『불교와 문화』가 이 가을, 불교와 문화의 풍성한 세계로 안내합니다.

10월호에서는 연속기획 〈다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생각한다〉의 세 번째 주제, "병(病)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불교적 관점에서 병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한 색다른 시각으로, 병이 절망보다는 인생을 성숙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망해봅니다. '옥의 티' 코너에서는 잘못되어 있는 불교문화재의 설명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또한 불자의 눈으로 감상하는 정열과 예술의 나라 스페인 문화기행과 '2006 한(韓)브랜드 박람회' 현장을 찾아가 우리 문화의 르네상스를 일으킬 새로운 문화콘텐츠들을 화보로 소개합니다. 특히 현대 어린이들의 심성교육과 정서함양을 위한 일중 스님의 특별기고 '어린이들을 위한 명상법'은 갖가지 정쟁 속에서 멍드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설가 조경란의 내 기억 속의 절밥 | 청결한 평화와 소박함
현장 속으로 | '2006 한(韓)브랜드 박람회'
특별기고 | 어린이들을 위한 명상법
연속기획 | 다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생각한다 ❸ – 병(病)이란 무엇인가
독자들 세상 | 독자 기자의 찻집 탐방 · 칭찬합니다
종범 스님의 불교란 무엇인가 ⓫ | 밀교의 신앙과 의례
서광 스님의 지상법문 "함께 뚫어주고, 연결하며, 소통하고 흘러가는 존재가 되십시오"
응용불교 | 마음챙김과 심리치료
열린불교 열린경영 ❺ | 불광사 리포트
신행 365일 | 2006 청정운동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전국 순회법회 이모저모
억불시대 수행열전 ❺ | 신익성이 만난 고승 성정(性淨) 스님
집중인터뷰 4 | 음악의 아름다움을 일상에서 나누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준
2006 시로 지은 절 | 박정대 作 「가을 저녁寺」
불교문화재 설명 바로잡기 | 국립중앙박물관 "지장보살과 무리"를 "지장시왕도"로
작업실 풍경 | 전각가 고암 정병례
불지가 떠난 스페인 문화기행 (상) | 바르셀로나에서 가우디를 만나다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 「Himalaya」
2006 테마기획 | 지리산 대안 스님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건강 밥상
'살찌는 가을'을 대비한 다이어트 영양식 2
건강 에세이 | 감기 – 열심히 호흡하고 휴식하자
좋은 책 읽기 · 문화단신
(벌지) 하루에 돌아보는 테마여행 ❼ – 서울의 능묘(陵墓)
삼사 성지순례 안내 | 향일암 · 선암사 · 송광사

www.buddhistculture.co.kr
월간 『불교와 문화』 1권 3,000원, 1년 구독료 30,000원(12권) 구독 문의 : 02-706-1570 『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 빙의 이젠 제대로 알자! "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44> 참된 열반이란

계율이 잘 지켜져야 고요한 선정의 힘이 길러지니 이 선정에서 나오는 지혜가 바로 부처의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 '불생(不生)'이라 하고, 이는 고요한 선정으로서 헛된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 '무념(無念)'이라 한다. 또한 이 무념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것이니 '열반'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그 자리가 열반인데도 중생들은 이 열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이 열반에 집착하여 번뇌를 일으킨다.

<선가귀감> 45장에서는 이 집착을 깨뜨리고자 참된 열반에 대하여 말한다.

修道證滅 是亦非眞也 心法本寂 乃眞滅也. 故曰 諸法從本來 常自寂滅相

도를 닦아 열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참된 열반이 아니다. 마음이 본디 고요한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열반이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 "모든 법은 본디부터 늘 언제나 고요하다"라고 말한다.

"도를 닦아 열반을 얻는다"는 것에서 말하는 열반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말하는 열반이다. 깨달음을 얻어 생사 자체가 열반이 되면 모든 차별이 사라져 중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열반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를 않는다. 열반을 추구하는 '주체'와 열반이라는 '객체'가 사라진 이 자리는 본디 고요한 마음으로서 어떤 법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 "모든 법은 본디부터 늘 언제나 고요하다"라고 말한다. 모든 집착이 사라져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이 자리야말로 '참된 열반'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眼不自見 見眼者 妄也. 故 妙首思量 淨名杜默

자신의 눈이 자신의 눈을 볼 수 없는 것이니 자신의 눈을 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은 생각할 것이 없는 곳에서 생각으로 헤아리고, 유마 거사는 침묵할 것이 없는 곳에서 침묵하였던 것이다.

참된 열반은 생사·열반의 집착을 완전히 여의고 중도를 깨달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자신의 눈이 자신의 눈을 볼 수 없다는 것[眼不自見]"은 무엇을 말하는가? 생사니 열반이니 하는 개념들은 모두 실체가 없는 인연들이 모여 허깨비처럼 만들어진 것인데 '깨달음'으로써 이 허깨비들이 사라졌으므로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열반의 성품은 원래 비고 고요하여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어도 불공(不空)의 공덕이 있어 인연 따라 모든 일을 성취한다.

그러나 그 바탕 그 자체는 본디 공(空)이어서 실체가 없는 것처럼, 도를 닦아 열반을 얻는다는 것[修道證滅] 역시 인연을 좇는 것이므로 그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생사니 열반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허깨비와 같다[非眞]. 비유하면 자신의 눈이 본디 자신의 눈을 보지 못하듯, '참된 열반'의 성품 그 자체가 평등이어서 생사니 열반이라는 차별로써 열반이라고 말할 것이 없다. '참된 열반'은 마음과 경계가 일여(一如)하여 능소(能所)로 드러날 것이 없어 이를 불이법문(不二法門)이라 한다.

둘이 아닌 불이법문(不二法門)이란, 대립하는 두 존재가 본질적으로 볼 때는 '둘이 아니라는 것'을 설한 법문이다. 그리고 이 '둘이 아닌 것[不二]'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이 곧 '참된 열반'이다. 생사와 열반의 개념이 상대적이니 생사도 의지하지 않고 열반도 의지하지 않아 양쪽의 집착을 완전히 여의어야 이것이 곧 '참된 열반'이다.

그렇다고 '참된 열반'이라는 것에 또 집착하게 되면, 하나에 대하여 다시 하나 아닌 것이 상대가 되어 둘을 이루니 차별의 변견(邊見)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을 여의어 양쪽 자체를 찾아볼 수 없고 '참된 열반'이라는 것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열반'에 또 집착하게 되면 결코 진정한 둘이 아닌 것[不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반을 증득했다고 열반에 머무르면 열반이 아니고 성불(成佛)했다고 하여 부처에 집착하면 부처가 아니다. 실제로 중도를 깨달아 양변에 머무르지 않으므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不有]'은 중생들이 경계로 나타나는 색(色)에 집착하나 색(色)이 본디 공(空)이어서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있다는 유견(有見)을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不無]'은 색(色)이 본디 공(空)이라고 하니 중생들이 공(空)에 집착하므로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공(空)에 대한 집착'을 부수는 것이다.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둘을 파(破)하고 없지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를 파(破)함이니, 유(有)도 파하고 무(無)도 파하며 색(色)도 파하고 공(空)도 파하면 거기에 마땅히 중도(中道)인 열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열반 또한 공(空)이다. 불교에서 늘 말하는 것이지만 양쪽의 집착을 완전히 여의면서 나타나는 열반에 집착하면 그것은 열반을 모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실로 양쪽의 집착을 여의면 불가득공(不可得空)이라서 열반이라는 것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중생들을 위해 억지로 할 수 없이 '공(空)'이요 '중도'며 '참된 열반'이라고 이름 하는 것이지 그것들 자체는 실제로 공(空)이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불이법문(不二法門)이다. 그러므로 서산 스님은 "문수보살은 생각할 것이 없는 곳에서 생각으로 헤아리고, 유마거사는 침묵할 것이 없는 곳에서 침묵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이 불이법문을 설한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무엇보다도 <유마경>을 손꼽을 수 있다. 천태 스님도 여러 저서에서 불이법문을 논할 때는 특히 <유마경> 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에 나오는 문수보살과 유마거사의 불이법문을 자주 거론하였다. 천태 스님도 서산 스님처럼 <관음현의>에서 "문수는 설하되 설하지 않음으로 불이문(不二門)을 삼고, 정명은 입을 막음으로 불이문을 삼는다[文殊 說無說爲不二門 淨名 杜口爲不二門]"라고 하였다.

생사를 떠나서 열반이 없으며 도를 닦아 열반을 얻는 것도 아니다. 생사와 열반 양변의 집착을 떠난 중도 자리, 곧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 마음이 본디 고요한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열반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lust.org)

마음 비우기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대웅전(大雄殿)

사찰의 전각은 집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집 주인이면 대웅전(大雄殿),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主佛)이면 대적광전(大寂光殿)이라고 합니다. '대적광전' 설명은 다음 호에 하기로 하고, 이번 호에서는 대웅전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당우입니다. 한 수 격을 올려 대웅보전(大雄寶殿)이라고도 합니다. '대영웅 석가모니를 봉안한 불전'이란 뜻이지요.

어느 불교학과 노교수는 '천웅전(天雄殿)'에서 대웅전이 기원됐다고 합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토속화되는 과정에서 '단군 신앙'을 수용했다는 주장이지요. 부처님의 존재가 당시 사회에서 천웅(하늘 영웅)으로 추앙받던 단군과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이후 '하늘 천(天)'자에서 맨 위 가로 획을 떼어내 '큰 대(大)'로 했다고 하는군요.

각설하고, 대웅전은 사찰의 중심 전각입니다. 여기에는 협시(脇侍)로 다양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시지요. 문수의 지혜(智慧)와 보현의 행원(行願)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이 기본입니다. 좌우에 선법(禪法)을 상징하는 가섭과 교법(敎法)을 상징하는 아난다를 위치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웅보전이라 할 때는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를 모시고, 문수와 보현보살 대신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협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도록 대웅전이 다양한 협시를 이루게 된 원인은 역시 석가모니의 위신력에 의지하려는 인간의 소박한 기대와 정서 때문일 겁니다. 사실 석가모니가 없는 불교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19)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65강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 제 13

'님의 침묵'이 '금강경'을 설파?

13장은 지금까지의 재즈식 설법을 총괄하여, '이름'을 부여한다. '금강반야바라밀'이 그것이다. 이로서 설법은 완성되었다! 그러고도 혹 오해할까 싶어 노파심의 당부가 이어진다.

원문

爾時, 須菩提白佛言, 世尊, 當何名此經, 我等云何奉持. 佛告須菩提, 是經名爲金剛般若波羅蜜, 以是名字, 汝當奉持. 所以者何. 須菩提, 佛說般若波羅蜜, 卽非般若波羅蜜, 是名般若波羅蜜.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所說法不. 須菩提白佛言, 世尊, 如來無所說. 須菩提, 於意云何. 三千大千世界所有微塵, 是爲多不. 須菩提言, 甚多,世尊. 須菩提, 諸微塵, 如來說非微塵, 是名微塵. 如來說世界非世界, 是名世界.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三十二相見如來不. 不也, 世尊. 不可以三十二相得見如來. 何以故. 如來說三十二相, 卽是非相, 是名三十二相. 須菩提, 若有善男子善女人,, 以恒河沙等身命布施, 若復有人, 於此經中, 乃至受持四句偈等, 爲他人說, 其福甚多.

초벌 번역

이때, 수보리가 부처께 사뢰되, "세존이시여, 이 위대한 경전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리까. 그리고 어떻게 받들고 지키리이까." 부처가 수보리에게 말했다. "이 경전의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할지니, 이 이름으로 너는 마땅히 받들고 지키라. 왜냐. 수보리야, 부처가 반야바라밀이라 하지만, 이는 기실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러기에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냐. 여래가 무슨 설법한 바가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여래는 설하신 바 없습니다."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냐, 삼천대천세계의 먼지들, 이들은 많겠지." 수보리가 말했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이 수많은 먼지들, 이라고 여래는 말하지만 이들은 먼지들이 아니다. 그래서 먼지들이라고 한다. 여래는 수많은 세계를 말하지만, 실은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세계라고 부른다.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냐. 가히 32상으로 여래를 볼 수 있을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상으로는 여래를 볼 수 없습니다. 어째서냐 하면, 여래가 설하신 32상은 상이 아닌데, 그래서 32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항하사 같은 목숨을 보시로 내놓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 중에 사구게라도 수지하고, 그것을 다른 이를 위해 설하면, 그 복이 더욱 성대하니라."

보완 번역

이때, 수보리가 부처께 사뢰되, "세존이시여, 이 위대한 경전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리까. 그리고 어떻게 받들고 지키리이까." 부처가 수보리에게 말했다. "이 경전의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할지니, 이 이름으로 너는 마땅히 받들고 지키라. 왜냐. 수보리야, 부처(인 내)가 (지금) 반야바라밀이라 하지만, 이는 기실 (실체로서의)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전제로 내가 지금)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내가 부르는 모든 이름, 세속의 것이든 영원의 것이든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냐. 여래가 무슨 설법한 바, (그것을 통해 듣고 얻은 바)가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여래는 설하신 바, (즉, 그것을 통해 듣고 얻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하다. 잘 이해하고 있구나.) 수보리야, (더 물어보자.) 네 생각에 어떠냐, 삼천대천세계의 먼지들, 이들은 (무수히) 많겠지." 수보리가 말했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수많은 먼지들'이라고 (나와 선배) 여래(들)이 말하지만 이들은 (기실) 먼지들(로서의 실재성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즉, 그 조건 하에서 내가 지금 방편으로) '먼지들'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여래는 수많은 '세계'를 말하지만, 실은 (그것들은)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세계라고 (방편으로) 부른다.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냐. 가히 32상으로 여래를 볼 수 있을까." "아니니다, 세존이시여, 32상으로는 여래를 볼 수 없습니다. 어째서냐 하면, 여래가 설하신 32상은 (기실 실재하는) 상이 아닌데, 그래서 32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이해하고 있구나,) 수보리야, (그렇다. 정말 그렇다. 네가 지금 깨달은 이 '지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항하사 같은 목숨을 보시로 내놓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 중에 (핵심) 사구게를 수지하고, 그것을 다른 이를 위해 설파하면, 그 복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고 성대하리라."



부연 해설

– 지금까지 긴 문답을 들었다. 그 가르침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나 보다. 수보리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다면서, 그 '독특한 가르침'에 이름을 짓자고 청한다. 붓다는 거기 '금강반야바라밀'이란 이름을 붙여준다. 그래놓고도 미심쩍었던지,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해온 '오해를 피하는 법'을 노파심으로 다시 틀어준다.

– 붓다는 여기 <금강경>에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정리해보자. 탁발을 마치고, 붓다를 둘러앉아 들은 그 '불교'는, 초장부터 상식은 물론이고, 승단의 통상적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놓았다. "내가 그동안 혀를 두드려 가르친 바 '불교'는, 그대들의 그릇된 자아의식을 부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 가르침이 담긴 책을 신성한 장소에 보관하여 경배하지 말라. 희망을 주기 위해 약속한 여래 또한 네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수보리는 처음 이 혁명적 선언에 경악했다가, 그 가르침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된 붓다의 파트너 제자였다. 수보리는 고개를 들고, "나야, 그렇다치고, 이 말을 곧이 들을 자 있겠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는 오랜 500년들의 쇠퇴기를 거친 말세의 중생들이 붙잡고 있는 희망의 등불이 못내 걱정이었던 것이다.

– 붓다는 이 부정과 부재의 선언이야말로 말후구(末後句), 불교의 진정한 희망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사즉필생, 생즉필사(死卽必生 生卽必死), 일전을 불사해야 전쟁을 막고, 허공에 발을 내딛어야 길이 생기듯이, 외물(外物)에 기대는 바가 없을 때,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동력의 자유와 힘을 얻는다.

– 이렇게 듣고 보니, 이 얘기를 어디에선가 들은 적이 있지 아니한가.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바로 그것이다. 만해는 세속의 시적 감성으로 <금강경>이 설파하는 '최상승'의 역설을 은유하고 있다. 그동안 사람들은 만해가 <불교대전>의 저자이자, <조선불교유신론> 그 휘황한 고금(古今)의 문체로 혁명적 취지를 설파한 '승려'였다는 것을 근본 간과하고, 그를 오로지 <독립운동가>로서만 기억하는 바람에 <님의 침묵>을 편파적으로 해설해 왔고, 그 바람에 경강부회 또한 적지 않았다. <금강경>의 코드로 <님의 침묵>을 다시 읽어 보자.

–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중략)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배기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앵글에 잡힌 앙코르…그 감동속으로



앙코르는 9세기부터 15세기까지(AD 802~AD 1431)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던 크메르 제국의 유적지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앙코르와트는 반경 30km이내에 산재해 있는 앙코르톰, 네악 푸온 대 성지, 타 프롬 승가원, 프레아 칸 사원, 반테아이 스레이, 프놈바켕 사원 등 수많은 사원과 왕궁 유적지군을 포함한다. 앙코르의 그 독특한 아름다움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라는 칭호에 걸맞게 수백 년간 밀림 속에서 인간의 발길을 허용하지 않다가 19세기에 우연히 프랑스 박물학자에 의해 발견됐다.

이런 앙코르를 보기 위해 최근 캄보디아를 찾는 우리나라의 관광객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떠나기란 쉽지가 않다. 그동안 마음으로나마 한 번 쯤 가봐야지 하고 벼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여행서가 나왔다.

사진작가 라상호씨와 30명이 넘는 트래블게릴라의 멤버(여행작가)들이 펴낸 <오래된미래-성벽도시 앙코르>와 <앙코르 유적>이 그것.

사진작가로서 30여년이라는 녹록치 않은 외길인생을 걸어 온 라상호씨가 펴낸 <오래된미래-성벽도시 앙코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400여 장의 생동감 넘치는 사진을 제공한다.

6년 동안 14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하면서 앙코르의 모든 것을 그저 이유 없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작가의 손에서 '황금빛 색감'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앙코르는 때로는 아리따운 여성의 섬세함으로, 때로는 거친 남성의 장중함으로 그 숨겨진 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가 느낀 이런 조건 없는 애정의 마음은 앙코르에 따뜻하고 온화한 금빛 색채를 입히고 있다. 그는 자연 그대로의 성스러운 금빛을 표현하기 위해 주로 앙코르의 해 뜰 무렵, 해질 무렵을 택해 촬영했다.

사진집은 앙코르를 전성기부터 초기의 역순으로 각 시대별 대표적인 건축물과 조각품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담아내고 있다.

또 사진집 속에는 구름이 많이 낀 상태나 화창하게 게인 풍경등 다양한 각도의 사진들이 망라해 있어 앙코르의 24시간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 준다. 특히 마치 햇빛이 유적지를 따라 구석구석 비추는 듯한 섬세한 카메라 워킹으로 마치 그와 함께 유적지를 답사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일주일 동안 꼬박 앙코르만 봐도 다 못 본다고 할 정도로 볼 것이 많음에도, 책을 눈으로 따라 가다 보면, 어느새 앙코르의 대부분을 다 보게 해준다.

<앙코르 유적>은 앙코르의 프런티어를 자처하는 여행작가들의 첫 번째 책이다. 기존 앙코르 유적 책자들이 유적지의 간략한 정보만 실은 데 반해 회랑의 부조까지 세세하게 설명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책이 나오기까지 준비기간은 무려 5년. 5년 동안 수십 차례 앙코르 유적을 방문해 책의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 이 책에는 에는 앙코르 유적의 정보만 있는 게 아니다. 앙코르 유적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씨엠리업과 방콕 카오산 로드의 정보도 함께 실려 있다. 트래블게릴라 멤버들의 여행기와 앙코르 유적을 다녀온 수많은 여행자들의 기억을 담은 부분은 또 다른 재미로 다가온다.

또 이 책의 독자들에게는 온라인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트래블게릴라의 웹사이트(TFGue.com, travelg.co.kr)에서는 수시로 바뀌는 앙코르 유적의 정보를 새롭게 공수해 준다. 웹사이트에서는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볼거리와 숙소, 레스토랑, 쇼핑 정보까지 생생하게 전달한다. 트래블게릴라 멤버들의 경험담이나 조언 등도 풍부해 살아있는 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역사의 두꺼운 퇴적물에 훼손되지 않고, 오랜 시간 밀림의 독특한 생태계와 어우러져 그 아름다움이 한층 더 빛나게 하는 앙코르를 만나보자.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 com



오래된미래-성벽도시 앙코르
라상호 지음
행복한숲|7만원

앙코르 유적
트래블게릴라 지음
여행친구 트래블게릴라
1만5000원

네티즌 강추

배만 볼록한 마른 비만, 당뇨병 주의보



내 몸에 맞는 당뇨 건강법 허갑범 지음, 디앤씨미디어

국내 내분비내과 1호 박사인 허갑범 박사는 이 책에서 어떤 사람들에게서 당뇨병이 잘 발병하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 복부비만이 있는 사람, 생활습관이 나쁜 사람, 식습관이 잘못된 사람,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나이가 많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하고 특히 저체중아로 태어난 사람들이 당뇨병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들은 전신성 비만이 적고 오히려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복부비만을 가진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저자는 마른 비만에 속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 영양의 균형을 맞춘 식습관을 하지 않다가 과잉 열량을 섭취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자신이 당뇨병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스스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가장 중요한 식사와 운동요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다. 또 당뇨병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man1235, lifelog.blog.naver.com/man1235))

욕망 드러내고 타인의 욕망 인정하기



마광쉬즘 - 마광수 아포리즘 마광수 지음, 인물과사상사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대신 한 듯했다.

시원하고 통쾌했다.

내 바람은 한 가지이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좀 더 자기의 욕망들 드러내는 일에 솔직하고 서로의 욕망에 대해 인정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이중적인 모습은 위선의 어둠을 낳는다.

자신의 욕망은 그 어둠에 묻어놓거나 멋진 로맨스가 된다.

반면 상대의 욕망은 추악한 것이 되거나 불륜이 된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감정에 대해 통제하려 드는 촌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드러내자'

마광수의 생각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이다.

요 근래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짚었던 책이라고 기억하고 싶다.

(humanstory, kyobobook.co.kr/product)

책속의 밑줄긋기



○…혜월에게 젊은 학승이 하나 찾아왔다. 혜월이 넌지시 물었다.

"자네 여기 어찌 왔는고?"

"참선하러 왔습니다."

"참선은 왜?"

"부처 되려고요."

"참선은 앉아서 하는가, 서서 하는가?"

"앉아서합니다."

"그놈의 부처는 다리 병신인가?"

참선은 따로 있는게 아니다. 삶자체가 참선이다. 깨달음은 앉고 서는 것이 없다. 깨달음엔 법이 없다. 깨달음에 법이 있다면 그것은 법에 갇힌 깨달음이다. 무언가에 갇혀있는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자유롭지 않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모두 앉은뱅이 부처일 뿐이다.

-<콧구멍없는 소> 39쪽에서, 박영규 지음, 고요아침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저자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봉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禪) 법문 안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
서울 법회가 11월 5일 열립니다.
• 광주선원 ☎ 062-944-4088
선문염송 / 11월19일(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 부산선원 ☎ 051-545-2460
금강경 / 11월26일(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 3시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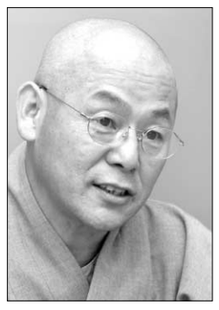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新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도서출판 밀 양
••• 유식은 그 자체로 과학이자 禪이다.
••• 내 마음의 안과 밖을 여실히 깨달아 上智로 거듭난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에 아우러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길잡이> 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中에서-
이 책의 특징
•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 유식학 전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 유식禪思想 釋明
• 유식학의 현대적 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摘示
• 자기발견 ; 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 · 편의성 제고
• 의식개혁 ; 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구입문의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총판 :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
(055) 353-6142
010-2356-6142

신비의 다라니 달마도
소승이 다라니 천일기도하면서 써온 사경작품에 달마도를 친 작품으로 다라니 위신력과 달마도 신통력으로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어 주는 최고의 명작품으로 불사관계로 인연있는 몇 분에게 보시합니다.
- 지리산인 무각스님
● 보시금 : 20만원(족자 완제품)
● 규 격 : 가로 45cm 세로 180cm
● 농협 525-01-176510 약수사
063)625-6831 / 010-9115-6831

interview 영문불교개론서 낸 종매 스님

10여년전부터 준비 다섯번 고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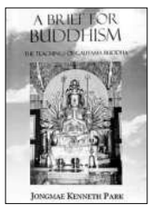
"불교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제대로 된 불교개론서를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10년전부터 준비해온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보광사 주지 종매 스님(사진)이 최근 영문 불교 개론서 (A BRIEF FOR BUDDHISM)를 발간했다.

현재 마땅한 영문 불교개론서가 없는 상황에서 발간된 이책은 미국의 일반대학이나 불교대학에서 불교교재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독일어판을 펴낸 스님의 불교개론서는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불교학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불교를 모르는 초심자들이 보는 책인 만큼 경율론을 쉽게 해설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처음 3년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 죽림원에서 1차 원고를 작성한 뒤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5번이나 새로 고쳐썼습니다."

원고 작성하려고
캘리포니아대
불교관장직도 물러나



스님은 1000여쪽에 이르는 초벌 원고를 1년동안 꼼꼼히 검토해 300여쪽으로 줄였다. 스님은 책 발간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불교관장직에서 사퇴했다.

"대학에 재직하며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만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불교발전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남여평등주의자'라는 스님은 "이 개론서에서 불교가 신분뿐 아니라 성적으로도 철저한 평등을 강조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개론서의 주요내용은 고대인도의 정치적 지정학적 상황에서 출발하여 부처님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출가까지 서술하고 있다. 또 불교교리, 남전과 북전 그리고 대승의 삼장, 남방상좌부의 위빠사나와 대승의 선교 수행법이 설명돼 있다. 마지막으로 불교와 현대사회, 불교와 정치 경제 여성등에 관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책은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JONGMAE'를 검색하면 36달러에 구입이 가능하다.

스님은 책 발간과 더불어 유럽의 중심인 오스트리아에 불교통신대학(IBS)을 개설했다. 오스트리아정부에 종교학교로 공식 등록된 IBS에는 현재 20여명의 유럽인들이 수강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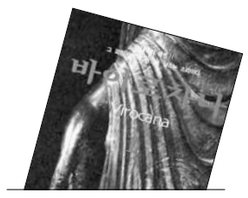
1978년 군법사를 예편한 뒤 미국으로 출국한 종매 스님은 현재 미국 4군데 사찰을 비롯 캐나다 몬트리올, 태국 방콕, 오스트리아 비엔나, 독일 솔림엔등에 10여곳의 사찰과 외국인 제자 10여명을 상좌로 두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당신을 살리는
절박한 외침

'바이로차나!'

온세상 천지에 가득차 있다



바이로차나
공파 스님 역해
맑은소리 맑은나라 | 1만원

고려시대를 살다 간 야운 스님의 자경문(自警文)을 풀어 해석한 책이 나왔다.

<바이로차나(Vairocana)>는 '온 세상 천지에 가득 차 있다'는 뜻의 산스크리트어다. 남방불교권을 넘나들며 다양한 불교적 체험을 하였고 평생을 경전 연구와 역해로 수행삼아 온 공파 스님(부산 원효센터 주지 · 사진)이 풀이했다. 공파 스님은 야운 스님이 얼음처럼 차갑게 당신 스스로를 경책했던 삶의 지표를 현대인들에게 걸맞는 쉽고 간명한 언어로 하나하나 풀어서 들려주고 있다. <바이로차나> 1권에 이어 연작을 펴낼 계획이다.

야운 스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야운 스님에 대한 세속적인 자질구레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한 수행승으로 살다갔다는 말이다. "한 눈 팔지 말고 오로지 수행에만 매진하자"는 맹세의 글귀로 주옥같이 적어 내려간 자경문을 공파 스님의 날카로운 시선과 솔직한 글쓰기로 재조명해 놓고 있다.

<바이로차나>는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열 가지 문제들을 세심히 짚어보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해놓고 있다. 음식, 보시, 언어, 친구, 수면, 교만, 정욕, 세속, 대중, 처신 등 10가지의 항목으로 나눠 게을러지는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부처로 환원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야무지게 다그치고 있다.



공파 스님, 고려 야운 스님의 자경문 풀어 써
참 불자의 길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일침

이미 <부처님의 유언> <극락세계 1, 2, 3> <천수경 원본경전> <원효전집> 전 6권을 역해한 공파 스님은 <바이로차나>에 수많은 경전속의 주옥같은 말씀들을 인용하며 중생의 좁은 소견을 버리고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화엄경, 능엄경, 법화경, 금강경 등의 경전 내용을 일일이 인용, 이 시대 불교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불교적인 형태들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 그 뿐 아니다. 스스로를 불자라고 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이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몽둥이를 날린다. 이 책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진정한 불자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한두 번쯤은 얼굴이 붉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

공파 스님은 "우리는 근본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주 협소한 지엽적인 마음을 쓰고 있다"며 "이제 그 마음을 풀어주어 온 우주에 유영할 수 있게 이 마음을 살려 주어야 한다. 삼독으로 눌러 놓으면 죄업의 육신 속에 갇히지만, 바라밀로 싹을 틔우면 세상 천지에 가득 차 있게 된다"고 자신을 살리는 내면의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고언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수행자와 중문학자가 함께 푼 금강경



금강경(수행자와 중문학자가 함께 풀이한)
수암스님
안재철 공저
운주사 | 1만5000원

부처님도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는 부모와 아내 그리고 아들이 있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었다. 그러나 늙은 이, 병든 이, 죽은 이, 수행하는 이 등을 보고 태자의 지위와 미래의 왕위를 포기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하시고 깨달음을 위해 출가한 것이다. 부처님은 열심히 정진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모든 존재들과는 다른 정각자가 되어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폈으며, 천신들에게까지 존경받는 거룩한 분이 되었다.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남녀노소 빈부귀천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전하는 경전이 <금강경>이다. <금강경>은 복을 짓고 지혜를 닦으며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완벽한 경전이다.

<수행자와 중문학자가 함께 풀이한 금강경>은 태고종 중앙교육원장 수암 스님이 신문에 연재했던 내용과 제주대 중문학과 안재철 교수가 가지고 있던 강의자료를 합친것이다. 기본 교재는 구마라집(343~413) 삼장의 역본을 채택하고 금강경요가해를 참고했다.

안재철 교수는 주로 한글번역과 문자, 문법해설을 담당하고, 수암 스님은 내용을 불교신행에 근접한 강의형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서로의 장점을 이 한 권에 오롯이 담아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해석의 관점이 다른부분은 서로 의논하여 고치면서 정리해 정확한 번역과 문법풀이가 돋보인다. 그래선지 그동안 나온 천편일률적인 금강경 번역과 풀이에서 벗어나 있다는 평이다.

아울러 230여 개에 이르는 상세한 주(注)도 금강경을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주고 있다.

김원우 기자

불교미술 감상 키워드 '상징'



삶과 초월의 미학
(불화 상징 바로 읽기)
최성규 지음
정우서적 | 1만2000원

'모나리자'를 보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나고, '절규'를 보면서 뭉크를 몰래 훔쳐보기도 한다. 불교의 교리를 집약적으로 상징화하여 깨달음의 이상을 나타내는 불화도 마찬가지다. '불화'를 보면서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고, 사상과 가르침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운다.

불화의 상징을 바로 읽는 것은 불교의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수행을 완성하는 지름길이 된다.

<삶과 초월의 미학>에는 인도에서부터 시작된 불교미술을 시작으로 무불상 시대의 불교미술, 간다라 불상, 마투라 불상, 중국의 돈황 불화까지 불교미술의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고려시대의 불화와 불교미술이 꽃핀 조선시대의 불화까지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화를 이해하는 참고서로의 활용도 가능하다. 탱화 벽화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불화에 깃든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기 때문.

이 책은 사진 혹은 그림과 함께 내용이 자세히 풀이 되어 있어, 보는 것을 뛰어 넘어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저자 최성규씨는 경북대 미술학과와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 위덕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방대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위덕대 강사, 한국미협 이사, 환경미술협회 한국화 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만족 아는 이가 바로 부자



부자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
법상 스님 지음
도솔 | 9500원

"물질의 부자 보다는 마음이 풍족해지는 부자가 되세요."

군승(軍僧)이자 인터넷에서 생활수행 모임 '목탁소리(www.moktaksori.com)'에서 '아난스님'이란 이름으로도 유명한 법상 스님이 불교교리를 바탕으로 한 15가지 생활 수행법을 소개한다.

스님은 부족하게 불편하게 살기, 미래를 걱정하지 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남처럼 되려고 애쓰지 말기 등의 마음공부 수행법들을 명확히 제시한다. 또 '만족'의 덕목을 강조한다. 부(富)의 기준으로 행복을 재단하는 물질만능주의에 길들여지면 자신의 삶은 언제나 불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러준다. 그렇기에 수없이 많은 선택과 고민들의 연속인 현실의 삶에 감사하고 긍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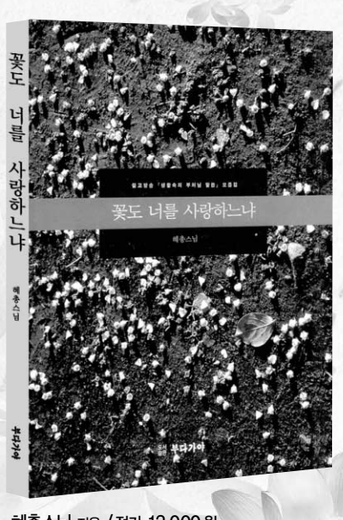
법상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와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 대성사 불심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실천 근본불교 입문> <실천하는 수행자를 위한 반야심경 대강좌> 등의 책을 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아름다운 절 아름다운 스님** 이연정 외 공저, 1만2000원, 민족사
- **까말라실라의 수습차제연구** 중암 목련 외 공저, 2만원, 불교시대사
- **부처와 꽃을 보러가다** 스젠제 외 공저, 1만900원, 비채
- **법성게 강의** 석우스님, 1만3000원, 여래
- **부자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 법상 스님, 9500원, 도솔

도서주문 (02)2004-8219

혜총스님이 전하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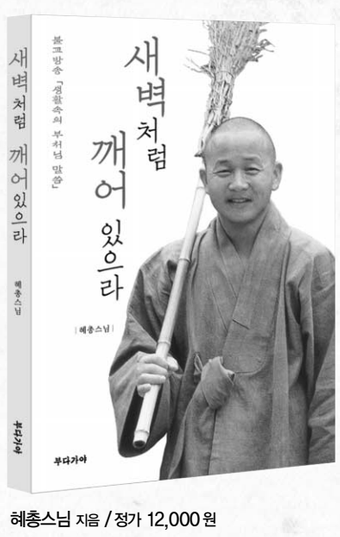
무소유의 행복 설법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이 글은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교훈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고 담박하고 깔끔한 문장이
잡은 참에 읽힌다.
내 자신도 늘 되돌아 보는 바이지만, 출가 수행자에게는
글 쓰는 일이 수행의 한 여기(余技)에 지나지 않는다.
수행자의 본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착실한 중노릇이다.
스스로 깨어있고 이웃을 일깨우는 일이다.

-법정스님-

베스트셀러 순위 진입 !!
유명서점 및 불교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혜총스님 지음 / 정가 12,000 원



부처님 닮아가는 참다운 행복의 길

원고를 펼쳐보니 혜총스님의 자비로움과
지혜가 느껴진다.
길지 않은 글 편편에는 중생계가 일상으로 겪고
있는 온갖 갈애를 부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씻겨주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가산 지관 伽山 智冠

순박하고 정직하게 사는 지혜 180가지

혜총스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줌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사라지듯 잠깐인 삶을 전부인냥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다만 한사람이라도 더 부처님이 제시해 놓은 가르침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반조해보는 계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하셨다.

-현대불교신문 기사 중에서-

11쇄 발행!! 3만여 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서출판 부다가야 (051)865-4383 · 팩스 (051)865-4821 · 홈페이지 : www.buddhagaya.co.kr · 편집디자인 : 대한기획 (051)866-7818

금속 佛具로 장엄된 고려인의 불심

용인대 박물관 19일까지 '불법으로 피어난…' 전시
명문 새겨진 범종·관불반 학계 첫 보고 눈길 끌어


명문이 남아있는 청동 계미명 범종.


명문 남은 '관불반' 학계 첫 공개.


은제 소형 불감.


청동 금강령.

불교가 번창했던 고려시대에 제작된 금·은·청동 등 금속제 불구(佛具)들이 고아한 자태를 드러낸다. 고려시대 금속공예로 만들어낸 불구(佛具)가 용인대박물관에 모였다.

11월 1일~19일 용인대학교 박물관 전시실에서 선보이는 '불법으로 피어난 금속공예-고려시대 불구'는 고려시대 금속 불구의 아름다움과 학술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해 보고자 기획됐다.

불구는 부처님을 봉안한 사찰의 불전이나 불교 의식에 사용하는 특정 용구뿐만 아니라 불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용구를 의미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의장(意匠)과 문양 장식 표현 기법이 독특한 고려시대 금속 불구들이 새롭게 공개된다. 전시는 범음구, 의식구, 장엄구, 공양구, 각종 소형 불구, 건축 부재나 경함 등 목재 불구에 사용되는 각종 장식용구로 나눠서 구성된다.

주목받는 전시품은 명문이 남은 작품들. 1223년에 제작된 청동계미명 범종, 1215년 만들어진 청동 정우삼년명 관불반(灌佛盤) 등이 학술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관불반은 명문이 새겨져 용도가 확인된 것이 학계에 처음 보고되는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 열반의 장면을 묘사한 금동선각열반변상판, 금강령, 금동연화형 향로 등은 고려시대 불구를 대표하는 작품들이다.


은제 불감.


연화모양 향로.


연화문양이 새겨진 청동 사리기.

이외에도 청동연화모양 사리기, 청동금강령, 은제 소형 불감, 청동장식 등이 공개된다. 개인 처소에 따로 모시거나 몸 가까이 지니고 다니던 생활 불구 가운데에는 호지불(護持佛), 호지용 경전, 경전을 담던 경갑이나 경통 등을 만날 수 있다. 금동연화모양자물통, 만(卍)자, 범어의 하나인 실담자(悉曇字), 팔길상문(八吉祥文)이 새겨진 청동장식 등도 장식용구 코너에 선보인다.

한편 용인대학교 박물관은 이번 특별전과 관련해 9일 '고려시대 금속공예-불구의 제작과 사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마련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안귀숙 문화감정관(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이 '고려 불구의 의미와 제작 방법'을, 서성호씨(국립중앙박물관)가 '고려시대 금속 불구 조성과 원주(願主)'를, 김수기 교수(용인대 문화재보존학과)가 '금속공예기법에 따른 보존처리 방법'을 각각 발표한다. 이날 보물 제973호 <화엄경> 사경과 보물급 <묘법연화경> 사경도 공개할 예정이다. (031)330-3001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닳고 닳은 기계조각들 부처로 '환생'


선정에 든 부처님을 형상화했다.

진철문 '사유하는 철문-쇠부터 鐵佛'展

사유하는 조각가 진철문씨가 '사유하는 철문-쇠부터鐵佛전'이 독특한 시각으로 철불을 조성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외부 작가로는 처음 장욱진 화백의 용인화실집 5평짜리 작은 전시실에서 10월 21일~11월 2일 전시회를 연 것이다.

참부처(眞如)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해답을 찾아내 보이는게 진철문씨가 만들어가는 불상의 세계이다. 이번에 진철문씨가 7번째 불상작품 재료로 선택한 것은 쇠와 철이다. 제 몫을 다한 기계 조각들은 진철문씨의 손 아래에서 불상으로 거듭났다.

가스레인지 틀이 광배가 되고, 암수나사가 마른 몸매와 뼈대를 구성하고, 다 닳은 마치나 레일못 버린 아령은 가부좌로, 암수 톱니바퀴들은 연화좌로 변신한다.

진철문씨는 "티베트에서는 '얼마나 봉사를 했나? 내 몸이 닳은만큼 역할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봉사를 다해 닳아 빛나는 아름다운 몸을 다시 불상으로 나투어 기나긴 영겁의 선정에 들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에서 다 닳은 재료로 불상을 만들었다"고 밝힌다.

강지연 기자

서칠교 조각전 '極樂往生'



불상조각가 서칠교씨가 '극락왕생'을 주제로 아미타신앙에 대한 도상들을 전시한다. 10월 25일~11월 3일 서울 삼청동 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극락왕생'은 죽은 자의 명복을 비는 마음을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수인이나 지물로 불보살이 가진 의미를 표현해온 기존 불교도상과는 달리, 서칠교씨는 몸짓 표정 조각적 표현 기법 등 다양한 요소들을 도상들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입상 좌상 반가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했다. (02)732-6170 강지연 기자

무구의 미소 '서창원 조각전'



불상조각가 서창원씨가 두 번째 개인전을 불일미술관에서 개최하고 있다. 10월 27일~11월 2일 열리는 '무구의 미소'는 금동문수보살상, 청동여래상, 청동금강역사상 등의 불상과 만해 한용운 스님 진영, 자운 대율사 진영 등을 선보인다.

서창원씨는 불교조각과 초상조각에서 독자적인 경지를 인정받고 있다. (02)733-5322 강지연 기자

국립중앙박물관에 나툰
'꽃을 든 부처'
반가사유상도 반년만에 선봬



10월 27일 꽃을 든 부처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나투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미술관 I 불교회화실 테마전으로 '꽃을 든 부처:보물 제1350호 통도사 괘불'을 전시하고 있다. 2007년 4월 22일까지 6개월간 계속되는 '꽃을 든 부처'에서 소개되는 통도사 괘불은 높이가 12미터가 넘는 괘불탱이다. 1766년 통도사 성도재행사에서 백여 년 넘게 사용해오던 괘불이 갑작스레 바람에 훼손되자 새로 그렸다고 기록된 현판이 통도사에 남아있다.

법주사 괘불을 그린 두훈 스님이 총감독을 맡아 제작된 통도사 괘불은 현장에서 불화를 올려 보는 우리 눈이 착시 현상을 염두에 두어 부처의 비율을 왜곡시켜 그린 석가모니불이다.

괘불을 왜 그렸을까에서부터 그림에 나타난 의미와 숨은 의미를 담은 테마전 도록도 발행돼 판매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이 6개월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10월 24일부터 2007년 4월 29일까지 미술관 II 불교조각실에서는 '미술관 테마전-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이 전시된다. 국보 78호·83호 반가사유상이 6개월 단위로 전시되는 반가사유상 전용공간에서 선보이는 것이다. (02)2077-9000

강지연 기자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생활 활용 CD

전문가용 하락리수 CD

생년월일시를 입력 하자마자
사주 간지와 선천운 후천운을 즉시 확인함은 물론
12조건에 따른 길흉을 클릭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평생운에 이어 대상운 년운 월운
일운까지도 세세히 볼 수 있고,
항평결과 주역점, 궁합점수 등이 추가된
종합 주역운세풀이입니다.
아울러 토정선생의 토정수를 활용한
토정괘(384효 또는 144효)를 얻어서
실제 년운에 대입해 봄으로써,
하락이수 년운과 비교해 운명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 윤상철,
2006년 9월 증보.
※ 구성 : CD 1매, usb락, 프로그램 매뉴얼.
오운육기,궁합, 육효, 인쇄 가능

전문가용 자미두수 CD

삭망일 균시차 인명저장 등
각 학설에 따른 옵션기능과,
자미두수 성요에 대한 각 서적의 내용
망라한 설명기능,
대한 소한 태세 월건까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미두수의 특성상 종합적인 운세풀이
설명은 없습니다.
기문과 육효의 포국보조프로그램
등으로 더욱 자세해졌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 김재윤,
2006년 3월 증보.
※ 구성 : CD 1매, usb락, 프로그램 매뉴얼.
명리, 기문, 육효, 육임의 명반, 인쇄 가능

전문가용 육임 CD

삼전조식된 육임식반과 더불어
9종 10과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육임공부를 할 수 있고,
720과에 대해 총운 공명 가정 행인 투자 등
각 25개 항목으로 나누어
육임점의 가부길흉이 단답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임입문 123의 번들 CD를 보완하였습니다.

※ 가격 100,000원 총괄 : 윤상철,
2006년 6월 증보.
※ 구성 : CD 1매, usb락, 프로그램 매뉴얼.
기문 명반

하락리수와 자미두수를 함께 구입하시면 전문가용 육임 cd를 드립니다.

문의 : (02) 2249-5630 / 563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민 807-21-0290-497(윤상철)
www.daeyou.net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5

지안 스님(조계종 승가대학원장) / 열반경(10월 21일)

열반은 부처의 본질이며 깨달음 자체



부처님의 열반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생사를 초월한 깨달음의 자체라고 법문하는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 봉선사 강설대법회중 <열반경>을 주제로 10월 21일 열린 이날 법회에는 8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대승 경전 사상 종합
성불 위한 지계와 육바라밀·팔정도 실천 강조
"보리심 내면 선근 끊어진 일천제도 성불 가능"

<열반경>은 석가모니 부처님 최후의 설법을 수록한 경전입니다. 책 제목인 '열반(涅槃)'이란 '멸도(滅度)'라 번역하기도 하는데 부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열반경>은 쿠시나가라성 근처 아리라발제하(阿利羅跋提河:Ajitavati)강가의 사라쌍수(娑羅雙樹) 나무 사이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던 음력 2월 15일 하루 낮, 하루밤에 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경>은 불교전반의 폭넓은 교의를 담고 있는 부처님의 마지막 유교(遺敎)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에는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에 들 때의 상황들도 묘사돼 있습니다. 부처님이 입멸에 들 것이라는 사실을 통지받고 모여든 대중들이 슬퍼하는 모습, 사라쌍수 나뭇잎 색이 하얗게 변해 학의 깃처럼 된 상황, 무변신(無邊身) 보살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러 오고 그 밖에 독사나 악업을 지은 자들까지도 모두 모여 슬퍼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할 때 10대 제자 가운데 가섭과 아난이 오지 않았으며 아사세왕과 천제의 무리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나오지요.

하지만 이는 서품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 뒤의 다른 품에 가서는 부처님이 아난에게 법을 설해주는 장면이 나오며 아사세 왕과도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서품의 이야기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열반경>에는 부처님이 순타가 바치는 최후의 공양을 받으신 후 몸에 병을 얻은 장면도 등장합니다. 경의 끝 부분에서는 외도한 10명을 불법에 귀의시키고 마군에게 시달리는 아난을 구한 뒤 마지막 제자가 된 수발타를 불법에 귀의시키는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도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아함경>에 포함돼 있는 <유행경>이나 <유교경>에 설해져 있는 내용을 빌려온 것으로 일부는 역사적 사실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승열반경>이 부처님의 자취를 역사적인 사실에 의거해 서술하려는 의도로 편찬된 경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승열반경>에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열반을 바로 부처의 본질로 보며, 이 열반을 보편화해 '불멸(不滅)'이라고 밝히는 것이 <열반경>의 중요 대의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반'을 단순한 죽음의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열반경>이 <소승열반경>과 <대승열반경>으로 구별돼 전해지고 있지만 <소승열반경>이 먼저 성립된 것임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승열반경>에 속하는 경전들은 대승운동이 일어난 기원전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대승열반경>은 용수보살의 생존시기인 기원후 150~250년이 지난 3세기 말엽에서 4세기에 들어서 성립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한역 <열반경>의 종류는 15역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중 5역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전해지는 10역 가운데는 <소승열반경>으로 알려진 <불반니원경>과 <대반열반경>이 있으며, 나머지는 <대승열반경>인데 이중 가장 유명한 <열반경>에는 '북본(北本)'과 '남본(南本)'이라 부르는 두 본과 <대반니원경>이라는 또 하나의 본이 있습니다.

<대반니원경>은 동진(東晋)의 법현(法顯)이 418년에 남본과 북본의 앞부분을 번역해 6권 18품으로 나눠 한역한 것이고, 북본 열반경은 421년 북량(北凉)의 담무참(曇無讖)이 번역한 것으로 40권 13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북본 열반경에 의지해 혜엄(慧嚴)과 혜관(慧觀) 두 스님이 거사 사영운과 함께 법현이 번역한 <대반니원경>과 대조해 가면서 다시 보완해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36권 25품으로 돼있는데 중국의 강남지방에서 번역되었다 하여 <남본열반경>이라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후대에 와서는 이 <남본열반경>이 주로 유통되었으며 또한 연구도 크게 활성화 됐지요.

<열반경>은 다른 대승경전의 사상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기 대승경전인 <반야경>을 비롯해 <수능엄경> <법화경> <화엄경> 등에 설해져 있는 내용의 일부가 이 경에서도 설해져 나옵니다. 말하자면 대승경전에 설해진 여러 가지 사상을 종합하고 있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직접 <열반경>이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열반경>이 편찬된 시기는 불교역사적으로 볼 때 혼란스러웠던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열반경>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은 <열반경>이 편찬될 당시의 불교교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교단 안팎으로 위기상황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교단 내부의 혼란으로 정화가 필요했고, 굽타왕조의 등장과 함께 힌두교의 급성장으로 인한 불교교세의 위축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법과 교단 수호적 차원에서 <열반경>이 편찬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중국 천태지의 대사가 <열반경>을 '부율담상(扶律談常)'의 가르침이라고 말했듯이, 이경이 편찬된 데에는 두 가지 큰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율을 되살려 교단의 기강을 확립해 부처님의 정법이 바르게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불성사상을 천명해 불교의 근본대의를 대내외적으로 바로 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열반경>이 어느 대승경전보다 정법호지의 계율을 강조했으며, 불성론으로써 불교의 본령을 삼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열반경>의 주요 주제는 경의 이름에서 명시된 그대로 열반입니다. <열반경>에서는 일반적인 열반의 의미를 더욱 심화시켜 설하면서 '대열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이 '대열반'이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부처로 하여금 부처가 되게 하는 부처의 본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부처가 얻은 깨달음 그 자체를 '대열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열반'은 법신(法身)과 반야(般若), 해탈(解脫)의 세 가지로 이루어지며 이를 열반의 삼법(三法) 혹은 삼덕(三德)이라 말합니다.

법신이란 때와 장소를 초월해 언제 어디서고 보편적이며 항상 존재하는 우주의 참된 이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법신을 깨닫는 지혜가 바로 반야이며 깨달았을 때 얻어지는 자유의 경지가 해탈입니다.

이 삼법은 서로 의존하여 존립할 때 비로소 제각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서로 떨어져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理)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지(智)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지(智)가 깨달은 뒤에 자유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열반경>은 부처의 본질인 '대열반'이 이와 같이 법신과 반야, 해탈을 기본으로 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존재를 부처라 한다면 신체란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의 참 몸은 법신이므로 무상한 것이 아니라 상주하는 것이며, 괴로운 존재가 아니라 즐거운 것이며 반야의 지혜로 해탈을 누리는 상태여서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절대자유의 대아를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상주설에 이어 열반의 네 가지 덕이 있는데 이 또한 <열반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가지란 상·락·아·정(常·樂·我·淨)인데 이것이 성취된 열반이라야 부처의 참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석가모니가 인간 세상에 출현해 인간의 한 생애를 통하여 여덟 가지 장면인 8상(八相)을 보여주고 입멸한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인류 역사상에 자취를 남기고 입멸한 석가모니는 참부처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응현한 부처로 화신의 부처이지만 부처의 본체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수도를 완성해 부처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일 뿐, 참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하는 일도 없고 병이 들거나 죽어 입멸에 드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하거나 병을 앓고 입멸에 드는 것을 보이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열반에 든다는 것은 법신으로의 환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강신품>에서 부처님이 가섭보살에게 말했습니다.

강설대법회 동영상
buddhanews.com과
bongsunsa.net에서.
셔틀버스 매주 토요일 낮12시
조계사앞 출발 (왕복 1만원)

"새는 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도자기 불상 조성 전문 기업 경 동 요

천불 · 삼천불 · 만불

불상크기 : 1자
재질 : 도자기(개금)



지장 보살님 관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여의주)

경동요는 삼보에 귀의 하는 마음으로 도자기 불상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경동요는 20여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대덕스님들 께서 원하시는 불사에 맞추어 불상을 조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대표 천우경 합장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1리 329-1번지
• 전 화 : 031)638-4531 (주간)
031)637-8789 (야간)
• 휴대폰 : 011-765-4531

불상크기 : 7치
재질 : 도자기(개금)



석가모니부처님 지장 보살님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5

지안 스님(조계종 승가대학원장) / 열반경(10월 21일)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선남자여, 여래의 몸은 항상 머무는 몸이며, 깨뜨릴 수 없는 몸이며, 금강과 같은 몸이며, 잡식하지 않는 몸이니, 곧 법신이니라."

또 <장수품>에서는 부처님이 장수의 업을 얻었다고 설해져 있는데 이 장수의 업이 바로 불신 상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열반경> 특유의 '불신관(佛身觀)'에 대한 이야기들로서 반야부 경전이나 <유마경> 등에서 설해진 부처의 본체가 법신이지 생신(生身)이 아니라는 뜻을 이어 받아 한 말들입니다.

<열반경>의 또 하나 중요한 대의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선언한 실유불성(悉有佛性)사상입니다.

불성이란 부처의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부처의 본질입니다. 일체 중생과 만유가 모두 불성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불성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개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불성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깨달아 부처가 될 때 없던 불성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불성이 현현(顯現)한 것입니다. 비록 범부는 불성을 계발하지 못하고 번뇌에 덮여 있는 상태이긴 하나 돌 속에 들어 있는 금이 제련돼 순금이 되듯이 번뇌에 덮여 있는 불성이 부처의 근본이며, 여래장(如來藏)이라고 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중생 누구나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불성을 자각해 법신을 증득하면 부처이므로 이에 어떤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승의 이승(二乘)인 성문(聲聞) 연각(緣覺)들을 평가절하해 대승으로 회심하지 못하면 성불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향도 있지만, <열반경>은 이러한 불가능성을 철폐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특별히 정해졌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천제성불론까지 주장합니다.

'천제'란 잇찬티카(icchantica)의 음사한 말로 일천제를 줄여 천제라 하는데 선근이 끊어진 사람, 혹은 믿음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단선근(斷善根), 신불구족(信不具足)이라고 번역합니다.

<열반경>에는 이 천제에게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한 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부지런히 정진해 불성을 계발하여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의 노력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근이 없고 악근(惡根)이 깊어 불성계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부처의 길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반경>에 보면 실제로 부처님이 입멸하려 할 때 스승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비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구들이 성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경> 제17품인 <일체대중소문품>에서는 일천제의 불성은 한량없는 죄업에 얽매여 있어 깨달음의 종자를 낳을 수 없고, 생사의 유전이 끊어지지 않아 비록 사중죄(四重罪)와 오역죄(五逆罪)를 범한 자들은 보리심을 내게 할 수 있어도 선근이 끊어진 천제들은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22품인 <광명변조고귀덕왕보살품>에서는 천제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선언한 이상 천제도 불성 밖의 존재가 아니므로 그가 만약 언젠가 불성을 믿게 되는 때가 온다면 그에게도 성불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로 말하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참회해 갱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열반경>의 주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불신상주설'과 '일체중생실유불성론', 그리고 '상(常) 락(樂) 아(我) 정(淨) 열반의 네 가지 덕'과 '천제성불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대의는 모두 불성에 바탕을 두고 설한 것이며, 이 불성이 현현(顯現)된 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은 <열반경>의 대의를 '의진상 현일성(依眞常 顯一性)'이라 말해 왔습니다. <열반경>은 불성의 현현을 위해서 엄격히 계를 지켜야 할 것과 팔정도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의지를 일으키는 발심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계에 대해 매우 강도 높은 훈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는 <열반경>을 불성개현에 있어 율행의 성취가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에 의한 불도 완성의 취지를 그대로 설해 놓은 하나의 표본 법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열반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불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구(論究)입니다. 품을 거듭해 갈수록 열반에 대한 설명이 진지해지며 차원이 높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성을 단순한 사전식 설명인 법성(法性)이라고 표현하다가 <사자후보살품>에서는 불성이란 공(空)과 불공(不空)을 보는 제일의공(第一義空)인 중도(中道)라고 설명하며, 또 12인연을 관조하는 지혜를 불성이라 하였습니다. 이후 나중에는 12인연 그 자체를 불성이라 하기에 이르며, 다시 불성을 인과로 나누어 설명하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부처가 되었을 때의 불성은 과(果)의 불성이고 중생으로 있을 때의 불성은 인(因)의 불성이라 하여 불성을 인위의 불성 과위의 나누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불성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열반경 불성론의 대의입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한북 스님(왼쪽에서 두번째) 등 조계종 승가대학원 학인 6명도 이번 법회에 동참해 승가대학원장인 지안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질의

범부 죽음은 고통, 부처님 죽음은 '깨달음'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 교수)

[질문1] 부처님의 죽음은 범부들처럼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열반에 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열반과 범부들의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안 스님] 열반이란 죽음을 의미하는데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에서는 다 똑같지요.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범부 즉 중생의 죽음은 '고(苦)'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죽음은 '고'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에 의해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하는 것을 보고 '고'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 범부들의 죽음은 자신이 평생 동안 지은 업(業)에 묶여서 가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의 죽음을 '열반'이라 부르는 것은 범부들의 죽음처럼 단순히 생명이 끊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깨달음 자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질문2] 요즘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웰빙'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웰빙' 즉 잘 산다는 것은 곧 잘 죽는다는 웰다잉과도 연결이 돼 있어 '웰다잉'에 대한 관심 또한 높습니다. 불자들이 '웰다잉'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지안 스님] 요즘 '잘 죽기 위한 모임' '죽음을 생각하는 모임' 등과 같이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죽음은 곧 '회향'의 의미입니다. 제가 통도사에 오래 살았는데 해마다 화엄산림법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80세가 넘은 노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기도하면서 "죽을 때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염주알 굴리면서 기도하다 편안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발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보살님은 정말 앉아서 염불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불교는 바로 생사를 초월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신행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죽을 때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를 믿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중 하나입니다. 신심을 다해서 마음공부 즉 불도를 열심히 닦아 가십시오. 반드시 웰다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원효 스님, '종요' 통해 정법호지의 계율 강조



이재수(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전임연구원)

[질문1] <열반경>에서 '일천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경전 안에서 '일천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일천제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안 스님] 수행은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중생이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책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을 나무라고 꾸짖어야 합니다. 모든일에는 진행되는 과정중에 상벌이 분명해야 결과가 좋은법입니다. '천제불성불론'이 나온 것도 천제를 배제하면서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들의 장애를 막고 잘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일종의 방편이었습니다.

정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수행 못하는 사람들을 견제하거나 그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천제불성론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제들도 불성이 있다고 여기고 부지런히 정진시키고 불성을 계발하여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명히 천제도 성불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원효 스님은 <열반경종요>에서 "<열반경>은 깊은 불법의 바다요, 방등경전에 비견할 창고이다. 또한 온갖 사상가들의 이론을 다 회통하고 있는 백가지 이쟁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안 스님] 원효 스님이 <열반경종요>에서 말하는 방등이란 대승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열반경>을 방등경전에 비견할 창고라고 한 것은 대승 사상을 포괄적으로 회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열반경>이 편찬될 당시 불교교단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고, 교단 안팎으로 불교의 위기 상황이 초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열반경>은 불교의 근본 대의를 다른 종교들에게 위축되지 않게 바로 세워야겠다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반경>은 대승의 어떤 경전보다도 계율을 강조하고 있지요. 원효 스님의 말씀도 <열반경>이 어느 대승경전보다도 정법호지의 계율을 강조했으며, 불성론으로써 불교의 본령을 삼고 있다는 뜻을 내포한 것입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독서의 계절

책으로 차를 즐겨라

독서의 계절, 가을이다. 차계에서도 가을을 맞아 차 관련 책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계간 <차와 문화> 창간호와 차 명상 이론을 정리한 <차명상>, 100여 가지 중국차를 사진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진으로 보는 중국의 차> 등 눈에 띄는 신간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본다.



<차와 문화>
초보자들 위해 차 정보 가득

<사진으로 보는 중국의 茶>
중국차 100여종 사진과 함께 담아

<차 명상>
명상 이론과 실재 정리한 교재

최근 선보인 계간 <차와 문화>는 '올바른 차 생활 가이드'를 표방하는 잡지다. 전문가보다는 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 특징이다. 여천차문화연구원 김대철 원장이 편집인을, 한국발효차연구소 박희준 소장이 주간을 각각 맡았다.

김대철 편집인은 "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초보자들이 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며 "대중들의 차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올바른 차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것이 <차와 문화>의 창간 목표"라고 설명한다.

창간특집호인 2006년 가을호는 분량만도 250여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장은 해남 대흥사 일지암과 강진 다산초당, 진도 운림산방 등 우리 차문화를 꽃피운 현장을 탐방한 '자연을 담아낸 아름다운 우리 차실'로 꾸며졌다. '웰빙 시대, 우리 차의 현주소'에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차 문화 현실을 짚어보는 좌담과 박희준 소장의 진단과 제언 등이 담겨 있다. 이어 건강 · 명상 · 음식 등 다채로운 차 문화를 소개한다. 도서출판 이른아침, 값 1만2천원.

안길백차, 대홍포, 백호은침, 철라한…. 낯선 차 이름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사진으로 보는 중국의 차>(형설)를 펼쳐보자.

'중국차 도감'이라는 부제에서도 보듯 중국에서 생산되는 100여 종류의 차를 사진으로 엮은 책이다. 동양차도구연구소 박홍관 소장이 4년에 걸쳐 중국과 대만의 차산지 곳곳을 견학하며 찍은 차 사진을 가려 담았다. 박 소장은 "대학에서 차도구에 관한 강의를 하다 보니 차문화의 중심인 '차'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차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도감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책을 펴내게 됐다"고 말한다.

중국 유명 차 산지에서 차 제조과정을 확인하고 중상급 이상의 차를 가려 마른 찻잎과 차, 우려낸 탕색, 우린 후의 찻잎을 사진에 담았다.

한편 지난 50여 년간 생산된 수많은 종류의 차 샘플을 보관하고 있는 중국 호남성의 한 다창을 견학한 후 "우리 차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되묻는 등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도 함께 곁들여 읽는 맛을 더한다. 박 소장은 앞으로 세계의 차문화 속에서 우리 차의 존재가치와 우월성을 재확인하는 <세계의 차>(가제)도 펴낼 예정이다. 형설출판사, 값 2만5천원.

<차명상>(차와사람)은 지난해 초의차명상원을 개설한 지장 스님이 명상 이론과 실재를 정리한 '차명상 교재'다. 차명상은 차를 마시는 행위와 감각을 관찰함으로써 자각력, 집중력, 통찰력을 계발하는 수행법이다. 지장 스님은 "차 명상은 차가 가진 효능과 기능이 시너지효과를 내므로 일반 명상법 보다 '나'를 느끼고 지켜보기가 훨씬 쉽다"고 말한다.

미얀마에서 직접 명상수행을 체험하며 차명상 원리와 이론을 연구한 데 더해 지난 1년여 간 차명상을 지도하면서 겪은 시행착오가 책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바쁜 직장인들이 이 책 한권만으로도 차명상 이론을 익히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명상'의 기본 원리와 의의에서부터 차명상 이론과 실천방법, 차명상을 응용한 다양한 명상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도서출판 차와사람, 1만2천원.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명선가, 우리쌀로 만든 다식 '차와 함께' 출시



김창배 화백 다화, 포장지에

(주)명선가(대표 한재욱)가 우리 쌀을 원료로 만든 다식 '차와 함께'를 출시했다.

'차와 함께'는 우리 쌀에 녹차, 송화, 도라지 등의 지역특산물을 첨가해 오븐에 구워낸 비스킷으로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한 대표는 "현대인의 건강과 우리 농민의 자립을 돕는 친환경 과자"라며 "찻자리에서나 등산, 낚시 등의 야외활동시의 간식으로 적합하다"고 말한다.

'차와 함께'가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찻자리 그림으로 유명한 김창배 화백의 다화(茶畵)를 이용해 포장지를 꾸민 '문화컨텐츠 상품'이라는 점이다. 우리 찻자리 그림이 상품을 통해 해외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선가는 전국 1000여개 한약방과 대형할인매장 등을 통해 '차와 함께'를 보급할 예정이다. 30g 10봉에 7000원.(070)7012-3901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인류 문화속의 茶

13. 정신의 음료

① 차(茶)의 신화

태양이 솟아오르고 봄기운이 무르익으면 나무들은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새싹을 피운다. 온화한 훈풍과 토질은 맑고 투명한 녹색의 향기로운 영초(靈草)를 피운다. 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이치를 부여받아 함께 살아간다.

태초부터 만물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양식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제로 사용되었다. 식물의 발견과 이용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사회적 필요 요건에 의해 발전의 단계를 거치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전통적 개념이 생기게 되었으며 상징적 의미가 부요되었다.

기록된 문헌이나 구전에는 청렴한 재상(宰相), 신선(神仙), 고승(高僧), 학식 높은 인물 등이 차를 즐겼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런 선인(先人)들의 차 이야기들은 그들의 삶과 생활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본래 차나무에 대한 기원은 인도와 중국에 두고 있지만 차의 활용에서는 중국에서 찾아보는 편이 용이하다. 중국의 오래된 약서(藥書)인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의하면 "신농(神農)은 수백 가지의 풀을 맛보고 약효를 시험하다가 하루에 72가지의 독을 만났으나 차로 해독하였다"하여 신농 때부터 차를 마셨다는 전설이 있다. 신농은 고대 중국의 신화 속에서 생명을 주는 신으로, 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하고 있다. 곡식을 심어 인류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었으며, 열기를 내뿜어 오곡이 자라도록 하였다.

의약의 신이기도 한 신농은 채찍을 가지고 여러 약초들을 채찍질하여,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한성(寒性)인지 열성(熱性)인지 알아내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었다. 또한 약초를 직접 복용하여 실험하였는데 하루는 끓는 물에 약초를 넣기 위해 솥뚜껑을 열자 하늘에서 서너 개의 나뭇잎이 솥 안에 날아들어, 끓는 물속에서 상쾌한 향기가 천천히 퍼져 나왔다고 한다. 또한 맛은 쓰고 떫고 뒷맛은 단맛이 있었으며, 몸에는 이상한 기운이 돌며 피로가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한다. 신농은 이 나뭇잎을 찾아 산야를 돌아다녔고 마침내 그는 솥에 떨어졌던 잎과 똑같은 차나무를 발견하였다. 차가 곡식과 치료의 신인 신농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상징성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만큼 중국인에게 차는 생활필수품과도 같은 것이다.

차에 대한 전설로 6세기경 달마대사(達磨大師)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달마는 남인도 향지국의 왕자로 중국에 불교를 전하러 왔다. 달마는

중국 약서 '신농본초경'서 茶神 '신농' 소개
달마 대사 일화는 차와 불가(佛家) 인연 다뤄


신농이 곡식 재배법을 전수하고 있는 그림.

중국의 소림사에서 무술을 익히며 무예를 창안하기도 하였으며 오늘날 우리가 참선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소개했다. 대사는 벽을 보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명상에 잠겼는데 처음에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하다가 꾸벅꾸벅 졸았다. 이를 본 대사가 자기의 눈꺼풀을 떼어서 마당에 던지자 거기에 차나무가 솟아나 이 나무의 잎을 끓여 먹은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 수행에 정진했다는 전설이 있다. 이때부터 차는 불가(佛家)의 수행음료가 되었다. 차가 단지 잠을 쫓는다는 사실보다는 자기의 눈꺼풀을 잘라내어 제자들이 수행할 수 있게 한 달마의 자비심이 더 돋보이는 장면이다.

이런 달마 대사의 일화는 차가 불가에서 특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한다. 차를 마심으로 깨어있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불가의 음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차 문화는 이제는 상징성을 뛰어넘어 인류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자리하고 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최고의 선물

건강 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正宇 천연 무공해 황토방 시공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침실방을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 순100% 황토로 황토방을 信心으로 시공하며
순 100% 천연황토가 아니면 시공비를 전액 받지 않겠습니다.

1. 황토방은 노화방지 및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해소 만성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황토방은 신경통 요통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3. 황토방은 원적외선 온돌효과로 난방비가 절감되며 인체내의 나쁜 과산화지질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천연황토는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와 습도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황토방은 건축물의 개 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황토방. 인테리어 시공전문
正宇 정우천연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 화 062)226-4445
팩 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email : bestceo12@naver.com



여성불자가 앞장서 우리 가정,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불국토로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마련한 '제1회 불교여성지도자 워크숍'이 그것이다. 10월 20~21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21세기 불교의 희망, 여성리더의 사명과 비전 찾기'를 주제로 여성불자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여성불자들의 고민과 해결책을 들어본다.

"잘 믿고 실천하면 가정이 불국토됩니다"

불교여성지도자 워크숍 '여성 리더의 사명과 비전찾기' 모색

여성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성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는 그동안 그리 흔치 않았다. '불교신자 3분의 2가 여자'라고는 하지만, '사부대중' 내에서 여성불자의 역할과 위치는 사실 미미한 것이었다.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이영숙 지원장은 "그간 개별적으로 신행활동을 해 오던 여성불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여성의 힘으로 사회를 바꿔보자는 뜻"이라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가정에서 비롯되며, 결국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성의 원력이 그 첫걸음"이라고 워크숍의 의의를 밝혔다. 조계종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 역시 격려사에서 "여성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은 무한대이며, 여성이 먼저 바뀌면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주최한 '제1회 불교여성지도자 워크숍'에 참가한 여성불자들이 21세기 여성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회 변화의 힘, 가정에서 나온다"

전국비구니회 교무부장 일법 스님과 불교여성개발원 특별자문위원 법성 스님을 비롯해 하도명화 (재)불심홍법원 이사장 등 1 · 2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자들과 개발원 임원, 지역 불교여성지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21세기 여성불자의 역할'을 화두삼아 다양한 논의가 오고갔다.

그 첫 매듭을 풀기 위해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찰경영연구소 부소장의 '한국의 종교인구 변동현황' 주제 강의가 마련됐다. 정 부소장은 "우리나라 30~40대 인구의 불자 비율이 증가했다가 60대 이후에 다시 감소하는 이유는 불교가 불자들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돕고 있지 못하고, 불자들 스스로도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여성불자들이 앞장 서 불교를 제대로 알고 굳건한 신심을 갖는 신행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성찰 · 나눔문화 체질화해야

박광서 교수(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역시 '여성불자의 사명과 비전'이란 주제의 강의를 통해 "여성불자들이 제 역할을 다 할 때 종단도 불교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매 순간 자기를 성찰하고 나눔의 문화를 체질화하는 것은 물론 사회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불교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불자들이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의 토론 역시 여성불자들이 자신이 선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로 모아졌다.

"가정의 종교는 어머니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들의 종교활동은 가족과 유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 종교 따로, 자식 종교 따로'라는 인식이 강하게 심어져 있는 탓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강요가 아닌, 여성 스스로 신행(信行)과 선행(善行)을 생활화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김춘자 불국사 영산회 회장)

'내 가족' 울타리 벗어나 사회에 관심을

"여성불자들의 잠재 역량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를 개발 · 활용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여성불자들이 개인의 신행활동에 매몰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 역량을 결집해 사회에 회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백경임 동국대 교수)

"여성 개개인의 각성과 실천이 이뤄지지 못한 원인을 종단이나 사찰에 돌릴 것이 아니라, 여성불자들 스스로 불교를 올바로 배우고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김경자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결국 개인의 '종교'로서만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여성불자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이날 발표한 '2010 비전'을 살펴보면 여성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가정 종교는 어머니에 의해 좌우

불교여성개발원 한주영 과장은 "여성불자들의 인식과 신행문화를 변화시켜 스스로 행복한 삶을 가꾸고, 가정 교단 사회에서 불교의 자비 평등사상을 구현해갈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불교여성개발원의 목표"라고 말한다. 이러한 설립목표에 발맞춰 2010년까지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초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교여성지도자를 양성해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여성들의 힘을 결집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교여성운동과 불교여성학 연구를 위한 기금도 조성해 여성의 사회활동 기반을 마련한다.

김인숙 원장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여성의 시대라고 말한다. 이는 이성과 힘에 근거한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감정과 지식에 기반한 사회, 즉 '여성적인 패러다임'이 이끄는 사회가 열리는 것"이라며 "여성불자들 개개인이 가정과 일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21세기 불국토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글 · 사진=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37>

우엉더덕 꿀환과 우엉더덕 꿀차





현대불교 독자 여러분들은 가을이 되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전 당연히 송이버섯과 더덕, 우엉과 연근, 토란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가을 산에서 나는 이 모든 식재료는 향으로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독특한 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이버섯이나 더덕, 연근, 토란 등은 예전엔 가을이 아니면 맛보지 못할 정도로 한철 잠깐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지요. 요즘에야 온실에서 재배가 돼 꼭 제철이 아니라도 맛볼 수 있지만, 그래도 가을에 나는 것들만큼 진한 제 향을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더덕을 처음 맛본 때는 10월이 지나가는 늦가을이었습니다. 제 고향 대천의 작은 절에서 노스님께서 더덕으로 김치를 담그셨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니까 그때의 더덕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향이 진하고 독특했습니다. 물론 스님께서 직접 농사지은 것은 아니었지만, 빨간 고추장에 버무려 생으로 담근 김치는 매우면서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금 얻어온 더덕김치 때문에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식재료들이 사찰에선 맛있는 음식으로 변하는 경험을 저는 자주 합니다. 음식이란 것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닐까요?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즐겁게도 만드는 힘이 담긴 것이 바로 음식인 것 같습니다.

여름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겨울을 따뜻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우엉, 연근 등의 뿌리채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엉과 더덕을 이용한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법



<우엉더덕꿀환> 재료: 우엉 30cm, 더덕 4뿌리, 검정깨 2큰술, 꿀 1큰술, 식초 약간, 설탕 1작은술

① 우엉은 10cm 길이로 잘라 껍질을 벗겨 식촛물에 잠깐 담궈둔다. ② 김이 오른 찜솥에 더덕과 우엉을 넣고 찐다. ③ 굵은 채나 강판에 우엉과 더덕을 간다.(우엉과 더덕은 섬유질로 구성되어 감자나 고구마처럼 고운 가루가 나오지는 않는다.) ④ 간 더덕과 우엉에 설탕을 고루 섞어 잘 치댄다. ⑤ 반죽된 우엉과 더덕을 섞어 환으로 빚어준 후 실온에서 1~2시간 건조시킨다. ⑥ 환의 한쪽 끝에 꿀을 발라준 후 검정깨를 묻혀 완성한다.



<우엉더덕꿀차> 재료: 우엉 30cm, 더덕 5뿌리, 검정깨 2큰술, 꿀 1컵, 소금 약간

① 우엉은 껍질을 벗겨 어슷하게 썰어 냉수에 담가둔다. ② 더덕은 어슷하게 썰어 소금물에 담가 아린 맛을 뺀다. ③ 우엉과 더덕의 물기를 완전히 빼준다. ④ 병에 더덕과 우엉, 검정깨, 꿀을 담아 밀봉한다.

※맛내기 포인트: 우엉더덕꿀차는 7주 후부터 먹을 수 있다. 이때 건더기까지 다 먹으려면 우엉과 더덕을 건져 믹서에 갈아서 꿀차에 섞어 마신다.

▶다음 주에는시래기 나물밥과 즉석 양채겉절이를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 靈氣)를 모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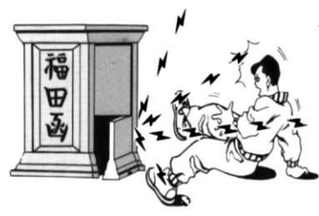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개발해 20세기 전반기에 약손요법, 氣주입법, 氣치료법으로서 일본의 대중사회에 일대 유행을 일으켰던 대체요법 보완요법의 체계입니다. 바로 氣요법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1980년 부터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특히 여러가지의 심신상과성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내용
• 자기치료법 • 타인치료법
• 원격치료법 • 마음의 버릇 치료법
• 영성향상법 • 면역력강화법
• 동식물에 대한 氣 주입법, 종합요법 등
▶ 교육 후 1개월 내외 무료복습 · 보충 교육제도실시

인터넷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회장 박희준)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10분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6. 11. 1부터 (월 · 화, 수 · 목 주 · 야간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일연은 '실증주의 답사한' 기자?

탄생 800주년 기념, 대구KBS에서 2일 다큐 방송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하려다 '왕사'로 부름받았던 청도 운문사.

누며 일연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일연'은 일연 스님이 애국심을 가지고 <삼국유사>를 썼던 의도와 소설처럼 쓴 것이 아니라 실증주의 답사 통해 수십년 동안 자료를 모아서 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답사의 형식을 취한 것도 그런 이유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일본 도쿄대 와세다대 교토대 천리대 등도 찾아가 <삼국유사>의 흔적을 찾아봤다. 1902년과 1904년 도쿄대 본으로 출간된 <삼국유사>도 영상에 담았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에서 활동했던 한반도 고대사 연구학자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제자들도 만났다. 이마니시 류는 조선총독부 소속의 역사학자로 <삼국유사>를 고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조선 역사에 나오는 '환인'은 원래 '환국'이었던 것을 고쳐 나라를 없애고 신화적 인물로 바꿔놓았다는 것이 사학자들의 지적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이마니시 류의 제자들을 만나 "<삼국유사>가 고쳐진 것이 맞지만 이마니시 류가 고친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듣는다.

<삼국유사>만을 연구해온 전문학자, 삼국유사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도 출연해 <삼국유사>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놓는다. <삼국유사> 속 '황룡사'에 얽힌 설화는 애니메이션으로 변신한다.

제작진은 "<그리스로마신화>가 유럽 그리스 등에서 전해오는 사상을 대변하고, 구약성경이 유대인들의 민족 신앙이자 역사서인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삼국유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번 방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저자가 스님이라는 이유로, 또한 일제사가들에 의해 고조선 역사 부분이 고쳐지면서 역사서가 아니라 설화집이라는 식으로 폄하된 부분을 벗겨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 이라는 것이 제작진들이 내린 결론이다.

홍수경 작가는 "'일연' 다큐멘터리는 <삼국유사>를 재발견하고 공부해야 하는 민족의 교과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동안 일제침탈기 시절 폄하됐던 <삼국유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경주 황룡사지.

고운기 교수 국내 유적은 물론 일본까지 답사
설화 속 장소, 황룡사지 등 인연있는 사찰 고증
일제 강점기에 폄하됐던 역사 의혹 사실 확인

작곡가 양성 · 동서 음악 교류 확대 기대

윤이상평화재단 '국제윤이상음악상' 제정

윤이상평화재단이 故 윤이상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자 '국제윤이상음악상'을 제정했다고 10월 24일 발표했다. 윤이상 탄생 90주년이 되는 2007년에 첫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2007 국제윤이상음악상'으로 명명된 이 상은 문화관광부 후원을 받아 제정됐다. 젊은 작곡가 양성 및 동 · 서양 음악 교류의 확대를 목표로 만들어진 국제윤이상음악상. 윤이상의 음악적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국제적 음악 교류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작곡 콩쿠르 형태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개최될 음악상의 대상 수상자는 미화 2만달러의 상금과 함께 2008년 네덜란드 가우데아무스 음악제와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바로크합주단 등에 연주기회를 제공한다. 본상 수상자에게는 1만달러의 상금을 수여한다. 2007년 6월 15일까지 접수가 가능한 2007 국제윤이상음악상 응모 자격은 1967년 6월 15일 이후 출생자이다.

심사위원에는 전후 독일의 대표적인 현대음악 작곡가 니콜라우스 후버, 유럽에서 윤이상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지휘자 프란시스 트라비스,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음악 작곡가 이사오 마츠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작곡과 황성호 교수, 작곡가 강준일씨 등이 선정됐다.

국제윤이상음악상 제정을 기념하는 해설 음악회도 마련된다. 윤이상 타계일인 11월 3일을 전후해서 2일 예술의 전당, 4일 파주 헤이리에서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열린다.

2일 저녁 8시에 시작하는 '윤이상 실내악 명곡의 밤'은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진행된다. 윤이상 5개의 소품, 노래, 바이올린 소나타, 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 Op.49를 연주한다.

4일 파주 헤이리 커뮤니티하우스에서 오후 5시에 열리는 '윤이상 현악 4중주의 비밀을 찾아서'는 콰르텟X가 현악 4중주 5번, 1번 등으로 감동을 선사한다.

강지연 기자

인드라 스님, 앨범 'INDRA' 출시

작곡가 김희갑씨 부부 동참

플루티스트 서연 스님이 '인드라'라는 예명으로 대중 가요 앨범 'INDRA(인드라)'를 출시했다.

MBM엔터테인먼트가 기획하고 도레미미디어가 제작한 음반 '인드라'는 작곡가 김희갑, 작사가 양인자 부부가 함께 만든 주옥같은 가요 8곡을 수록했다.

타이틀 곡은 '무명' '정구업진언' '사막의 전갈' 등 3곡. '무명'은 생이 바뀌어도 단절될 수 없는 인연을 노래했고, '정구업진언'은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행복을 찾자는 불교적 메시지를 담았다. '사막의 전갈'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기적인 세태를 불교적 시각에서 풍자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눈물을 닦아주세요', 의롭게 목숨을 바친 이들의 넋을 기리는 노래 '샨티 샨티 샨티', 남보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캠페인송 '내가 먼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불교적 메시지가 담긴 응원가 '아리아리랑' 등도 선보인다.

인드라 스님은 마산시립교향악단 수석 플루티스트를 역임했고 출가전 동편제 이수자 정계화씨에게 사사하는 등 동 서양 음악을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세계를 구축해왔다.

강지연 기자


인드라 스님(왼쪽)이 작곡가 김희갑씨와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저출산 · 찬불가가 키워드

불교TV 가을개편 단행

불교TV가 10월 30일부터 가을종합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가을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저출산 고령화' '찬불가와 명상음악'으로 집약할 수 있다.

저출산과 관련, '1사찰 1보육시설' 운동을 유도할 프로그램은 '동심탐방 어린이세상'(금 7:45)이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보육시설을 소개하고, 육아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실버라이프 6070'(금 7:45)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및 사회참여 기반을 소개하고 일자리 및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찬불가 콘서트 붓다뮤직'(목 14:30)을 신설해 합창곡 위주의 찬불가에서 탈피해 가요처럼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찬불가를 보급한다. MC는 불자 재즈 가수 웅산이 맡았다. 해조음 야소다라 풍경소리 LMB싱어즈 김성녀 김영임 안치행 등 불자 가수 및 밴드들이 출연해 다양한 찬불가와 불교와의 인연등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인물다큐 향기로운 삶'(목 7:45), '경전극장시리즈 관세음보살의 인연'(화 19:30), '신 실크로드'(월 0:30), '문화스페셜 한국의 보물'(월 22:45), '벽송사 벽송선회'(수 0:30), '현각 스님이 전하는 달마어록'(화 14:30), '심포지엄 명상의 과학적 탐구와 임상적응용방법'(월 13:00), '달라이 라마 특별법문'(월 13:00), '청소년명상 IQ EQ 쑥쑥'(월~일 7:30), '영혼의 소리 NaDa'(월 15:30) 등이다.

강지연 기자

니르바나 소아암 환아 돕기 음악회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 이하 니르바나)가 11월 1일 제4회 소아암 환아를 위한 음악회를 KBS홀에서 개최한다.

소아암 환아 돕기 음악회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과 기부금은 전액 복지단체 등을 통해 선정된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이번 음악회는 한국혈액암협회와 손을 잡고 마련한다. 한국혈액암협회는 전국 병원 복지사로부터 추천받아 후원받을 소아암 어린이들을 선정했다. 재정지원은 한국불교대원회가 맡았다. 니르바나는 음악회 개최비용을 전액 지원한 대원회의 적극 후원으로 47명 규모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보인다.

강형진 단장은 "'소아암 환아를 위한 자선음악회' 하면 바로 이 음악회가 떠오르도록 음악회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제601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11월 1일(음력 9월 11일) 수요일

내가 한다는 게 붙지 않으면 두려울 게 없어

산 불교가 되게 하려면…

문 북한의 핵 실험으로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불완전한 안보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는 수행자들은 어떻게 마음을 내고 공부를 해 나가야 할까요? 참다운 불자로서 마음의 안정과 안식만이 목적이 아닌 산 불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는지요?

답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잘 들으세요. 차분하지 못하다면 바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계에는 욕심이 많아서 싸움이 생기고 서로 쫓기고 쫓으면서 지금 난리 아닌 난리를 치고 가는 겁니다. 몸으로 찔러 죽여서 싸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딴 나라도 그렇고, 물질과 물질이 붙는 싸움이 아니라 정신적인 알력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싸우고 가지 않습니까? 먹고 먹히면서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탈피하면서 대처하면서 충당하면서 나갈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마음 도리, 이 도리를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인간 자체 자기부터 완성해야만 모든 이치를 알고 일체제불의 골수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불법의 교리를 그냥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자기 자신의 주인공을 믿고 물러서지 않고, 만법이 들고 나는 작용을 항상 자기 원력에다가 놓고 맡기고, 그렇게 반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선이며 행선(行禪)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항상 되풀이하고 넘어가느냐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신다면 앞으로 이득이 하나도 없고 이득이 없는 반면에 지구라는 배 안에서 사는 생명들에게도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정물이나 식물이나 동물, 이런 말들이 이름으로 지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온 자체로 인해서 과학이니 철학이니 생물학이니 또는 정치니 국민이니 공학이니 하는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나온 겁니다. 문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말입니다. 전자에도 그런 말을 모두 유식하게 했지만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계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오백 년 역사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인간으로서 주어진 능력으로 행을 해 나갈 수 있다면 그대로 우리 역사가 달라지며 차원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말로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법(法)이 될 수 있게끔, 생활에 실천으로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법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는 이 말 자체가 현실로서 일체 만물 유생 무생(有生無生)에서 다 같이 이루어져서 우주의 개발로부터 우리 인간의 계발이 동시에 실천에 옮겨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그 도리를 알아서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촐나 촐나 무기가 된다면, 그 하나가 바로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하는 속담의 말처럼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죠. 한마음의 한 점은 바로 우주의 근본이며, 태양의 근본이며, 바로 천지의 근본이니 내 한마음의 한 점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한 점이 아까 속담의 말처럼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인데 나오는 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도 주는 것도, 하는 것도 드는 것도, 덮는 것도 굴리는 것도 모두 그 한 점의 마음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실천으로 옮겨야만 되는 건가.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앞으로 그 한 점의 요리를 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 자체를 한마음으로 굴리면서, 바깥으로 굴리지 않고 안으로 굴리면서, 안으로 굴린 거기서 무심코 한 생각 나는 것이 우주 개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주의 개발이 우리 지금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 있다면 바로 신성한 우주의 개발이란 얘깁니다. 그러면 우주만 신성하고 여긴 신성하지 않으냐. 아닙니다. 모두가 신성한 곳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설법으로만 듣고 그냥 귓전으로 흘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실천에 옮기는 말을 하지 실천이 아닌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가깝게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들, 세계적으로 합류가 돼서 벌어지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혼란이 일어나고, 혼돈이 일어나는가 하면 잔잔히 가라앉고, 가라앉는가 하면 일어나고 하는 문제 등등이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주의 한마음 그 뜻이, 우리 지구를 지속시키는 반면에 모든 공해가 빠져 달아나가고 또는 한마음 한뜻으로 조화를 이루고 굴곡이 지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를 닦기 위해서 발판을 세우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나 또는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어떻게 해야만 그런 거를 다 실천해서 평온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는 우주의 개발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기서 여기 옮겨 놓으면 모르고 저기서 저기 옮겨 놓으면 모르듯이, 굼벵이가 매미가 될 때 모르고 매미가 굼벵이가 될 때 모르듯이, 우리 인간도 그렇게 연쇄적으로 진화되면서 형성해 온 것을 모르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많이 계발된 것이, 지금 유전자로써 많은 물질이 바뀌지기도 하고 또는 많이 나기도 하는 것을 연구해 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무루(無漏)의 무전자로 하여금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로 하여금 물질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루의 무전자가 그 유전자를 없앨 수도 있고 또 많이 생기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전자의 원자력도 될 수 있고 통신력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력에 의해서요. 즉 말하자면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자석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에 붙으면 붙는 대로 타 버리는 능력이 아주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뭐든지 집어삼킬 수 있고 또는 그것을 요리해서 에너지로 만들고 영양소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익도 줄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이 있다는 얘깁니다.

> 마음을 가난하게 두지 마시고
> 우울하게 두지 마시고
> 항상 보람 있고 생동력 있고 겸손하게
> 웃는 낯으로 대하세요!

그럼으로써 이 지구에 있는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살아나가는 데 차원을 높여서 지금 현실에 살아나간다면 생활이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역사도 그렇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달라지고 있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스위치를 눌러서 말을 듣고 썼지마는 한생각 내면 그냥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도 맛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보다도, 이런 얘기도 있죠. 마음이 가난하다면 정말 가난하게 사는 법이고 마음이 풍부하다면 정말 풍부하게 사는 법이다, 이런 거요.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을 가난하게 두지 마시고 우울하게 두지 마시고 항상 보람 있게, 또는 항상 생동력 있고 겸손하게 항상 웃는 낯으로 대하세요. 그 지혜가 무기가 되어 굴리는 살림살이를 해야만 앞으로 풍부한 살림살이가 될 뿐 아니라 대인으로서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 전체에 공헌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실로써,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항상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법이 된다는 얘깁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옛날에 가져온 그 비극적인 역사 이런 거를 말끔히 씻어 버리고 좀 새로이 새 맛이 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니 한생각을 함부로 내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어떤 원한이 있더라도 일일이 요렇게 찍어서는 열쇠를 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세계적으로 너무 높은 거는 낮추고 너무 낮은 것은 올리고 하는 그 마음, 한마음의 도리에 지혜로운 폭넓은 마음, 그런 큰 그릇의 마음을 낼 수 있는 그 뜻을 갖는다면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세계 평화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통일도 될 수 있고요. 마음을 다루면 몸도 다룰 수가 있거든요. 세계를 움죽거리게 하는 것은 한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애욕에 대해서

문 스님께 애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석가세존(釋迦世尊)께서도 이르시기를 애욕보다 더 광대한 건 없다고 하셨고, 애욕이 이 세상에 하나만 더 있어도 성불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과연 애욕은 극복되어질 수 있는 과제인지요?

답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없다면 어떻게 애욕이 있겠소, 당신 자체가 없는데. 당신이 지금 앉아 있는 게 당신이 앉아 있는 겁니까. 더불어 같이 앉아 있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상대가 있습니까, 자기가 없는데. 자기가 내세울 게 없는데 어떻게 애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피어난 꽃들의 움죽거림에 연관을 시키면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함이 없이 했고 가고 옴이 없고요.

그래서 가고 옴이 없이 여기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누가 올라왔어요? 발자취도 짊어진 게 없고 또 몸속에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지, 껍데기가 어디서 생겨서 올라왔어요? 알고 본다면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거지 자기 혼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자기 혼자만이 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심부름을 해서 더불어 같이 돈을 번 거지, 내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모두가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더불어 한 거지, 어떻게 자기 혼자만 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돈 나갈 데 안 나갈 데 다 나가 버리고 말죠.

천주교 자리든 만주교 자리든 불교 도량 자리든 한 도량이고 한 지구의 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원천적인 근본을 우리가 보고 마음을, 지혜를 내야지 소소한 거, 이 다섯 손가락이 있으면 이 손가락 하나를 보고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대로 여러분이 그게 무슨 희한한 기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에겐 다 자동 컴퓨터와 자동적인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다 주어져 있는데 자기가 쓸 줄을 몰라서 못 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모두 직결이 돼 있고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이 수레바퀴하고도 더불어 같이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만 내면 즉시 빛보다 더 빨리 전달이 된다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 쓰는 건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냥 모든 걸 묘법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대로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 구정물을 깨끗한 물로 바꿀 수가 있지만 이 물체로는 그렇게 우리가 그냥 바꿔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물이라 하면 물하고도 통하니까 마음으로는 얼른 그게 바꿔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깐 제대로 모든 거를 거기다가 맡길 수도 없고, 맡기지 못하니깐 방황하게 되고 방황하니깐 일이 잘 안되고 이런 거뿐이죠.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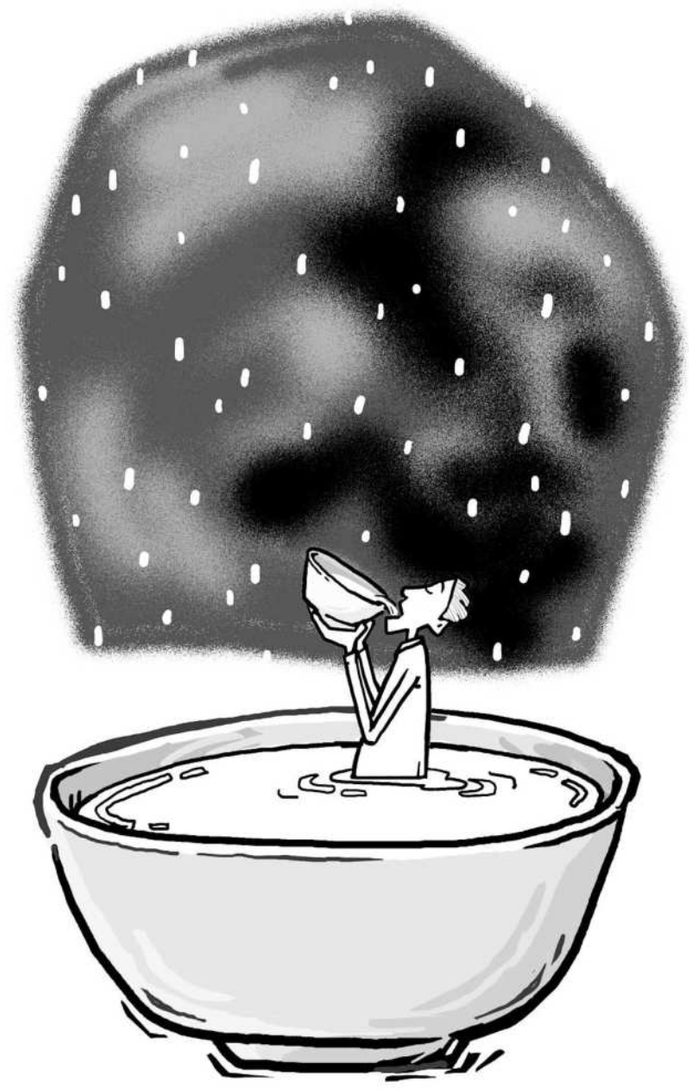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올바른 진화를 할 수 있으려면…

문 과거의 업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있고, 이 생에서 심은 습에 의해서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둔한 저희들은 아직도 마치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업이란 무엇이며 우리의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진화를 할 수 있는지, 영(靈)과 불성(佛性)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 영(靈)이라는 것과 불성(佛性)은 다릅니다. 영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모습 없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불성은 아닙니다. 혼(魂)이라는 것도 영을 혼이라고 합니다. 영혼(靈魂)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릇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따라서 작은 그릇이면 작은 그릇의 영혼일 것이고 크면 큰 대로의 영혼일 것입니다. 불성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갖가지로 다르게 마음을 내는 것 즉,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데 비유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렇게 하는 것을 이름 붙여서 영혼이라고 하죠. 그 영혼 하나가 만사를 잘못되게 할 수도 있고 잘되게 할 수도 있죠. 영혼이 불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되고 잘되는 거를 이끌어 가는 그 자체가 돌고 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불성이라는 자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돼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주에 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불성에 이끌려서 우리도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도 꿈쩍도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도 돌아감이 없는, 더하고 덜함도 없는 그것입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의 그릇이, 그릇 없는 그릇이 있어야 한 찰나에 드셔서 묘법의 설법을 하시고 한 찰나에 나신다 이런 게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가 미래고 미래가 과거고 미래에서 볼 때는 현실이 과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서 다시 올 때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서 볼 땐 여기가 과거고 여기서 볼 때는 그게 미래입니다. 우리가 정신세계의 차원을 삼차원으로 볼 때, 영혼이 잘못된 일들을 했을 때에 자기 그릇대로 노는 것입니다. 생명은 다 똑같습니다마는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반면에 악도 있고 선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황상제가 지배인이라면 그 지배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즉 악이 선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배자가 될 양으로 그 정신세계에서도 싸움 아닌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현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이 부부가 참 좋은 아들을 달라고, 이 세상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다자비하게 사랑하면서 이끌어 주는 그런 아들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빌고 나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좋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서 아들을 기르다가 얼마 안돼서 어머니마저 죽어 버렸습니다.

그 엄마는 정말이지 부처님한테 진심으로써, 항상 마음의 인등을 켜면서 염원하다가 그대로 앉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서 턱 가 보니까 너는 지금 낳은 아들을 또다시 가서 낳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이 성해서 이 세상이

☞30면으로 계속

자기부터 완성해야 일체제불의 골수 알 수 있어

☞29면에서 계속

모두 혼란이 온다고, 그러니까 너는 빨리 나가거라 그래서 또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명을 받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벌써 죽어서 미래의 세계로 갔습니다. 그래 미래의 세계에 가서 보니까 애당초에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각(覺)을 이룬 사람이라, 생시에도 그렇게 마음에 의해서 보고 듣고 하는 대로 미래의 세계로 전파를 보내고, 그러는 한편 미래의 세계에서도 그 사람이 있으면서 지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야 할 텐데, 이 악에서 볼 때는 그 여자를 꼭 죽여야만 옥황상제가 또 지배를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 여자를 택해야만 그 영혼을 낳을 수 있고, 배를 빌려야 하니까. 그래서 여자를 죽이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선에서 그거를 알고선 또 이쪽으로 구하러 보냈습니다. 미래의 세계에서, 즉 말하자면 정신세계에서 이 여자를 보호하고 살려야 된다는 뜻을 청했습니다. 내가 지금 급하니 당신의 그 전자의 아들의 뜻을 바로 이리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자기가 대신 그 여자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또 낳아 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이 세상을 간파했습니다. 보면서 들으면서 또 이 누진(漏盡)으로서 결정을 내면서 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또 연방 그렇게 살피는 동시에 한 찰나에 과거와 미래를 드나드시니 여기 가만히 앉아서 지배를 했다 이 소립니다.

그것이 부처님 세계의 한자리의 도리, 아주 차원 높은 도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선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선의 주인공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살기가 어지럽게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이 되니 이 몸뚱이 혹성이 많이 죽게 되고 살기가 극난해지죠. 불안을 조성하고 방황을 조성하고 또 싸움을 조성하고, 그러면 세상만사가 어지러워서 지구도 그렇고 모두 소멸되는 그런 작전이죠. 악이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거를 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각자 너부터 알아야만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을 알아야만 네가 그렇게 지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앉아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미래의 세계와 과거의 정신세계와 같이 한자리를 하고 돌아가니까, 너 나가 없이 같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돌아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악을 전부 선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걸 용광로에 다 넣으면 새 쇠가 아주 다양하게 나가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악도 선도 그렇게 다 넣어라 하신 반면에 '인연이 없는 중생은 어찌 할 수 없느니라.' 하신 것은 자기가 마음을 잘못 내서 저절로 독사 소굴에 태어나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이 자리에 있고 천당도 이 자리에 있고, 편안하게 자유세상을 보내는 것도 이 자리에 있고, 부처도 이 자리에 있고 중생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재도 공했으니까 없다 한 그 뜻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와 과거와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세상을 똑바로 이끌어 가기 위한 방편이자 실천이죠. 여러분에게 얘기했으니까 이제부터 마음내고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몫이니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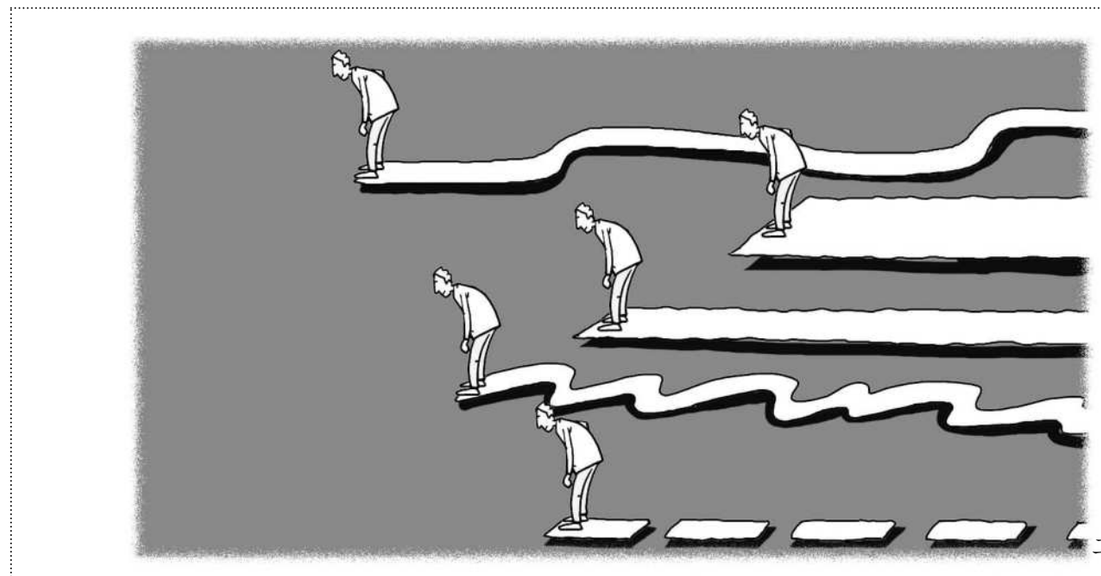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보배가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냥 부드럽고 편안하게 웃으면서 사세요!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문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못사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지만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죽는다고 해결이 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못살고 가난하고 못나고 이런 게 억울하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나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시고요, 못난 것도 한 찰나고 잘난 것도 한 찰나니까 그런 걸 다 그저 묵살시키시고 이 도리를 배우는 데 전념을 다하세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래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이 주장자에 사탕같이 뭔 그거를 하나씩 다 들었더라는 거예요. 다 들고 들어가야만 한자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기를 쓰고 증득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렇게 애를 쓰면 오히려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애를 쓰지도 말고 애를 안 쓰지도 말고, 그냥 생활하는 데서 여여하게 돼 가는 대로 '이것이 바로 내 한마음, 이 한마음 의식, 한마음으로 주인공, 주장자 이것이 자성본래불(自性本來佛)이니까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끌어 주고 있지 않나. 그런데 내가 뭐 걱정이야, 보배가 나한테 있는데.' 이럭하고선 부드럽게 편안하게 그냥 웃으면서 사세요.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사과를 심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이따가 요 시간 지나면 내가 저 아래 나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거 겁내고 살아 본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이따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할 일은 꼭 해야 되니까요. 뭘 그걸 두렵게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 하나 버리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내가 살아, 내가….' 이러니깐 그냥 두렵고 모두가 그렇지, 내가 한다는 게 붙지 않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예전에 깜깜한 그믐밤에 길을 가는데, 글쎄 이 내 마음의 스승이 도깨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춘천 골짜기 물 내려가는 쪽으로 거길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그, 내가 어차피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깟 놈의 거 뭐 그게 두려워? 다 와라! 뭐가 있다면 다 와라!' 그랬더니 가다가 보니깐 글쎄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목신이 있는 겁니다. 아, 인사를 깍듯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벗이 돼서 좋아서 말입니다, 나도 그 밑에 앉아서 혼자 싱그레 웃고 혼자 중얼거렸으니, 누가 봤더라면 "저 사람 미쳤군."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아주 미친 사람 같은데 어떻게 산중에 올라왔을까?" 그랬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밤에 산비둘기 울음소리, 부엉이 울음소리, 능생이 울음소리, 새소리! 얼마나 좋았는지 친구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 가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야!' 그러고 그냥 싱긋이 웃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게 다 친구들이고 벗이었어요. 도반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같이 말할 수 있는, 그 뜻을 전달하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리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미래 세계에 그 지배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한마음 부처가 되기 위해 지금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배인이죠. 그리고 지배인이 한자리 한마음으로 하는 거고, '부처는 하나다'라고 하는 건 부처가 없기 때문에 부처라는 그 용어를 붙여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할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거 할 때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처가 없는 게 부처다 이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죽지 않는다면 죽은 세상을 어떻게 맛볼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반쯤 죽는 게 아니라 아주 죽는다면 생산이 될 것입니다. 아주 죽는다면 다시 태어날 것이고 아주 죽지 못한다면 고생을 길게 하고 길게 아마 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판(理判)이다 사판(事判)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둘이 아닌 까닭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이판사판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죽을 것이고 저래도 죽을 것인데 살면 얼마나 더 살 양으로 그렇게 애를 써야 하죠? 몸으로 죽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마음이 죽는다면 몸도 항상 고개가 숙여지고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해 줄 수 있고, 남들을 이익하게 해 줄 수 있고, 일체 만법에 걸림이 없이 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나는 이따가 죽든 내일 죽든 그런 건 상관없으니 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 하는 대로요, 죽든 살든. 그것을 배우세요. 내가 죽든 살든 이따가 죽든 이따가 엎드러지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가 있다면 가루가 되더라도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없으니까 가루도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여러분이 집에서나 나가서나 일하시면서나 항상 평상시가 그냥 참선이며 마음 편안하고 넉넉하면 좌선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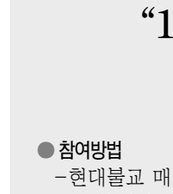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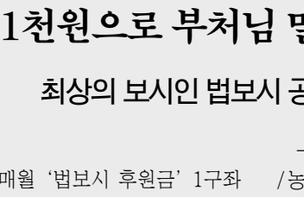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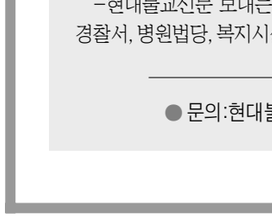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12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	1569/kw	124㎥	182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시공단면도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25평 난방비 (1일10시간 기준) 시공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큐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마음에 향을 피우며

김경진(충남 홍성군)



그림 · 문병성

참으로 먼 길을 가야 할 것 같다. 이제 막 시작된 길고도 험한 형벌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오욕의 터널을 무슨 수로 지나갈 수 있을지 두려움과 좌절감만이 가득하다.

나는 지난 오랜 세월동안 허상과 망상의 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수많은 죄와 악업을 쌓았다. 그리고 영어의 몸이 되어서도 참회는커녕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어리석은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내 삶을 학대하고 있을 때 법회에 다녀온 동료가 나에게 책 한 권을 던져주었다. 그리고 그 책은 내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무소유에 대한 내용의 그 책은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과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깨닫고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이치지만,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늘 번민하고 방황해 온 내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

나는 지금 분명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무슨 일이든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여유를 갖게 되었고, 어차피 살아있을 거라면 세상에 진 빚 중 어느 하나라도 갚고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

나는 언제 세상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무기징역수다. 죄수가 되면서 나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아내도, 가까운 친지도, 친구들도 모두 잃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나'를 잃었다.

처음에는 나를 이렇게 만든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사업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그렇게 모순된 것인지는 정말 몰랐다. 사업을 하면서 꼬박꼬박 갚아야 할 것들은 다 갚아나갔는데, 정작 받아야 할 것들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다. 세상이 냉정한 것인지, 내가 어리석은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연유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나는 영어의 몸이 되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영어의 몸이 된지 삼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가슴 속 응어리도 하나 둘 사라져 갔고, 잊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잊어야 한다는 이치를 깨닫게 됐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무소유에 감명을 받은 나는 진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르고 싶었다. 그 가르침 속에는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한 밝은 세상이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동료의 도움으로 불교방으로 옮겨 참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수형생활 중에도 조석으로 예불하며 참회
마음 안정 찾고 고입검정고시에도 합격
희망 가질수록 커진다는 작은 깨달음 얻어

여러 도반들의 따뜻한 배려와 자비로 부처님 품속에서 생활을 하다보니 하루하루가 새로운 지혜의 눈을 뜨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 조석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예불을 통해 마음에 끼어있는 탐진치 삼독의 때를 벗기면서 마음의 빛을 보게 됐고, 평화를 느끼면서 참 자유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다.

또 백일기도를 하면서 죄업을 참회하니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다. 내 손으로 목탁을 두드리며 예불을 올리는 순간만큼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아집과 번뇌가 다 씻어 내려가는 것 같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부처님 법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모든 면에서 안정을 찾았고, 이곳의 수형생활도 곧 수양생활이 돼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을 했지만 불교를 만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택이요, 기쁨이다.

그리고 희망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스님들을 만나게 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이다.

나는 스님들의 권유로 공부를 시작해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전부였던 내가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스님들의 덕분이다. 이제 다시 스님들의 권유로 대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정보화 훈련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워드프로세서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을 남겨놓고 있기도 하다.

사실 이 신행수기를 쓰기까지는 상당한 고민을 했다.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과연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있는지도 나 자신에게 수없이 반문해 보았다. 하지만 나와 똑같이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지난 세월동안 어둠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용기를 내게 됐다.

지난날에는 남이야 헐벗고 굶주리든 말든 오직 나만 잘살면 된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부처님 말씀을 따라 기쁘게 나누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도 갖게 됐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가 인연 따라 짓고 받는 것이므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 나보다는 먼저 남을 생각하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살고 싶다.

어린 시절, 나는 불행하게 자랐다.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당할 때마다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 한 구석이 쓰리고 아프다. 부족하고 배운 것 하나 없는 상처투성이인 내 삶.

하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지울 것이다. 그렇게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았던 어린시절의 아픔을 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부처님 품 안에 있기에 가능해졌다.

나는 이곳에서 작지만 큰 깨달음 하나를 얻었다. 그것은 '절망을 할수록 절망은 커지고, 희망 또한 가질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이제는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 앞으로 살면서도 다시 좌절을 맛보게 될 지도, 다시 무엇인가에 두려움을 느끼고 흐느끼게 될 지도, 다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에 걸려 내 삶을 망치는 어리석음은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이 부처님 품속에 있음을 항상 잊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마음속에 촛불을 밝히고 향을 사른다. 그윽한 향 내음을 맡으며 두 손 모아 합장을 한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중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사 임 합 니 다

일신상의 이유로
총 원효종 임시 총무원장직을
사임합니다.

2006. 11. 1

육대근 (무애) 합장

충북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79-2
대성사 043)732-9561

탈 종 공 고

● 속명 : 황영규(黃榮奎)
● 법명 : 운암(雲庵)
● 승적번호 : 1102-10590

위 사람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을 수행할 수 없기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0년 10월 24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특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 전 속 성 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기 간 : 2006년 10월 31일부터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4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4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4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계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운동처방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제 5기 학인 모집

본 회에서는 전통 영남 범음 · 범패를 수련하고자하는 **제 5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기초반 : 각단 예불 및 사시불공의식
- 중급반 : 각종 재의식(사물다루는 법)
- 고급반 : 바라 및 승무작법

기 간 : 2006년 11월27일(월요일)부터 (6개월 과정)
일 시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수강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장 소 : 경남 진주시 봉곡동 474-5 불음원(한주 아파트 옆)
연락처 : 055)745-8419

사단법인 영남 범음 · 범패 연구 보존회
이사장 한 파
강 사 원 명 합장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68) 운달산 김룡사

전통해우소, 토봉, 흙웅덩이 연못

생태환경 두루 갖춰


연못은 물이 맑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김룡사의 생태 연못. 창포를 비롯해 다양한 생물들이 생태그물을 이뤄 살아가는 공간이다.

예전에는 사하촌에 서낭당이니 장승이니 하는 마을 지킴이들이 많았다. 그러던 것이 알고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용케 살아남은 것들도 제의(祭儀)가 뒤따르지 않아서 젯밥 굶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런데 비하면 운달산 김룡사의 사하촌 서낭신은 아직도 마을사람들에 의해 받들어지고 있어서 절골로 들어서는 느낌이 푸근하다.

운달산(雲達山, 1097m)이라는 지명은 신라 진평왕 때 운달조사가 이 산에 들어와 '운봉사(雲峰寺)'라는 절을 창건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김룡사(金龍寺)'라는 이름은 조선 중기 사하촌의 어느 장자가 운달산신에게 기도하여 남매를 얻어 아들의 이름을 용(龍)이라 지었는데, 그 후 마을과 절 이름을 '김룡'으로 고쳐 불렀다고 전한다.

김룡사 생태탐방은 주차장-보장문 구간, 김룡사 경내와 주변, 김룡사-양진암 구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차장에서 큰 절의 보장문까지 1km 가량은 비포장 숲길이다. 자동차들이 뻔질나게 드나든다. 사람이 있든 없든 숲속에서는 자동차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위의 식물들이 먼지를 뒤집어써서 탄소동화작용과 숨쉬기에 지장을 받게 된다.

김룡사 숲은 들머리부터 그윽하다. 활엽수로는 참나무류가 주종을 이루고, 침엽수로는 소나무와 전나무가 주종을 이룬다. 특히 이곳의 전나무 숲은 소문 없이 좋은 숲이다.

나무들의 수종(樹種), 수령(樹齡), 생육상태가 거의 같아서 다른 숲과 구분되는 숲을 '임분(林分)'이라고 하는데, 김룡사 주변이 전나무 임분에 해당된다. 이곳 전나무는 씨를 받아둘 만큼 유전자가 좋아서 지난 1996년부터 2ha 임분에서 10년 동안 우량종자를 받아냈다.

전나무가 위세를 부리기 전에는 소나무가 김룡사 숲의 주인이었다. 아니, 지금도 장송들이 곳곳에 우람하게 모여서 흘러간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위세를 부리고 있다. 부도전 주변과 대웅전 앞뒤와 석탑과 석불 주위에 남아있는 장송들도 그들 무리들이다.

운달산의 소나무들은 역사가 있다. 조선말까지도 운달산은 왕실에 숯을 공급하기 위한 향탄봉산(香炭封山)으로 대우받아 왔다. 고종 때 세운 향탄봉산사패금계(香炭封山賜牌禁界) 비석이 역사의 증인이다. 그 비석은 '왕실의 숯을 굽기 위해 김룡사에 하사한 숲이니 일반 백성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경고석이다.

김룡사 일주문 이름은 홍하문(紅霞門)이다. 사뭇 감상적인 느낌을 주지만, 붉은 노을이 푸른 바다를 꿰뚫는다는 '홍하천벽해(紅霞穿碧海)'에서 빌려온 선가(禪家)의 글귀이다.

숲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왼쪽으로는 냉골이 쉬임없이 흘러내리고 있다. 냉골은 문경 8경 가운데 하나로, 운달계곡이라고도 불리는 사하촌의 상수원이다.

전나무 숲길이 끝나면 개울가에 전통 해우소가 있다. 이 해우소 역시 다른 전통 해우소와 마찬가지로 경사진 비탈에 중층 다락형 구조로 서 있다. 용변칸의 톱밥은 용변을 보고난 뒤에 변조칸에 넣어서 배설물들을 덮도록 되어있다. 그렇게해서 뽀송뽀송 말려진 배설물은 건비(乾肥)가 되어 채전밭으로 실려나간다. 이것이 근래까지 내려온 김룡사의 전통 유기농법이다. 김룡사는 과거 여러 차례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1997년 겨울에도 밤중에 화재가 나서 설선당(說禪堂)과 범종루 등 주요 당우들을 태웠다.

전나무 씨 유전자 우수해 10년 동안 종자 채취
암자나 토굴의 양봉 농사는 자립경제 수단될 만
양진암으로 가는 길 시멘트옹벽 식생들에 위협

대웅전 뒤로 산불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일정 공간의 나무들을 베어내고 내화수림대를 조성한 것은 경험 끝에 나온 조치일 것이다.

경내의 조경수로는 극락전과 응진전 앞 배롱나무, 대웅전 앞 자목련 손꼽을 만하다. 신도가 기념식수를 한 주목도 눈에 들어온다.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경내에 '내 나무'를 한 그루씩 심는 일은 매우 뜻있는 생태사찰 만들기가 될 것이다.

절에 있는 은행나무들은 해마다 은행을 따서 관가에 바쳐야 했기 때문에 대개 암나무들이다. 그러나, 김룡사 명부전 앞 은행나무는 숫나무이다.

응진전 뒤로 돌아가면 고졸한 석불과 조졸한 분위기의 석탑이 자리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줄나비류를 비롯하여 산호랑나비, 뿔나비, 그늘나비, 네발나비, 청띠신선나비, 작은멋쟁이나비 등이 가을날 김룡사 주변에서 관찰된 나비들이다.

큰절에서 양진암에 이르는 비포장 숲길은 부드럽게 휘어지고 구부러진 동선이 운달산의 너그러움을 많이도 닮았다.

최근 절 안에 연못들을 많이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굳이 많은 돈 들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김룡사 연못처럼 그냥 웅덩이 파놓고 물만 끌여들여 수생태계가 이루어진다.

김룡사 연못은, 연못 물은 맑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생태연못이다. 창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수생식물, 소금쟁이를 비롯한 각종 수서생물, 왕잠자리를 비롯한 곤충류, 참개구리를 비롯한 양서류, 갈겨니 같은 어류, 물총새와 같은 조류, 그리고 파충류와 포유류까지 이 연못을 중심으로 생명의 그물을 짜고 있다.

숲길 좌우는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여 있는 혼효림이지만, 전나무 숲은 어디서나 우뚝하게 돋보인다. 사찰의 등나무들은 대개 식재된 것이 많은데, 이곳에선 길섶에서 자생 등나무들이 눈에 띈다.

여여교를 건너면 오른쪽에 정상으로 가는 숲길이 나 있다. 금선대와 화장암 방향이다.

까실쑥부쟁이, 개쑥부쟁이, 참취, 구절초 같은 국화과 가을꽃들을 비롯해 층층잔대, 마타리, 등골나물, 산박하, 무릇, 눈괴불주머니, 맥문동, 여로, 누린내풀, 나도송이풀, 며느리밥풀꽃, 흰진범, 며느리배꼽, 송장풀 등이 자리하고, 습한 곳에는 여뀌 종류와 물봉선, 고마리, 물양지 등이 피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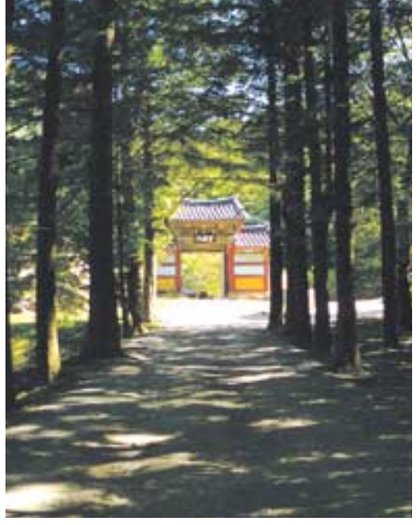
대성암은 비구니 수행처로, 1800년에 김룡사에 있던 청하당을 이전해 지은 것이다. 해우소도 조촐하고 아담하다. 규모는 작지만, 전통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직접 똥을 치고 그 똥으로 농사 짓는 일도 옛 수행자들의 삶 그대로이다.

대성암에서 양진암으로 가는 길은 운달산 중턱을 휘돌아가는 산복도로이다. 길을 따라 산쪽으로 시멘트 옹벽이 양진암까지 이어져 있다. 양서류와 파충류들은 가을에 기온이 떨어지면 동면을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 시멘트 옹벽 때문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기계(자동차)만을 위한 살생의 도로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과 자연이 합일하는 상생의 길이 절집에 필요하다. 양진암은 자연에 손을 너무 많이 대서 산중암자다운 맛을 찾아보기 어렵다.

양진암 마당에 서면 운달산의 한자락이 시원히 펼쳐진다. 그러나, 운달산은 고만고만한 높이의 봉우리들이 능선처럼 이어져 있어 어느 봉우리가 정상인지 가늠이 잘 안 된다.

게다가 기암이나 절경마저 눈에 띄지 않는 수더분한 육산이다보니 소문도 그만큼 적다. 산은 사람들 눈에 덜 띄는 만큼 오염이나 파괴도 적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김룡사 보장문 앞 전나무 숲길.


김룡사 해우소 뒤편.


양진암 가는 길가의 옹벽.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신상품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합장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 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방석
198,000 → 158,400원 (20%할인)
· 규격 : 425mm × 400mm
· 무게 : 950g ~ 1000g
· 색상 : 살구색, 쥐색
· 재질 : 겉커버 - 고급 샤넬천,
속커버 - 희담석 알갱이가 들어있는 고급 방수천

사은품 : 희담석 찜질팩




희담석 허리팩
44,000 → 35,200원 (20%할인)
· 총길이 : 120.5cm · 내용물 : 희담석가루, 물, 수지
· 표피 : 무독성 PVC sheet (항균 99.9%의 금가루 첨가)

사은품 : 희담석 눈찜질팩

보이차
해발 3,000M이상 에서 생산된 자연산 야생교목(2년산)

최상의 보이햇차를 고급자사통과 함께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특별할인가 600,000 → 500,000원
· 구성 : 보이차 14편, 자사통

보이햇차는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떫거나 쓰지 않은 최고급 보이차입니다.

보이햇차 야생지 : 운남성의 서북지방(고리공산)으로 서쪽으로는 '티벳', 동쪽으로는 '샹그리라'가 인접한 험한 산악지형으로 매우 청정한 지역임

■ 수입원 : ㈜홍다원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자사통
보이차의 자사통은 이싱 정산에 위치한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 의뢰한 작품으로 순수한 자사의 원료로 만듭니다.
· 크기 : 지름 29cm, 높이 37cm
· 종류 : 담녹색, 황토색

주문 전화 현대불교신문사 영업팀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3
2004-8215